

**송실대학교 철학과 학술제**

**2020년**

# **초 성 제**

**일시 : 2020년 12월 10일 (목) 18:00**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행사 진행**

**<학과 전체문자를 통해 안내된 Zoom 채팅방 주소 안내>**

# 목차

## 1. 학회보고

- 1) 고전연구학회 (가리사니) ----- 3
- 2) 언어예술분과 ----- 34
  - A. 영화 『폴아웃』 비평
  - B. 영화 『라라랜드』 비평
  - C. 영화 『사일런스』 비평
  - D. 시나리오 창작활동 보고

## 2. 논문대상작

- 박새용, 『자유의지 담론에 기반한 칸트의 자유의지 분석』 ---- 82

## 3. 선배들의 전공 방향 & 소모임 소개 ----- 111

- 1) 교직 ----- 116
- 2) 융합전공 ----- 119
- 3) 학군단 ----- 121
- 4) 필라이트 (밴드) ----- 122
- 5) 등산 ----- 124
- 6) 필로그라피 (사진 소모임) ----- 126

## 4. 학생회 인사말 ----- 129

## 고전연구학회 학회보고

# 『니코마코스 윤리학』 스터디

송실대 인문대학 철학과 고전연구학회  
최유동, 이경민

## 가리사니(고전연구학회), 『니코마코스 윤리학』 스터디

최유동, 이경민

### 1권 <제 1장> 좋음과 목적

기예, 탐구, 행위, 선택 등의 목적은 어떤 좋음으로 보이기에 사람들은 good을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때 추구되는 여러 목적(어떤 좋음)들에는 차이가 있어 보이며, 이중 활동과 성과물을 비교하면 성과물이 본성적으로 활동보다 낫다. 목적의 종류가 여럿인 것은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기예 등이 여러 종류인 것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기예나 행위 등에 있어서는 다른 것을 포괄하는 총괄적인 것이 있고, 총괄적인 것의(총기획적인 것의) 목적은 그것이 포함하는 다른 목적들보다 선택할만한 대상이 된다.

### <제 2장> 최고선과 정치학

목적 중 그 자체로 바라고 선택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른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무한 소급 배제) 이것이 좋음이자 최상의 좋음 (최고선)일 것이다. 최고선은 우리의 삶과 큰 연관성을 가지는데, 궁수가 과녁을 알고 활을 쏘야 맞추듯 최고선에 대해 알아야 그것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고선과 관련하는 학문은 정치학으로 보인다. 정치학은 가장 총 기획적인 학문으로, 폴리스 안에 필요한 학문들과 시민들이 배워야 할 양을 규정한다. 또한 정치학의 목적은 다른 학문들을 이용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기에 타 학문들의 목적을 포섭할 것이며, 정치학의 목적은 인간적인 좋음이다.

### <제 3장> 논의의 방법

우리의 주제가 허용되는 만큼의 정확성에 도달한다면 충분히 논의된 셈이다. 정확성은 모든 논의들에서 똑같이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정치학의 대상인 고귀한 것과 정의로운 것은 많은 차이와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좋음 역시 마찬가지로, 때때로 사람들은 good으로 인해 손해를 받기도 한다. good의 가변성과 정확성이 모든 논의들에서 똑같이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고려할 때 우리는 개략적인 참을 추구하는 데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논의의 방법)

각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좋은 판단자이다. 각각의 개별 분야에서는 그 분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좋은 판단자이며, 전 분야에 대해 교육받은 사람이 단적으로 좋은 판단자이다. 젊은이는 정치학에 적합한 수강자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젊은이는 인생의 여러 행위들에 대한 경험들이 없는데, 정치학의 논의는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며, 둘째 젊은이는 감정에 따라 살기 쉬워 무엇이든 감정에 따라 추구하는 습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수강자에 대한 논의)

## <제 4장> 최고선에 대한 통념들

최고선을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행복의 내용은 다양하게 얘기되며 심지어 같은 사람이 때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많은 좋음들과 구별되는 다른 어떤 것이 그 자체로 존재하며, 이것이 이 모든 좋음이 좋음이게끔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플라톤의 입장)

이 중에서 우리는 몇 가지 주도적인 의견과 일리 있는 의견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전에 명심해야 될 것이 제1 원리를 향해 나가는 논의(귀납)와 제 1원리로부터 출발하는 논의(연역)는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물론 알려져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귀납) 그런데 '알려져 있다' 역시 두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경험) 하나는 단적으로 알려져 있다.(연역) 이 중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진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귀납) 이를 정리하면 결국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제 1원리를 향해 나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에 최고선, 정치학의 문제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학생은 좋은 습관을 통해 훌륭하게 자랐어야 한다. 제 1원리는 사실이며 경험을 통해 이를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이유(앎)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제 5장> 행복과 세가지 삶의 유형

### 삶의 유형

#### 1.향락적인 삶 ( 좋음=즐거움, 대중들이 생각하는 행복)

짐승들의 삶으로 비유되면서 노예와 같은 삶이라고 폄하되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만큼, 이해의 여지가 있다.

#### 2.정치적 삶

##### 1) 추구하는 것이 명예일 경우

-명예는 목적으로는 너무 피상적이다. (피상적=본질에 이르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관계) 또한 명예는 수여자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시에 좋음은 고유한 것으로서 쉽게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수여자가 더 좋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좋음은 선사될 수 없는 고유한 것이기에 한계가 있다.)

##### 2) 추구하는 것이 탁월성인 경우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이기도 한데, 이때 그 확신의 근거는 탁월성이다. 즉 명예가 탁월성의 증명이라는 점에서(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과 같은 최고선에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탁월성을 근거로 명예를 얻고자 함. 즉 명예는 일종의 자격증, 증표 같은 느낌으로 실체는 탁월성) 탁월성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탁월성 역시 그것을 가지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경우, (예컨대 잠만 자는 경우) 혹은 불행을 겪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에 한계를 가진다.

3.관조적 삶

-10권에서 등장

돈은 다른 것들을 위한 목적이기에 돈을 버는 삶은 강제적 삶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는 생략된다.

**<제 6장> 좋음의 이데아 비판**

**비판1-수의 이데아=선후가 이야기되는 것들에 대한 이데아를 세우지 않음.**

좋음은 무엇임에 있어서도, 어떠한에 있어서도, 또 관계에 있어서도 이야기된다. 그런데 관계는 실체의 가지 같은 것으로, 실체가 선행하기에 이에 대한 하나의 공통된 이데아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의 이데아나 관계의 이데아를 세우지 못한 것은 이에 대한 방증으로 보인다.

**비판2-좋음은 많은 방식으로 이야기 된다.**

실체, 질, 양, 시간, 공간 등에 따라 좋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만큼 좋음이 어떤 공통적이며 단일한 보편자로(p-좋음의 이데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보인다. 만약 존재했다면 하나의 범주로만 좋음이 이야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랬다면 학문에 있어서도 하나의 이데아, 하나의 좋음을 따르는 한가지 학문만 있어야 할텐데, 실제 학문은 하나의 범주 내에서도 다양하게 나뉜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비판3-이데아와 실체에 있어서 하나의 동일한 설명이 적용되는 한 이데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좋음 자체(이데아), 좋음(실체)가 모두 좋음인 한 아무 차이가 없을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이데아가 영원하다는 것 정도일 텐데, 더 영원한 것이 더 좋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ex-눈의 흰색)

플라톤은 모든 종류의 좋음에 대해 이데아 이론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랑받는 것들만을 이데아에 따라 좋다고 하며, 다른 것들은 이데아 때문에 좋음이라고 불리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좋음이라고 불린다고 본다. 그렇다면 좋음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그 자체로 좋은 것,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좋은 것들(유용할 뿐인 것들)이 각각 그것이다. 탐구 대상은 이데아이기에 우리는 그 자체로 좋은 것들을 탐구한다.

그 자체로 좋은 것들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른데 이들을 배제하고 좋음의 이데아만 그렇다고 하면 그 대상이 공허해진다. 그렇다고 다른 것들을 전부 포함시키면 좋음에 대한 설명은 모든 것에 있어서 동일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이들은 좋다고 얘기되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예컨대 용기랑 쾌락이 서로 다른 좋음이라면, 이들은 그 설명 방식이 완전히 다름) 따라서 단일한 이데아에 따라 공통적인 것으로서의 좋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결론)

그렇다면 좋음은 어떻게 이야기되는 것일까? 우선 우연으로 인한 동음이의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단일한 무언가로부터 유래한 동음이의, 혹은 모든 것이 하나에 기여하는 동음이의 등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형이상학의 영역이므로 여기까지만 다루고 넘어간다. 좋음의 이데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역시 형이상학의 영역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넘어간다. 양보하여 설령 좋음의 이데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 성취할 수 있거나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은 분명할 텐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적 행위로 성취할 수 있거나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기에 탐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적 행위로 성취할 수 있거나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위해서 본 삼아 좋음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냐고 되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의는 어느 정도 수궁할 수 있지만, 여러 학문의 관행과는 맞지 않아 보인다. 모든 학문은 어떤 좋음을 추구하는 반면, 좋음의 이데아에 대해서는 알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제 7장> 행복과 인간의 기능

모든 행위들과 기술들에 있어서 추구되는 각각의 좋음이 있고, 그것이 곧 목적이 된다. 그것들 중에 가장 최상의 것은 완전한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것이란, 다른 것 때문에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자체로 추구되는 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복은 단적으로 완전한 것이다. 다른 것들은 행복을 위해 추구되는 것이고, 거꾸로 행복이 다른 것들을 위해 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행복은 자족적인 것으로, 이때의 자족성은 자신만을 위한 자족성이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을 위한 자족성이다. 따라서 행복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것으로서, 행위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의 목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의 기능을 파악함으로써 행복을 더욱 명확히 정의 가능한데, '좋음'은 기능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능은 여타 다른 생물들과는 다른 어떤 것이어야 하기에, 영양 섭취 및 성장 기능과 감각을 동반하는 기능 등의 생물 공통적인 기능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며, 따라서 인간의 기능은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훌륭한 인간은 인간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인간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좋음은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좋음은 완전한 삶 안에 위치한다.

이 같이 만들어진 밑그림에 따라 좋음의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엄밀한 정확성을 항상 요구할 수는 없다. 원리에 대한 사실을 필요한 만큼 잘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부차적인 다른 문제들이 그것을 잠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 8장> 행복에 대한 통념과의 비교

이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찰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좋음은 외적 좋음, 영혼의 좋음, 육체의 좋음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된다. 이 중 영혼의 좋음은 오래도록 철학자들에 의해서도 으뜸이라고 이야기되므로 우리의 논의에도 부합한다. 또한 목적은 어떤 행위와 활동이라는 것, 행복한 사람은 잘 산다는 것도 우리의 논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누군가에게는 탁월성이, 실천적 지혜가, 혹은 어떤 종류의 지혜가 행복으로 여겨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것들에 즐거움이 동반된 것이거나 즐거움이 없지는 않은 것이 행복으로 여겨지며, 누군가는 외적 풍요까지 여기에 추가한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논의는 행복을 탁월성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주장과 부합한다. 최상의 좋음이 품성상태에서 성립하는지, 아니면 활동에서 성립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잠을 자고 있을 때보다 실제로 행할 때 더 성취하듯이, 행복은 활동에서 성립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렇게 행위 하는 사람의 삶은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다. 탁월성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탁월성에 따르는 것이 즐거운 것일 터이기 때문이다. 고귀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본성적으로 즐거운 것들이 즐거움이 된다. 그리고 탁월성에 따른 행위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 즐거운 것들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며, 즐거움이 장식처럼 추가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행복은 가장 좋고 가장 고귀한 동시에 가장 즐거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말한 통념과 같이 행복은 명백하게

추가적으로 외적인 좋음을 필요로 하는 듯이 보인다. 일정한 뒷받침이 없으면 고귀한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어떤 사람들은 탁월성이 아닌 행운을 행복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 <제 9장> 행복하기 위한 조건

행복이 어느 방식으로 얻어지든 간에, 행복은 신적인 것이다. 또한 행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며, 우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기보다는 배움과 노력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과 행복이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임을 고려할 때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은 그러한 활동과 노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며, 어린이 또한 나이가 어려 그러한 일들을 실천할 수 없고 삶도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제 10장> 행복과 운수

삶을 끝까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해도 죽은 다음에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 한편 죽고 나서도 불명예 등과 같은 나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역시 이 같은 통념에 대한 반례로 보인다. 또한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그 후손들이 겪을 형편은 매우 다양할 것일 텐데, 이러한 후손들의 일들에 휘말려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것은 이상한 일로 보인다. 이것은 살아 있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일로서, 지금 복되지 않고 이전에 복되다는 이유로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행복은 지속적인 것인 만큼, 운수가 바뀐다고 해서 복된 자인지 아닌지 서술이 바르게 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운수에 따라 복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좌지우지된다면 이는 잘못된 일일 것이다. 인간의 삶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할 뿐이며, 행복한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활동이 탁월성에 따르느냐 아니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들은 다른 성취에 비해 안정적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영예로운 활동들이 더 지속적이다. 따라서 행복한 사람은 안정성을 갖게 될 것이며 평생 내내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다만 많은 일들이 우연에 따라 일어나며 그 크기에 따라 차이를 가지는데, 좋은 쪽으로 큰 일이 일어나면 삶을 더 복 받은 것으로 만들게 되며, 나쁜 쪽으로 큰 일이 일어나면 복을 짓누르게 되기는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고귀하고 복된 사람이라면 이 모든 운을 견뎌낼 것이며, 행복한 사람은 쉽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운에 맞닥뜨리더라도 결코 비참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탁월성에 따라 활동하며 외적 좋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지고 있을 사람들은, 인간인 한 지극히 복된 사람일 것이다.



### <제 11장> 죽음 이후의 행복

그렇지만 후손들의 운과 친구들의 운이 죽은 자의 행복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에 반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상의 일들은 무수하고 다양한 것들이며, 영향이 큰 것들도 있고 적은 것들도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일들이 아마도 죽은 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살아 있는 자들에게 끼치는 영향만큼 의미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것들은 행복한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 <제 12장> 명예로운 행복과 칭찬

행복은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명예로운 것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칭찬받을 만한 것은 어떤 좋고 신실한 것에 대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칭찬받는다.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에 관계되는 좋은 것은 칭찬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다. 즉 칭찬은 탁월성에 관련한 것으로, 칭찬의 대상이 되는 개인은 탁월성을 통해 고귀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행복은 명예롭고 완전한 것들 중 하나이며, 좋은 것들의 원리이자 원인인 신적인 것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 <제 13장> 영혼과 탁월성의 종류, 그리고 그들의 관계

행복은 완전한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탁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정치학은 무엇보다도 탁월성에 대해 연구해야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복은 인간의 영혼에 관계된 것이므로, 정치학자도 영혼에 관한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듯이, 연구는 사안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탐구 주제에 충분한 정도로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후로는 영혼에 관해서, 이성이 없는 영혼의 부분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만 이것들이 나뉘어 있는 것인지 나눌 수 없는 것인지는 현재 중요한 논점은 아니다. 이성이 없는 부분 중 한 부분은 공통적이며 식물적인 것으로서, 영양과 성장의 원인이다. 이것은 본성상 인간적인 탁월성에는 아무런 몫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성이 없는 영혼의 부분으로서 또 하나의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성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자제력 있는 사람의 이 부분은 이성에 설복된다. 따라서 이성이 없는 부분은 두 부분을 나누어 가지는 셈이다. 한 부분은 식물적인 것으로서 이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한 부분은 욕망적인 것으로서 이성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수학적 것에 관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따르는 방식으로 그러한 이성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다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부분은 두 가지로서, 하나는 방금 이야기된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따르는 방식으로 이성을 가진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일차적 의미에서의 이성을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탁월성 또한 이러한 차이에 따라 지적 탁월성과 성격적 탁월성으로 나뉜다. 지혜나 이해력 등의 지적 탁월성은 일차적인 의미의 이성을 지닌 영혼의 부분에 관계하고, 절제나 자유인다움 등의 성격적 탁월성은 이성에 설복되는 영혼의 부분에 관계한다.

## 2권 <제 1장> 탁월성의 기원

탁월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지적 탁월성으로, 가르침의 결과로서 생겨나기에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는 성격적 탁월성으로 습관의 결과를 통해 생겨난다. 이는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아닌데, 만약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었다면 본성과 다르게 습관을 들이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며, 잘못된 습관의 결과물인 악덕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격적 탁월성은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습관을 통해 완성된다. 본성적으로 생기는 것의 경우 능력을 얻고 활동을 행하지만 탁월성의 획득 과정은 그 역이라는 점에서 성격적 탁월성이 습관의 결과로 얻어진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입법자들의 목표는 시민들에게 좋은 습관을 들여 좋은 시민을 만드는 것이다. 입법자의 역량은 이의 실행여부에 따라 갈리며, 여기서 좋은 정치체제와 나쁜 정치체제가 구별된다.

한편 탁월성이 생겨나는 기원들이나 원인들은(습관) 그 탁월성을 파괴하는 기원·원인들이기도 하다. 예컨대 악기연주라는 동일한 행위에 있어서 누구는 좋은 연주자가 되고 누구는 나쁜 연주자가 된다. 용기나 기술 등이 아닌 욕망, 분노 등의 개념들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욕망과 관련해서 누군가는 절제 있는 사람이 되는 반면 누군가는 무절제한 사람이, 분노와 관련해서 누군가는 온화한 사람이 되는 반면, 누군가는 성마른 사람이 된다. 이를 정리하면 품성상태들은 그것과 유사한 활동들(습관)로부터 생긴다. 어린 시절부터의 습관 차이가 품성상태들의 차이로 귀결되는 만큼, 습관은 실상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2장> 성격과 습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논의는 이론이 아닌, 행위를 위한 것이다. 전술했듯, 우리는 탁월성을 정의하려는 것이 아닌, 좋은 사람 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려 하고 이 과정 속에서 탁월성을 탐구한다. 행위들은 품성상태가 특정한 성질의 품성상태가 되는 데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이때의 행위는 올바른 이성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행위들과 관련된 내용은 앞서 합의한 것과 같이 개략적인 것이다. 1권 3장에서 살펴봤듯 개별적인 내용은 더더욱 그러한데, 이는 그 가변적인 특성에서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성격적 탁월성, 중용등)은 모자람이나 지나침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게끔 되어 있다. 절제와 용기, 탁월성 등을 그 예시로 볼 수 있는데, 중용의 측면에서 모자람이나 지나침 모두 해가 된다. 예컨대 용기의 경우 부족하면 비겁, 지나치면 무모가 된다. 두 번째로 탁월성의 생성 및 성장원인은 탁월성을 파괴 및 해치는 원인과 같고, 이는 동시에 탁월성의 활동의 기원, 원인이기도 한데 이것이 바로 습관이다. 그렇기에 좋은 습관, 탁월성 있는 활동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탁월성 있는 사람이 되면 탁월성 있는 활동을 더 잘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제 3장> 성격적 탁월성은 즐거움과 고통에 관련한다.

행위에 수반되는 즐거움과 고통은 그 사람의 품성상태의 표시로 볼 수 있다. 좋은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지, 고통을 느끼는지에 따라 품성상태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격적 탁월성 역시 즐거움과 고통에 관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첫째, 대다수가 악행을 즐거움으로 인해, 고귀한 것을 고통으로 인해 멀리하기 때문이다. 탁월성이 행위와 감정과

관계하는 것을 고려할 때, 행위에도 즐거움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살펴보면 탁월성은 즐거움과 고통과 관계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별이 즐거움과 고통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다. 별이란 일종의 치료인데, 치료는 본성상 반대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품성상태는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마땅함으로부터 벗어나 망가지게 된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들은 탁월성을 일종의 무감정 상태, 평형상태로도 규정한다. 스토아학파의 아파테이아가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적으로 규정하기만 할 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등 다른 상태에 대해 얘기하지 않기에 문제를 가진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무감정상태를 추구하는것이나 즐거움이나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언제 어떻게 즐거움과 고통을 다뤄야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탁월성은 즐거움과 고통에 관계해서 최선의 것들을 행하는 품성상태인 반면, 악덕은 그 반대의 상태로 가정된다.

탁월성이 즐거움, 고통에 관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해보더라도 분명하다. 우리가 선택하여 취하는 것은 고귀한 것, 유익한 것, 즐거운 것인 반면, 우리가 회피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 해가 되는 것, 고통스러운 것이다. 탁월성을 가진 사람은 이들 모두와 관련해서 올바른 것인 반면, 나쁜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 중 쾌고가 포함된 것이 중요한데, 특히 즐거움을 살펴보면 고귀한 것과 유익한 것도 결국 즐거운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즐거움은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해온 감정인만큼 떨쳐내기 어렵고, 그런 만큼 우리의 행위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제대로 즐거워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한편 그런 만큼 즐거움을 이겨내는 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을 잘 해내는 것이 좋은만큼 탁월성 역시 어렵고 이점에서도 탁월성과 즐거움이 연결되는 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제 4장> 품성상태와 행위

그런데 행위를 함으로서 탁월성을 갖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덕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음악적인 일을 하면 우리는 그를 이미 음악가로 본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기예의 경우에서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우연히 2)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문법에 맞는, 음악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에 맞는 어떤 것을 만들어 내되(결과물) 문법적으로(과정)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문법가가 된다. 이때 문법적으로(과정)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지식에 따라 해내는 것이다. 이때의 지식도 일종의 품성상태이다.

또 기예의 경우와 탁월성의 경우는 차이를 가진다. 기예에 의해 생겨난 것(결과물)은 그것들 안에 잘됨을 가지고 있어 그것들이 어떤 성질을 갖추고 생겨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예컨대 운으로 명곡을 만들어도 충분할 수 있음) 탁월성은 결과물이 성질을 가지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행위자가 덕을 가져야 한다. 즉 탁월성 있는 행위의 조건은 첫 번째로 행위자가 아는 것, 두 번째로 합리적 선택에 의거해서 행위하되 그 행위 자체 때문에 선택하는 것, 세 번째로 확고하고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행위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은 기예에서 고려되지 않는 반면, 탁월성에 있어서는 이 두조건이 첫 번째 조건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그 차이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조건은 정의로운 일들과 절제 있는 일들을 자주 행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정의로운 일은 정의로운 사람이 했을 법한 그런 종류의 행위이며,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정의로운 방식으로 행해야 진정 정의로운 일이고 이를 행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즉 덕을 가진 사람은 행하는 것으로부터 그 덕을 가진 사람이 된다.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셈이다. 많은 사람들은 행하지 않고 말만 하면서 철학하고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의사의 말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

### <제 5장> 탁월성의 유 : 품성상태

그렇다면 탁월성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영혼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3가지 있음을 고려할 때 이중 한가지일 것이다. 3가지는 각각 감정, 능력, 품성상태로서 감정은 욕망, 분노, 두려움 등 일반적으로 즐거움이나 고통이 동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능력은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품성상태는 감정들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탁월성, 악덕 모두 우선 감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맥락으로 능력 역시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감정을 겪을 수 있는 능력으로 칭찬 혹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탁월성은 자연스레 품성상태가 될 것이다.

### <제 6장> 탁월성의 종차: 중용

탁월성은 그것과 관련된 것을 좋은 상태에 있게 하고, 그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게 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탁월성은 좋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의 기능을 잘 수행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우선 모든 것은 더 많은 양이나 더 적은 양을 취할 수도 있고 동등한 양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상 자체에 관한 것이거나 우리와의 관계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동등함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이다. 대상 자체에 관한 중간은 산술적인 중간이며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한 것인 반면, 우리와의 관계에 따른 중간은 너무 모자라지도, 너무 지나치지도 않은 것으로서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것이다. 그렇기에 모든 전문가는 훈련 담당자가 사람에 따라 다른 양의 음식을 권하듯이 우리와의 관계에 따른 중단을 택한다. 이런 방식에 따라 탁월성은 중단을 겨냥하며, 이때의 탁월성은 감정들과 행위에 관련하기에 성격적 탁월성이다.

그렇기에 감정과 행위에 있어서 모자람과 지나침은 잘못을 범하게 되며 비난의 대상을 받지만, 중간적인 것은 칭찬을 받는 것이다. 또한 잘못은 여러 방식으로 범해지지만 옳은 것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가능하다.(예: 과녁) 정리하면 탁월성은 합리적 선택과 결부된 품성상태로서, 우리와의 관계에 따르는 중용에 의존한다. 중용은 두 악덕(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의 것이며, 이것은 최선의 것과 잘해냄의 관점에서 보면 극단이다. 존재의 관점에서 중용은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에 놓여 있기에 중간이지만, 최선의 것과 잘해냄의 시점에서는 중용이 최선이자 잘해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행위와 감정에 중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절도, 살인과 같은 것들은 그 자체 때문에 나쁜 것이지, 모자람과 지나침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제 7장> 개별적인 탁월성들에 대하여

행위는 개별적인 것들에 관련하기 때문에 우리의 논의는 이러한 것들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개별적인 탁월성들에 대해 살펴보면 두려움 및 대담함에 관한 중용은 용기이다. '두려움 없음' 쪽으로 지나친 사람은 이름이 없지만 대담함 쪽으로 지나친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다. 반면 두려워함에서 지나치고 대담함에서는 모자란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다. 즐거움과 고통에 관한 중용은 절제, 지나침은 무절제이며, 모자란 사람은 많지 않아 이름이 없으나 '목적 같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돈을 주고받는 일에 관한 중용은 '자유인다움'으로 지나침은 낭비이며, 모자람은 인색이다. 또한 돈과 관련해서는 다른 성향들도 있는데, 이 때의 중용은 '통이 큼'이다. 이것은 더 큰 돈에 관련하는 중용이다. 이 경우 지나침은 '품위 없음' 혹은 '속물 성향'이고, 모자람은 '좁스러움'이다. 명예와 불명예에 관한 중용은 '포부가 큰 것'으로, 지나침은 어떤 종류의 허영심이며, 모자람은 포부가 작은 것이다. 돈에 관해서와 마찬가지로, 명예에 있어서도 더 작은 명예에 관련하는 탁월성이 있다. 이것은 명예의 욕구함에 관련된 것이다. 이 욕구가 지나친 사람은 '명예욕을 가진 사람'이고 모자람은 사람은 '명예에 무관심한 사람'이며, 그 중간인 사람에게는 이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 끝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의 자리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분노에 관한 중용은 '온화'. 지나침은 '성마름'이며 모자람은 '화낼 줄 모름'이다. 그 밖에도 말과 행위를 서로 나누는 것에 관련하며 유사한 세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선 그것들의 참에 관한 중용은 '진실성'이고 지나침은 '허풍'이며 모자람은 '자기 비하'이다. 그 다음으로 놀이 안에 있는 즐거움에 관한 중용은 '재치'이고 지나침은 '(저급한)익살'이며 모자람은 '촌스러움'이다. 그리고 일상의 나머지 즐거움에 관한 중용은 '친애'이고 지나친 사람은 '속없이 친하려는 사람', '아침꾼'(이익을 이유로 그러할 때)이며, 모자란 사람은 일종의 싸움꾼으로서 '뿌루통한 사람'이다. 또한 감정에 관해서도 중용이 있다. 부끄러움 자체는 탁월성이 아니지만 '부끄러워 할 줄 아는 것'은 중간이며, 지나친 사람은 '숫기 없는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은 '파렴치한 사람'이다. '부당한 것에 대한 의분'은 시샘과 심술 사이의 중용으로, 이것은 이웃에게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생기는 고통과 즐거움에 관한 것이다. 시샘하는 사람은 이웃의 모든 일들에 (좋은 일들마저도) 지나치게 고통스러워하며, 심술궂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는 것에 한참 모자라서 (나쁜 일에) 기뻐하기까지 하는 사람이다.

## 3권 <제 1장> 자발성과 비자발성

탁월성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하는데, 감정과 행위는 자발적으로 일어나거나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므로, 탁월성을 탐구하는 사람은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것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비자발적인 것은 강제적인 것, 무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 강제적이라는 것은 그것의 단초가 행위자의 바깥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두려움이나 고귀함 등 때문에 행해지는 것들이 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논란이 있지만, 자발적인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 행위를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단초는 자신 안에 있기 때문. 그렇기에 그런 종류의 행위를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아무도 그런 행위를 그 자체로 선택하지는 않으므로 그 행위를 자체는 아마도 비자발적인 것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행위들이 고귀한 것을 위해 고통이나 부끄러운 것을 견디는 것이라면 칭찬을 받게 되지만, 전혀 고귀하지 않은 것을 위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은 비난을

받는다. 그런데 또 그 누구도 견딜 수 없을 그런 것들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경우라면, 칭찬은 받지 못하겠지만 용서를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강제되었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다. 그렇지만 매번 어떤 것을 견뎌 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나은지 분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만약 즐거운 것들과 고귀한 것들이 강제적인 것이라면, 모두가 강제적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즐겁고 고귀한 것들을 위해서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고귀한 것을 위한 행위의 단초는 자신으로 삼으면서, 즐거운 것을 위한 부끄러운 행위의 단초를 즐거움으로 삼는 것도 우스운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강제적인 것이란 그 단초가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면서, 강제를 당한 사람이 그 단초에 아무 관여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지로 말미암은 것은 '내켜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고통을 동반하고 후회를 일으키는 '마지못해 비자발적으로 한 것', 후회는 하지 않는 '내켜서 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무지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과 '모르면서 행하는 것'은 구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것과 피해야만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며, 이러한 '모름'은 못됨의 원인으로서 합리적 선택 안에 있는 무지로 보인다. 이로 인한 행위는 비자발적인 것이 아니며, 비난을 받게 된다. 반면에 개별적인 것들에 대한 무지, 즉 행위가 성립하는 곳과 행위에 관계하는 것들에 대한 무지가 비자발성의 원인이며, 바로 이 경우에 연민과 용서가 허용된다.

이러한 개별적인 것들에 대한 무지는 '누가', '무엇을', '무엇과 관련해서', '무엇 안에서 행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등을 모르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이걸 전부 모를 수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 행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일은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개별적인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몰랐던 사람은 비자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란, 행위의 대상과 행위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지에 따라 비자발적인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행위에서 고통과 후회를 느끼게 될 것이다.

비자발적인 것이 강제적인 것이거나 무지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자발적인 것은 그 단초가 행위자 안에 있으며 이 때 행위자는 행위를 이루는 개별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 경우일 것이다. 한편 분노나 욕망으로 말미암은 것도 비자발적인 것은 아니다. ①만약 그것들로 인한 것이 비자발적인 것이라면, 다른 동물들과 아이들마저도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②또한 분노나 욕망으로 말미암은 행위에도 고귀한 행위와 부끄러운 행위가 있을 텐데, 부끄러운 행위만을 가지고서 비자발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③게다가 우리가 마땅히 욕구해야 하는 것을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④그리고 비자발적인 것은 고통스러운 것인데, 욕망에 따르는 것은 즐거운 것으로 보인다. ⑤또 이성적 계산에 따른 잘못과 비이성적 감정에 따른 잘못 모두 비자발적이고 회피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비이성적 감정은 이성적 계산만큼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을 비자발적인 것으로 놓은 것은 이상한 일이다.

## <제 2장>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은 탁월성에 가장 고유한 것으로 보이며, 행위들보다 성격을 더 잘 분간해 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리적 선택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자발적인 것이 모두 합리적 선택인 것은 아님. 예컨대 아이들, 동물들의 자발적인 것, 혹은 갑작스러운 일을 조우했을 때의 자발적인 것은 합리적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합리적 선택은 욕망도, 분노도, 바람도, 의견도 아니다. 한편, 합리적 선택은 이성이 없는 것들과 공유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욕망과 분노는 그러한 것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욕망과 분노가 아니다. 자제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욕망에 따라 행하느냐, 합리적 선택에 따라 행하느냐에 달려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욕망은 즐거운 것과 고통스러운 것에 관계하지만, 합리적 선택은 그 어떤 것에도 관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노로 말미암은 행위들은 가장 합리적 선택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더더욱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

또한 합리적 선택은 자기 자신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것들에 관련하지만, 바람은 불가능한 것들에까지 관련하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은 바람이 아니다. 바람은 목적 자체에 관계하지만, 합리적 선택은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들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합리적 선택은 의견도 아니다. 의견은 우리들 자신에 달려 있는 것뿐 것 아니라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견은 참과 거짓에 의해 나뉘는 반면에 합리적 선택은 좋음과 나쁨에 의해 나뉘며, 우리가 어떤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의견을 가진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합리적 선택은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거나 회피할지 고려하지만 의견은 그렇지 않고, 합리적 선택은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기에 칭찬받지만 의견은 그렇지 않으며, 합리적 선택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에 관여하지만 의견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 관여한다. 게다가 최선의 합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최선의 의견을 가지는 사람과 항상 같은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합리적 선택은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들 중 어떤 것도 아니며, 이성과 사유를 동반하기 때문에 '미리 숙고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 <제 3장> 숙고

지각 있는 사람이 숙고할 수 있다. 하지만 우주나 기하학적 진리 등과 같은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숙고하지 않으며 하지와 동지, 별자리의 출현 등과 같이 언제나 같은 식으로 운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숙고하지 않는다. 또한 가뭄, 강우등과 같이 때에 따라 다르게 일어나는 것들에 관해서도 숙고하지 않으며 우연한 것에 관해서도 숙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것에 대해 숙고를 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적인 것들 중에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달린 것,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의해 성취 가능한 것에 관해서 숙고한다. 다만 (학문들 중에서)정확하고 자족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숙고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않는 것들을 숙고한다. 정확성에 있어 덜 발달된 것이 더 숙고되고, 학문보다 기예가 더 숙고되는 것이 그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달려 있지만 결과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 숙고하고, 그렇기에 특히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혼자서만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숙고할 사람을 부르며, 또한 우리는 목적들이 아니라 목적들에 이바지하는 것들에 관해 숙고한다. 의사가 병을 치료해야 할지에 대해 숙고하는 것이 아니듯이 사람들은 목적을 먼저 설정한 다음 그 목적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것들을 통해 이룰지 숙고하는 것이다. 이렇듯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탐구하는 것은 발견에 있어서는 맨 마지막인, 최초의 원인에까지 이를 것이다. 이는 기하학적인 분석 방법과 같은 방식이다. 이에 따라 그 목적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 우리는 행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인간은 행위의 원리(단초)이다.

숙고의 대상과 합리적 선택의 대상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동일하다. 숙고를 통해 판단된 것이 합리적 선택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들에 대한 숙고와 욕구의 대상이므로, 합리적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것들에 대한 숙고적 욕구이다.

### <제 4장> 바람

이전에 논의했듯이 바람은 목적에 관한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이 (진정한)좋음에 관계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외견상의 좋음에 관계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람의 대상은 좋은 것이어야 하기에 올바르게 않게 선택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고, 따라서 올바르게 않게 선택할 경우 그 때 바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바람의 대상이 외견상의 좋음인 경우, 본성적인 바람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고, 각자에게 좋게 보이는 것만이 존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진리의 측면에서 바람의 대상은 좋음이지만, 개별적인 측면에서 바람의 대상은 각자에게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신실한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좋은 것이 좋게 여겨져 바람의 대상이 되지만, 나쁜 사람에게는 우연히 걸리는 좋음이 바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각각의 것들을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올바르게 판단하며, 품성상태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갖는 즐거움과 고귀함이 척도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진실되게 판단하지 못하며, 즐거움이 불러일으키는 기만 때문에 즐거움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 선택하고 고통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 <제 5장> 책임의 문제

따라서 바람의 대상은 목적에 관계하는 반면에, 숙고와 합리적 선택의 대상은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이것들에 관계하는 행위들은 합리적 선택에 따른 것이며 자발적인 것이다. 탁월성은 바로 이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에 관계한다. 그러므로 탁월성도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탁월성의 반대인 악덕도 우리에게 달려 있다. 즉,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듯 행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우리가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귀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듯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에게 달려 있을 것이며 이 역도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나 비천한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악함은 자발적인 것이 된다.

이러한 원리는 입법적 측면에서도 입증된다. 입법자들은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강제로 혹은 무지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 벌을 주고, 고귀한 일을 한 사람들을 명예로써 기리는데, 이것은 신체의 자연적 본성에 따르는 현상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는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무지에 있어서도 행위자가 그 무지의 원인이라면 처벌을 받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주의로 말미암은 잘못도 처벌을 받는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며, 애초에 부주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품성상태를 갖게 된 것은 평소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지 않은 행위를 하면서 좋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렇기에 부정의한 행위를 하면 부정의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발적으로 부정의한 사람인 것이며, 또 정의롭게 되기를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정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듯 나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은 더 이상 없다. 이러한 것은 영혼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신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본래 불품없는 사람은 비난 받지 않지만, 몸을 관리하지 않아서 불품없어진 사람은 비난을 받는다. 그래서 신체의 나쁨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달린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 결국 모든 것들에 있어서 비난을 받는 악덕들이란 우리에게 달린 것들이다.

그런데 이처럼 각자가 자신의 품성상태의 원인이라면, 그가 추구하는 목적도 그에게 드러나는 외견상의 좋음의 원인일 것이다. 즉,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왔느냐에 따라 자신이 바라는 목적의 인상도 달라진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각자 추구하는 목적은 생득적으로 그러한 것일 터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위의 원인은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악행도 결국 자발적인 것이 아니게 되며, 참으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정해져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능력을 기를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탁월성과 악덕 모두 자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와 품성상태는 둘 다 자발적이긴 하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그러하지는 않는다.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 가능하지만, 품성상태는 처음에는 통제가 가능하더라도 그 진행 과정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제 6장> 용기

용기는 두려움과 대담함에 관련한 중용이다. 이때 두려움의 대상은 나쁜 것들이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중 일부(불명예 등)와는 관계하지 않는다. 그런데 관계하는 두려움(가난, 질병등)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용감한 사람도 아니고 때때로 두려워한다고 해서(자식이나 아내에 대한 모욕 등) 용감한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며 가장 두려운 것인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용감한 것도 아니다. 죽음과 관련해서 용감하다면 이는 전사 등 고귀한 죽음과 관련된 것이다.

## <제 7장> 용기와 비겁, 무모

두려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인간을 넘어선 것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용감한 사람은 인간의 한계 내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두려워할 수도 있다. 다만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방식으로, 이성이 명하는 대로 버틸 것이다. 두려워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용감한 사람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과 마땅히 그래야 할 때 견뎌내고 두려워 하며 용기를 가지는 사람으로, 그렇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다. 모든 활동의 목적은 품성 상태를 따르고 용기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근데 용기는 고귀한 것이고, 각각의 것은 목적에 의해 규정되기에 목적도 고귀한 것이다. 즉 용기 있는 사람은 고귀한 것을 위해 견뎌내며 용기를 따른다.

용기에 있어 극단을 살펴보면 두려움이 없는 쪽에서 지나친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사람으로 그 수가 적기에 이름이 없다. 한편 대담함에 있어 지나친 사람은 무모한

사람, 허풍을 떠는 사람으로 불리며, 이들은 용감한 사람과 유사한 태도를 가지는 듯 보이지만 모방에 불과하기에 결국 구분되며, 무모한 겁쟁이에 불과하다. 한편 두려움에 있어 지나친 사람은 비겁한 사람으로 이들은 고통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의기소침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리하면 무모한 사람, 비겁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은 모두 동일한 것과 관련되지만 하나는 지나치고 하나는 모자라고 하나만 중간의 방식으로, 마땅히 그래야 할 때 관계를 맺는다. 용기 있는 사람의 행위의 목적은 언제나 고귀한 것으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인한 행위는 용기 있는 행위가 아니다.

## <제 8장> 용기라고 불리는 것들

다른 것들 또한 5가지 방식에 따라 용기라고 불린다.

### 1. 시민적 용기-

수치스러운 것(비난의 대상)을 피하고 명예(고귀한 것)를 추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용기와 유사하다. 통치자들에 의해 강요된 것 역시 이 용기에 들어가지만 수치심이 아닌 공포 때문에 행위하는 만큼 열등하다.

### 2. 각각의 것들에 대한 경험

이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용기를 앎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전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은데, 경험을 통한 앎으로 이들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 가능하다.

### 3. 분노(thymos 걱정)

분노로 말미암아 행하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 역시 분노의 면모를 가지고 있기에 역시 용감한 사람으로 보인다. 하지만 용감한 사람은 고귀한 것 때문에 행위하며 분노는 그 옆에서 거든다. 짐승의 경우 고통 때문에 행위하는데, 목적이 이와 관련된 것이고 분노가 거들면 이는 용기가 아니다. 분노로 인한 용기는 가장 본성적인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합리적 선택과 올바른 목적이 더해졌을 때야 비로소 참된 용기가 된다.

### 4. 낙관적인 사람들

낙관적인 사람들은 대담한 사람이지만 단순히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으로 두려움을 잊은 것이기에 용감한 것이 아니다. 만약 낙관한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이들은 도망갈 것이다. 이들의 경우와 달리 예상치 못한 두려운 것들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더 용감한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지만 예상치 못하는 것은 오로지 품성 상태에 따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 5. 무지

무지로 말미암아 행하는 사람 역시 용감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낙관적인 사람과 유사할지언정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들보다 하위호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9장> 용기와 고통

용기는 대담함보다 두려운 것에 더 많이 관계한다. 고통스러운 것을 견뎌낼 때 그는 용감한 사람이며, 또 고통을 견디는 것은 즐거운 것을 삼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기에 용기는 칭찬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용기의 목적은 즐거운 것으로 보인다. 주변 상황에 고통이 너무 많아서 즐거움이 없어 보일 뿐이다. 용기있는 자에게 죽음과 부상은 똑같이 고통스럽다. 덕이 많고 생이 행복할수록 더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전쟁에서 그는 고귀한 것을 택할 것이기에 용기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탁월성의 발휘가 즐겁다는 것은 모든 탁월성에 타당하지는 않다.

### <제 10장> 절제

용기와 절제는 비이성적인 부분들의 탁월성이다. 이중 절제는 고통보다는 즐거움과 관련된 중용이다. 즐거움은 크게 영혼에 관련한 즐거움과 육체에 관련한 즐거움으로 나뉘며, 영혼에 관련한 즐거움의 경우 명예, 배움에 대한 사랑 등이 있을 것이다. 이중 절제의 대상이 되는 즐거움은 영혼에 관련한 즐거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절제 있는 사람, 무절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절제는 신체적 즐거움과 관련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신체적 즐거움과 관련하는 것도 아니고 꼭 신체적 즐거움에 관련하는 것도 아니다. 색이나 음악, 냄새, 시각, 청각, 후각을 즐기는 사람에게 무절제하다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후각에 있어서 음식, 향수 냄새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무절제이다. 즉 냄새에 있어 간접적인 욕구는 무절제에 해당한다. 인간 이외의 동물은 이 간접적인 욕구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거나 추구하지 않는다. 토끼는 냄새를 맡는 것에 욕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에 욕구를 가진다. 이러한 동물적인 즐거움에 절제와 무절제가 관련한다. 이같은 즐거움은 노예적이며 짐승적이다. 다만 이런 쾌락(즐거움)에 있어 미각은 조금만 사용하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무절제한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것은 향락-촉각을 통해 일어난다. 먹는 것, 성애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일 것이다. 촉각으로 인한 즐거움 중 자유인다운 것들은 제외되지만 신체 일부만 활용하는 나머지는 동물적인 것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

### <제 11장> 절제와 무절제

욕망 중 어떤 것은 공통적이다. 식욕, 성욕이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어떤 것은 사람마다 고유하며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다. 식욕과 성욕의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적 욕망의 경우 잘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하더라도 지나친 쪽만 가능하다. 이와 달리 고유한 방식의 즐거움은 여러 방식으로 많은 잘못을 범한다. 잘못은 대상과 정도에 있어 마땅함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즐거움과 관련한 지나침은 무절제이며 비난의 대상이 된다. 반면 고통과 관련해선 용기와 달리 고통을 참는다고 절제 혹은 무절제한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무절제한 사람은 즐거움의 부재로 고통을 느끼기에 무절제한 것으로, 절제있는 사람은 여기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즐거움과 관련해서 모자란 사람, 기뻐해야 할 것보다 적게 기뻐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종류의 무감각은 비인간적인 것으로, 아주 드물기에 별다른 이름이 없다. 절제있는 사람은 올바른 이성이 규정하는대로 그것들을 마땅한 방식과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 <제 12장> 무절제와 자발성

무절제가 비겁보다 더 자발적이다. 무절제는 즐거움으로 인해 생기고 선택의 대상이 된다. 한편 비겁은 고통으로 인해 생기며 회피의 대상이다. 고통은 가진 사람의 상태를 파괴하는 반면 즐거움은 그렇지 않는다. 무절제는 더 자발적이고 그렇기에 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그런데 비겁은 비겁한 행위와 다른 방식으로 자발적이다. 비겁함 자체는 고통이 없지만 행위 개별적으로는 고통 등으로 인해 강제된 행위로 보이기까지 할 정도이다. 무절제는 반대로 행위가 자발적이고 상태는 덜 자발적이다. 우리는 무절제를 아이들의 잘못에도 사용하는데, 전자로부터 후자가 유래되었을 것이다. 욕망은 이성애 순종하도록 통제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훈육이 필요하다. 절제 있는 사람의 욕망적 부분은 이성과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 4권 <제 1장> 자유인다움

'자유인다움'은 재물을 주고받는 일에 관련한, 특히 주는 일에 관련한 중용이다. 재물을 주는 일에 관해서 지나친 것은 '낭비'이며, 모자란 것은 '인색'. 그런데 이 때의 낭비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듯이 단순히 무절제하게 돈을 쓰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씬씀이로 인해서 스스로 재산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씬씀이가 있는 것들은 잘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는데, 가장 잘 쓰는 사람은 이에 관련된 탁월성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씬씀이가 있는 재물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은 재물에 관련된 탁월성을 가진 사람이며, 이 탁월성이 바로 자유인다움이다. 자유인다움이 받는 일보다 주는 일에 더 어울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재물의 사용이라는 것은 취하거나 지키는 일(소유)보다 쓰거나 주는 일이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잘 받아들이는 것보다 잘 행하는 것이 더 탁월한 것이며,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 것보다 고귀한 일을 행하는 것이 더 탁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동적, 소극적인 행위보다 능동적, 적극적 행위가 더욱 좋다. 세 번째로 받지 않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와 칭찬은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다. 또한 자유인다운 사람이 탁월한 사람들 중에 가장 사랑 받는 이유는 주는 사람으로서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탁월성에 따르는 행위들은 고귀하며 고귀함을 위해 행해지므로, 자유인다운 사람도 고귀한 것을 위해 올바르게 마땅하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이 행위를 고통 없이 즐겁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주거나 고귀함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주는 사람, 혹은 고통을 느끼면서 주는 사람은 자유인다운 사람이 아니다. 자유인다운 사람은 재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받는 일에 있어서도 마땅하지 않은 식으로는 받지 않을 것이며 재물을 청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물론 마땅한 방식으로는 받을 것이지만, 그 받는 행위가 고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주는 행위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에게 주는 것을 꺼리지 않으므로 자유인다운 사람에게는 아주 적은 것만 남게 된다. 그런데 자유인답다는 것은 주는 양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품성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그 사람의 재산 수준에 맞게 주는 것이다. 따라서 더 적은 양을 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재산이 그만큼 적었다면 자유인답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직접 돈을 번 사람보다 물려받은 사람이 더 자유인다워 보임. 궁핍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직접 돈을 번 사람처럼 돈에 대한 애착이 깊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인다운 사람들은 잘 쓰고 또 가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유해지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는

마땅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지 않으며, 이것은 자신의 재산 수준에 따르는 것이다. 여기서 지나치면 낭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런 이유로 참주들은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써도 자신의 재산이 남지 않게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낭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막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 수준을 넘을 정도로 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유인다운 사람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주는 일에서건 받는 일에서건 마땅한 방식으로 재물을 이용할 것이다. 또한 만약 그에게 마땅함과 어긋나게 지출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는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괴로워할 것이다. 그렇게 마땅한 방식으로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탁월성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재물 문제에 관해서는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며, 낭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땅한 방식으로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

낭비는 주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 있어서 지나치며 받는 것에 있어서 모자라는 반면, 인색은 주는 것에 있어서 모자라며 받는 것에 있어서 지나치되 다만 작은 일에 있어서만 그러하다. 그래도 낭비하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보다는 나아 보인다. 어쨌든 그들은 지나칠 뿐이지 자유인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낭비하는 사람이 방식을 좀 더 마땅하게 바꾼다면 자유인다운 사람이 될 것이며, 그렇기에 낭비하는 사람은 성격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비열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낭비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라도 주는데, 인색한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낭비하는 사람들은 받지 말아야 할 때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인색한 사람들이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무리하게 써서 항상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쓰기 위해서, 고귀함을 위해서 않고 아무 때나 거리낌 없이 받는다. 그래서 이들은 무절제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지도를 받게 된다면 자유인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인색함은 고칠 수도 없다. 인색은 낭비보다 더 인간 본성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색함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주는 데 있어서 모자라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으려는 사람들은 구두쇠, 짚돌이 등으로 불리며, 체면을 위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주지도 않으면서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오는 공포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이다. 한편, 받는 데 있어서 지나친 사람들은 뚜쟁이, 고리대금업자 등으로, 이들은 마땅히 받지 말아야 할 곳에서 마땅히 받지 말아야 할 양만큼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작은 이익을 위한 부끄러운 취득 욕구로 인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큰 일에 있어서도 그러는 사람들은 자유인답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부정의한 사람이다.

## <제 2장> 통이 큰 것

이것 역시 재물에 관련된 것이지만, 자유인다운과는 다르게 오직 큰 규모의 지출에만 관련한다. 즉 통이 크다는 것은 규모가 큰 것에 있어서의 알맞은 지출이다. 다만 이 규모는 행위자와 상황, 목적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며, 통이 큰 사람은 자유인다운 사람이지만 자유인다운 사람이 반드시 통이 큰 사람은 아니다. 이 품성상태에 있어서 모자람은 '통이 작은 것'이고, 지나침은 '속물 성향'이나 '품위 없음' 등이다. 이때의 지나침은 규모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하지 않게 과시하는 방식으로 쓴다는 의미이다. 통이 큰 사람은 전문가를 닮았다. 알맞은 것을 식별하고 큰 비용을 적절히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지출의 성과 또한 크고 알맞을 것이다. 또한 통이 큰 사람은 큰 비용을 고귀한 것을 위해서 즐겁게, 아낌없이 쓸 것이다. 이런 면에서 통이 큰 사람은 자유인다운 사람이지만, 성과의 고귀함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 즉 통이 크다는 것은

성과의 탁월성이며, 그 규모에 달려 있다.

이 같이 고귀하고 탁월한 성과는 우리가 '명예로운 것'이라고 부르는 지출들에 속한다. 신적인 것, 공동의 것에 관한 것들이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이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규모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출은 성과에 알맞아야 하며 행위자에게도 알맞아야 한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통이 큰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재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이 크다는 것은 그 재산을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거나, 물려받았거나, 좋은 혈통인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이다. 통이 큰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위해 지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의 일을 위해 지출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과에 있어서의 대단함과 지출에 있어서의 대단함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출의 가치에 걸맞게 성과를 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통이 큰 사람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쓰는 속물적인 사람은 마땅하지 않게 과시한다. 또 이것은 고귀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를 뽐내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통이 작은 사람은 무슨 일이나 모자라게 쓰며, 지출의 가치보다 적은 성과를 내어 고귀함을 잃는다. 또 항상 망설이면서, 어떻게든 계산하여 적게 쓰려고 한다. 다만 이 품성상태들은 악덕이기는 하지만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비난을 받지 않는다.

### <제 3장> 포부가 큰 것

포부가 큰 것은 이름처럼 큰 것들에 관계한다. 포부가 큰 사람은 자신이 큰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분수에 맞는 것인데, 작은 일에 적합한 사람이 자신을 작은 일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크기가 작으므로 포부가 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생각만으로 자신이 큰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허명을 좇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다 허명을 좇는 사람인 것은 아니다. 반면에 자신의 능력에 비해(그 실제 능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건 간에) 더 작은 것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포부가 작은 사람'이다.

따라서 포부가 큰 사람은 그 크기에 있어서는 극단인데,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중간이다. 특히 그러한 사람은 가장 큰 일, 즉 외적인 좋음 가운데 가장 큰 것인 명예와 불명예에 관련해서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방식으로 관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들은 자신이 큰 명예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그러하다. 또한 그들은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더 큰 일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여러 면에서 뛰어난(여러 품성상태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 포부가 큰 사람인 것이며, 따라서 포부가 크다는 것은 탁월성들에 대한 일종의 면류관일 것이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명예와 불명예에 관심을 가지고, 명예를 받으면서 그 명예가 자신에게 적합하거나 조금 작다고 생각하며 적절히 즐거워할 것이다. 완전한 탁월성에 합당하는 명예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최대의 명예를 받을 것이지만, 아무에게서나 명예를 받지 않을 것이고 작은 일에 대해 주어지는 명예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가치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부가 큰 사람들은 최대의 명예도 가장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명예보다 작은 부나 권력, 행운과 불행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적절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포부가 큰 사람은 거만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긴 하지만 좋은 운은 포부가 큰 것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집안 등으로 인한 우월함이 더 명예를 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 큰 포부를 갖게 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큰 포부와 실제 가치가 일치하는 사람이

진정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실제 탁월성 없이 외적 좋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부가 큰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탁월성이 없어서 좋은 운들을 잘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만하고 불손한 사람이 된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포부가 큰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는 것일 뿐이다. 반면에 포부가 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것은 참된 판단과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그러는 것이다.

포부가 큰 사람은 오직 큰 것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임. 또 그는 능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베푸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선행을 받으면 부끄러워하며, 더 큰 선행으로 보답하려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베풀어 준 일은 기억하지만 자신들이 받은 것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또한 포부가 큰 사람은 남에게 요청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기꺼이 남들을 돕는다. 또 남들이 잘하는 것들이나 통념적으로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잘 지향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독보적인 큰 명예와 성취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 또한 포부가 큰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숨김없이 행동하며, 솔직히 말한다. 그리고 친구가 아닌 이들에게 아첨하며 의존하지 않고, 어떤 것도 대단하게 보이지 않으니 쉽게 경탄하지도 않으며, 나쁜 일들을 오래 기억하고 있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불가피한 일이나 작은 일에 불평하지 않으며, 매사에 여유로우므로 완만한 움직임과 깊이 있는 목소리, 안정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모자라는 사람은 포부가 작은 사람이고 지나친 사람은 허명을 좇는 사람이지만, 이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나쁜 짓을 하지는 않지만 잘못을 저지른다. 포부가 작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없애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른다는 잘못을 저지른다. 이들은 위축된 사람들이며,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실제로도 고귀함에서 멀어져 열등한 사람이 된다. 한편 허명을 좇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그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 버린다. 그들은 실제로 잘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다가 그 능력 부족이 탄로나고, 대신 외적 좋음으로 자신들을 꾸며 명예로워 보이게 만들곤 한다. 그러나 포부가 큰 것에 더 반대되는 것은 포부가 작은 것이다. 포부가 작은 것이 더 흔한 일이며, 비교적 더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 <제 4장> 작은 명예와 관련하는 탁월성

작은 명예와 관련하는 탁월성은 명예에 대한 일종의 작은 탁월성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 탁월성에 대한 이름은 따로 없기에 양 극단만이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 <제 5장> 온화

노여움과 관련한 중용에는 이름이 없고, 양 극단에도 이름이 없기에 온화라는 말로 그 중용을 가리킨다. 온화는 이 중 모자람에 좀 더 기울어져 있다. 마땅한 대상, 방식, 때에 화를 내는 사람은 칭찬을 받기에 온화가 칭찬을 받는 것인 한 이 사람이 온화한 사람일 것이다. 온화한 사람은 보복을 하기보다 용서하는 사람이고 동요가 없는 사람이지만 화낼 때 화내는 사람이다. 노여움에 있어 모자람 사람은 무엇이든 비난을 받는다. 다만 모자람의 분야는 여러개 존재할 수 있는데, 한사람이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모자람의 유형들로는 화낼 줄 모르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극도로 화를 잘 내는 사람, 공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

온화에 대해 대립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자람보다는 지나침이다. 현실적으로 지나침이 더 흔하고 인간 본성에 가까우며 까다로운 사람이 더 거북하기 때문이다. 온화를 포함해서 중용을

맞추는 것은 어렵기에 그 주변부에 머물러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 중간은 칭찬의 대상이며 지나침과 모자람은 정도에 따라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중간을 지향해야된다.

### <제 6장> 교제와 관련한 탁월성

속없이 친하려는 사람들과 뿌루통한 사람, 싸움꾼이라는 양 극단 사이에 있는 중용으로, 이름이 딱히 없지만 친애와 가장 닮았고 훌륭한 친구라고 부르고 싶은 품성상태를 따른다. 이 품성상태는 교제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 누구든 자신의 품성상태에 따라 동일하게 대하되 경우마다 형편에 의해 대우가 달라질 뿐이다. 다만 존경받는 사람과 보통 사람, 잘 아는 사람과 덜 잘 아는 사람에 구분은 존재한다. 이 탁월성 역시 온화와 마찬가지로 이름이 없기에 양극단이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만 보인다.

### <제 7장> 진실성

허풍선이와 자기비하의 중용으로, 이 역시 이름을 가지지 않는다. 허풍선은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척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지어 말하는 사람이며, 비하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거나 더 작게 지어 말하는 사람이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꾸밈없는 사람으로 불린다. 거짓은 열등한 반면 진실은 고귀하고 칭찬의 대상으로, 거짓의 대상 중에서도 허풍선이가 더 큰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한편 여기서의 진실된 사람은 정의 부정의, 혹은 합의된 일에 진실된 사람도 아닌, 삶에 있어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진실이 별다른 차이를 만들지 않더라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는 진실을 큰 쪽보다 작은쪽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허풍쟁이는 나쁜 사람보다는 허튼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어떤 목적(평판, 명예)을 위해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나마 좀 낫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돈으로 환원될 모든 것들을 위해 그런다면 그는 더 꼴사나운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평판을 위해 허풍을 떠는 사람은 칭찬받을만한 것들이나 행복하다고 칭송 받을 것들을 내세우지만, 이득을 위해 그러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게 잘 드러나지 않는 의술, 지혜 등을 내세운다. 한편,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허풍선이보다는 품성상 더 매력 있어 보인다. 이득이 아닌, 과시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보이는 것이 그 원인이다. 하지만 사소하고 뻔한것에서 그러는 사람은 시치미 떼는 사람이라 불리고 멸시의 대상이 된다. 반면 적절하게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매력 있어 보인다. 둘 중 진실된 사람에는 허풍선이가 대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 <제 8장> 재치

삶에는 휴식이 있고 휴식에는 놀이가 있기에 여기에도 중용이 있을 것이다.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지나친 사람은 익살꾼, 저급한 사람으로 오직 폭소에만 중점을 둔다. 반면 우스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사람은 촌스러운 사람, 경직된 사람이다. 적절하게 농담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재치 있는 사람으로, 웃을 일이 도처에 널렸기에 익살꾼도 재치 있는 사람으로 불리지만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해온 바를 살펴보면 명확할 것이다.

고상함은 중용에 속하는 것이다. 고상한 일이란 자유인과 훌륭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인데,



이들이 놀이 삼아 말하고 듣는 것에 적합한 것이 따로 있다. 노예와 자유인의 놀이에 차이가 있고, 교육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차이가 있는 것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이 반영된 것이 구희극과 신희극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농담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농담에는 저급한 내용도 섞이고 듣는 사람에 따라 즐거움에도 차이가 있는데, 농담 잘 하는 사람은 중용에 있는 사람이 할법한 농담을 하는 사람이다. 반면 익살꾼은 말하는 대상과 내용을 가리지 않고 촌스러운 사람은 만사에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다.

## <제 9장> 수치

수치는 탁월성보다 감정에 더 가깝다. 수치는 나쁜 평판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수치는 모든 연령층이 아닌 젊은이들에게 어울리는 것으로, 젊은이들은 감정에 따라 살기에 수치를 앎으로서 통제되어야 한다. 반면 나이든 사람들은 당연히 수치를 일으킬만한 일을 해서는 안되기에 수치를 가진다고 칭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끄러움은 나쁜 일로 인해 일어나는 한 훌륭한 사람이 가질 감정이 아니다. 부끄러운 것들 중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부끄러운 일에 부끄럽다고 느끼는 건 탁월성이 아니다. 수치를 느끼는 건 자발적인 일에 대해서인데, 훌륭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기에 부끄러워할 일에 부끄러워 하는 것을 탁월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치는 어떤 조건 아래에서는 훌륭한 것일 수 있다.

## 5권 <제 1장> 넓은 의미의 정의

앎이나 능력의 경우 하나의 능력이나 앎이 서로 반대되는 것과 관련하지만, 품성상태는 관계하지 않는다. 예컨대 건강의 품성상태를 갖춘 사람은 항상 건강한 행위만 한다. 한편, 상태는 서로 반대되는 것을 통해 알려지고 품성상태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기체에서 알려진다. 다른 한편, 한쪽이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경우 반대편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의와 부정의에도 이는 해당하는 듯 보이는데, 이들의 경우 각자 이야기되는 내용이 여러 가지지만 서로 가까워 여러개라는 것이 잘 지각되지 않는다. 그러니 부정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이야기되는지 파악해보자. 부정의한 사람은 법을 어기는 사람, 더 많이 가지려 하며 공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야기되는데, 여기서 이들의 반대인 법을 지키는 사람과 공정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명백할 것이다.

부정의한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하기에 좋은 것들 중에서도 행운과 불운에 관계하는 좋은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 이런 좋은 것들은 단적으로 좋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그렇기에 좋은 것이 생기기를 빌기보다는 단적으로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도 좋은 것이 되기를 빌고 선택해야한다. 부정의한 사람이라도 나쁜 것의 경우 더 적게 가지려고 하기에 항상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더 적은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지려는 것으로 보이기에 부정의한 사람은 일관되게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으며 대상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기에 그는 공정치 않다.

법에 따르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그런데 법은 모든 것에 공통되는 이익, 탁월성을 겨냥하여 선언되는 것이기에 정치적 공동체를 위한 행복을 만들고 이걸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

된다. 또 법은 절제, 용기 등 덕있는 사람이 합법한 일들을 요구한다. 올바로 제정된 법은 이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법은 열등한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정의는 그렇기에 완전한 탁월성이다. 단적으로 그러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한 탁월성이다. 그렇기에 정의는 종종 탁월성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여겨진다.

또 이런 이유로 "다스림이 그 인간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말이 좋아 보인다.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인데, 정의만이 타인과 관계하는 덕이기에 유일하게 타인에게 좋은 것으로 보이는 탁월성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신과 친구에게 못됨을 행하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며 반면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탁월성을 활용하는 일이 좋은 사람이다. 정의는 탁월성의 부분이 아닌 전체이며 마찬가지로 부정 역시 악덕의 부분이 아닌 전체이다. 탁월성과 정의에 대해 정리하면 그 둘은 같지만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타인과 관련하는 한 정의이며, 단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품성상태인 한 탁월성이다.

### <제 2장> 탁월성의 부분으로서의 정의

우리의 탐구대상은 탁월성의 부분으로서의 정의이다. "더 많이 가지려 할 때", 특정한 악덕에 따라 행하고 그로 인해 비난받는데, 이것이 부정의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부정의한 것(1장)이 있고 전체의 부분으로서 부정의 한 것이 있다. 예컨대 간통을 저지러 때 손실을 입더라도 욕망 충족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무절제한 사람이지만, 이익이 목적이었다면 더 많이 가지려는 것으로 보이기에 부정의한 사람으로 보인다. 즉 모든 나쁜 행위들은 항상 악덕으로 환원되는데(간통-무절제, 폭행-격노) 여기서 부당한 이익이 목적인 경우 그것은 부정의라는 악덕으로만 환원된다.

앞서 살펴봤듯 부분으로서의 부정의의 존재는 명확하다. 이는 전체로서의 정의와 공통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힘을 가지기에 같은 유에 속하지만, 부분으로서의 부정의가 명예, 돈, 안위 등과 관련하고 이익으로부터 나오는 즐거움 때문이라면, 전체로서의 부정의는 신실한 사람(덕 있는 사람)이 관련하는 모든 것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 유형의 정의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 우리는 이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탁월성에 따라 정리된 정의와 부정의는 타인에 대한 전체적인 탁월성의 활용 내지는 악덕의 활용인만큼 그 구분이 명확하기에 우리가 살펴볼건 부분적인 정의이다.

부분적인 정의의 한 종류는 분배에서 성립하는 정리-분배적 정의이다. 다른 한 종류는 상호 교섭에서 성립하는 시정적 정의로 이것 역시 자발적인 것, 비자발적인 것 두 부분으로 나뉜다. 자발적인 교섭의 예로는 거래, 보증, 임대 등이 있으며(상호 교섭의 단초가 자발적) 비자발적인 것은 은밀한 것과 강제적인 것으로 나뉘며 각각 절도, 위증, 간통 등과 폭행, 살인, 모욕등이 있다.

### <제 3장> 분배적 정의

부정의는 동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때의 동등하지 않음은 양적 개념에 한정된다. 동등하지 않음의 사이에는 어떤 중간이 존재하는데, 그 중간이 바로 동등함이며 정의이다. 그런데 중간은 최소 둘 이상에서 성립하므로(중간과 중간x) 정의로운 것은 그와 관계하는 당사자 둘과 그 안에서 성립하는 대상 둘까지 최소 4개 이상의 항에서 성립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동등함은 사물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동등함과 같기에 당사자가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사물을 받거나 동등하지 않은 당사자가 동등한 사물을 분배받을 경우 거기서 싸움과 불평이 생성된다.

가치(공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사람들마다 가치를 다르게 보는 것 역시 여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정의로운 것은 일종의 비례적인 것이다. 여기서 비례는 비율의 동등성(ex:  $a:b=c:d$ )이다. 이는 최소한 네 개의 항에서 성립하는데 연속 비례( $a:b:c$ )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정의로운 것 역시 최소 4개의 항에서 성립하며 그 비율은 서로 동일하다. 즉 사람의 비례가 분배에 있어서 사물의 비례에 동등하게 적용되면 정의로운 분배가 될 것이다.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니까 분배되는 사물의 양도 달라지겠지만, 비율상으로는 같을 것이다. 비례는 중간이고 정의로우니까 비례에 어긋나는 것은 부정의한 것이다. 이러한 비례가 기하학적 비례이다.

분배적 정의에서 성립하는 이 비례는 연속 비례는 아니다. 연속 비례가 되기 위해서는 중항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과 몫(사물)이 하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것은 비례적인 것이고 부정의한 것은 어긋나는 것이다. 부정의의 경우 이를 행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더 많이, 당하는 사람은 더 적게 가져가게 되어 비율이 망가진다. 나쁜 것의 경우는 적은 것이 더 좋은 것이기에 그 반대일 것이다.

### <제 4장> 시정적 정의

시정적 정의는 자발적, 비자발적 교섭 둘 다에서 발생한다. 분배적 정의는 공동의 것에 대한 분배와 관련하며 항상 비례를 따른다. 하지만 상호교섭에서의 정의는 동등함이고 이 경우 비례는 기하학적 비례가 아닌 산술적 비례이다. 훌륭한 사람이 간통하건 나쁜 사람이 간통하건 차이가 없으며, 그렇기에 한사람이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이 입었다면 그 사람이 아닌 피해만 주목하고 이를 동등하게 만들고자 한다. 당한 것을 측정하여 가해자에게는 이익, 피해자에게는 손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중간이 동등함이며 정의로운 것이다. 그렇기에 분쟁이 생기면 재판관은 중간을 회복하고자 한다.

### <제 5장> 교환적 정의

어떤 사람들은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되값음을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되값음은 분배적, 시정적 정의 모두에 들어맞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시정적 정의로 생각하지만 이 역시 참이 아니다. 시정적 정의에서 되값음은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르고 자발적 행위와 비자발적 행위에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내에서는 이런 종류의 정의로움(되값음) 사람을 연결시키지만 여기서의 되값음 역시 비례에 따른 것이지 동등성에 따른 것은 아니다. 폴리스는 비례적인 보상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주고받는다.

사람과 사물의 대각선적인 연결은 비례에 따른 교환을 만들어낸다. 사물의 가치는 비례적인데(분배적 정의의 개념, 기하학적 비례) 가치가 일치할 때 교환이 성립한다. 이는 기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교환되는 모든 것들은 서로 비교될 수 있어야하고 이를 위해 돈이 일종의 중간자로 도입되게 된다. 다양한 재화의 교환을 위해서는 일관되게 가치를 측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같은 방식으로 가치가 측정되고 이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수단이 바로 돈으로, 돈은 규약에 의한 일종의 대리물이다. 교환이 제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환 후가 아닌, 전에 가치가 측정되어야 하는데, 돈이 이 역할을 맡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필요에 의해 교환이 생겨나고 돈은 이 필요의 대리물 역할을 해준다. 또 돈은 미래를 위한 것으로, 일종의

보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한편 돈은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가치의 변동이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이다. 돈은 일종의 척도로서 돈이 있기에 측정 가능성->동등성->교환->공동체가 가능해진다. 실제 그토록 큰 차이를 가진 것을 같은 척도로 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는 가능하다. 따라서 약정에 근거한 돈이라는 존재 탄생하게 되었다.

### <제 6장> 정치적 정의

정의로운 것에는 '정치적 정의'도 있다. 정치적 정의는 자족적이고자 하며 삶을 함께 나누고, 자유로우며 서로 동등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정치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어떤 다른 종류의 유사한 정의로움만이 있다. 정치적 정의가 성립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법이 다스리는 것이고, 그 법은 부정의가 있는 곳에 있다. 또한 부정의가 있는 곳에 부정의를 행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부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단적으로 좋은 것들을 자신에게 너무 많이 배분하고 단적으로 나쁜 것들을 자신에게 너무 적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이 아니라 이성이 다스리게끔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정의로움의 수호자이며 동등함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더 많이 갖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존경과 영예라는 보수가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주가 된다.

주인적 정의와 가부장적 정의는 정치적 정의가 아니고, 단지 유사할 뿐이다. 자신의 소유물(노예)와 (독립하지 않은)자식은 자신의 부분과 다름이 없는데, 자기 자신의 것에 대해서는 단적인 부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부정의가 없으므로 법을 따르지도 않고, 동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정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과 노예와의 관계보다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정의로움이 더 잘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정치적 정의와는 다른 것이다.

### <제 7장> 자연적 정의와 법적 정의

자연적 정의는 사람들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동일한 힘을 가지는 반면, 법적 정의(관습적 정의)는 일단 제정된 후에는 차이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제정된 내용은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모든 정의가 법적 정의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시마다 정의로운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 목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그러한 것이다. 인간에게는 자연적인 것도 변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 변화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자연적인 것들과 자연적이지 않은 것들을 구별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객관적인 것과는 별개로 자연적이지 않고 규약과 이로움에 따라 정의로운 것들은 '척도'와 유사하며, 어디서나 동일한 것이 아니다. 정치체제 또한 자연적으로 객관적인 최선의 정치체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나 정치체제가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정의로운 것들과 법적인 것들 각각은 보편자로서 개별적인 것들에 관계한다. 부정의한 행위와 부정의한 것 자체는 다르며, 정의로운 행위와 정의로운 것 자체는 다르기 때문이다. 부정의한 것 자체는 자연이나 법령에 의해 부정의한 것이지만, 부정의한 행위는 그것이 행해질 때 성립하는 것이다. 정의로운 것과 정의로운 행위도 마찬가지로이다.

## <제 8장> 정의와 자발성

부정의한 행동이나 정의로운 행동을 행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비자발적으로 그러했다면, 우연히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부정의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정의로운 행동을 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부정의한 행동과 정의로운 행동은 그것이 자발적이었는지, 비자발적이었는지에 따라 규정된다. 부정의한 행동이 자발적인 것이었다면 비난을 받게 되고 부정의한 행위가 되는 것이지만, 비자발적이었다면 부정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 부정의한 행위인 것은 아니다.

자발적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논의했듯이, 자신의 행위가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임을 알면서 행위의 대상과 목적 등을 모르지 않으며 행하는 것임. 그렇다면 모르면서 행한 것, 혹은 모르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달려 있지는 않은 것 혹은 강제에 의한 것이 비자발적인 것이다. 자발적인 것들은 합리적으로 선택한 후에 행한 것들과 합리적 선택 없이 행한 것들로 나뉜다. 공동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해가 있는데, 무지로 인한 것, 알지만 숙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 합리적 선택에 의한 것이 각각 그것이다. 행위의 대상, 행위 자체, 행위에 쓰이는 도구를 모르고 있거나 애당초의 행위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가 아닐 경우에 이것은 무지에서 행한 잘못이다. 여기에서 발생한 해가 예상할 수 있는 것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발생한 경우는 '불운'이며, 예상할 수 있는 것과 어긋나게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악덕 없이 일어난 것은 '잘못'이다.

한편 알고서 행했으나 미리 숙고하지 않고 행한 것은 부정의한 행동이다. 분노나 다른 자연적 감정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예이다. 그러한 일들은 부정의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부정의하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노로부터 나온 행위들이 사려로부터 나온 행위는 아니며, 분노로 인해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분노하게 한 사람이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분노는 부정의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 일어나므로, 어떤 사안에 대해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따질 때 분노로 인한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해를 끼친 경우라면, 그것은 부정의를 행한 것이다. 이 경우에 그는 부정의한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사람도 합리적 선택에 따라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다만 합리적 선택 없이 단순히 자발적으로만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정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비자발적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용서받을 만하고, 다른 어떤 것들은 용서받을 만하지 않다.

## <제 9장> 부정의와 자발성의 문제

부정의를 당하는 경우와 정의롭게 대우받는 경우가 모두 자발적이거나 모두 비자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 부정의한 행동을 하는 것과 부정의를 행하는 것이 같지 않듯이, 부정의한 행동을 당하는 것과 부정의를 당하는 것 또한 같지 않다.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과 정의롭게 대우받는 것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부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로 자발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이라면, 자제력 없는 사람이 자신에게 자발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부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자신의 무절제함 때문에 자발적으로 남에게서 해를 입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 자신에게 부정의를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규정한 것에 '자신의 바람에 어긋나게'라는 조건을 추가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해를 입고 부정의한 행동을 겪을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부정의를

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자발적으로 남에게 더 줌으로써 부정의를 당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사실 부정의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정의를 당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부정의를 행하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정의를 당한다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논의할 두 가지의 문제가 남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가치에 어긋나게 더 많은 것을 분배한 경우에 관련한다. 이 경우에 분배한 사람이 부정의를 행한 것인지, 받아서 가진 사람이 부정의를 행한 것인지를 문제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부정의를 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만약 첫 번째 문제에서 전자가 옳다면, 누군가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몫을 다른 사람에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준 경우, 그는 자신에게 부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중용을 지키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더 적은 몫을 취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것이다. 다른 좋은 것들은 더 많이 취하려 하기 때문. 이전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바람에 어긋나게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 의해 부정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손해를 보는 것이다.

더 많은 몫을 배분하는 사람이 부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배분받아 가진 사람이 부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점은 항상 명백하지는 않다. 부정의를 행하는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부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를 행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행함으로써 부정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배분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채로 판결을 내렸다면, 그는 법적 정의에 따라 부정의를 행한 것도 아니고, 판결도 부정의를 행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법적 정의와 일차적 의미의 정의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의를 행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알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는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것이며 결국 부정의를 행하여 더 많은 몫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정의를 행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롭게 되는 것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자신에게 달린 일이긴 하지만, 특정한 품성상태에 있으면서 그러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며 그들 자신에게 달린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의와 부정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특별한 지혜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정의로운 사람도 부정의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품성상태에 있으면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그러는 것이다. 또 정의로운 것은 단적으로 좋은 것들을 나누어 가지고 있지만 서로 지나침과 모자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신들과 같은 존재들에게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정의는 인간적인 어떤 것이다.

### <제 10장> 근원적 공정성(훌륭함)

근원적 공정성(훌륭함)은 정의와 단적으로 동일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아예 다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다. 어떤 때에는 누군가가 정의로운 것이 아닌 다른 탁월함을 보일 때에도 우리는 그를 칭찬하며 '좋은'이라는 말 대신에 '근원적 공정함(훌륭함)'이라고 바꿔 말하면서, 더 근원적으로 공정한 것(더 훌륭한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그런데 그것을 또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근원적으로 공정한 것(훌륭한 것)이 정의로운 것과 별개인 양 칭찬받는 것이 이상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둘 다 모두 신실한 것이며, 근원적으로 공정한 것은 어떤 정의로운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이면서도 역시 정의로운 것이기에, 정의로운 것과 근원적으로 공정한 것은 동일하다.

근원적으로 공정한 것이 더 뛰어날 뿐이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공정한 것은 법에 따른다는 의미에서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법적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정의로움이다. 법은 보편적이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보편적 규정을 올바르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은 대체로 들어맞는 것을 취함이다. 이 경우에서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는 것은 옳은 일이며, 이것이 근원적 공정성이다.

사실 이것은 왜 모든 것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에 관해서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결의'를 마련하는 것임. 이 결의는 사안에 따라 바뀐다. 따라서 근원적으로 공정한 사람은 근원적으로 공정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며, 그의 근원적 공정성이 바로 그가 가진 품성상태이며 일종의 정의이다.

### <제 11장> 자발적 부정의의 문제

법이 하라고 하지 않는 것은 금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부정의한 것이다. 그런데 법은 자살을 하라고 하지 않음. 따라서 자살을 하는 것은 부정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폴리스에 대해 부정의를 행하는 것일 뿐 자기 자신에게 부정의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도 자발적으로 부정의를 당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부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 경우에만 부정의한 사람이 되는 것일 뿐, 온전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 자신에게 부정의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자기 자신에게 부정의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같은 사람에게 같은 것을 동시에 빼는 일과 더하는 일이 가능해야 할 것인데, 이 일은 불가능하므로 정의로운 것과 부정의한 것은 항상 2인 이상의 사이에 있어야 한다.

또한 부정의를 행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합리적 선택에 의한 것이며 자신이 먼저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부정의를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것을 동시에 겪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부정의를 당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인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자신에 대해 부정의한 개별적 행동들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부정의를 행하는 문제는 자발적으로 부정의를 당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내렸던 구별에 따라 해결될 것이다. 부정의를 당하는 것과 부정의를 행하는 것은 모두 나쁘지만, 부정의를 행하는 것이 더 나쁘다. 부정의를 행하는 것은 완전한 악덕이나 그에 가까운 악덕을 동반하지만, 부정의를 당하는 것은 악덕 및 부정의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 그렇지만 우연하게는, 부정의를 당하는 것이 더 큰 나쁨일 수 있다.

한편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로움은 없지만, 비유와 유사함에 따라서는 자신의 부분들 사이에 성립하는 정의로움이 있다. 이런 것들은 주인적 정의이거나 가정경제적 정의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논의하는데, 이 점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들에서 자신의 욕구와 어긋난 것을 겪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 받는 사람들 간에 정의로움이 있듯이 이 부분들에도 정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2020 언어예술분과 활동보고

### 영화 『풀잎들』 비평

이서영	34
이성빈	39
김혜주	41
손병권	42

### 영화 『라라랜드』 비평

이서영, 「다섯 번 보고 다섯 번 울었다.」	50
김혜주, 「옛 꿈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사랑.」	53
손병권	55

### 영화 『사일런스』 비평

이성빈	65
-----	----

### 시나리오 창작 활동 보고

이서영, 「도로 위에서」	68
김혜주, 「25일의 회전목마」	76
손병권, 시놉시스 및 배경 구상	84



## 홍상수 『풀잎들』 분석

이서영	-----	34
이성빈	-----	39
김혜주	-----	41
손병권	-----	42

## 이서영 비평

특별한 굴곡이 없는 영화다. 기승전결이 뚜렷한 영화가 물살이 빠른 계곡이나 폭포가 있는 강 같다면 <풀잎들>은 잔잔한 호수나 정적인 연못에 가깝다. 그래서일까,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흐르지 못하고 같은 자리를 맴돈다. 언뜻 단조롭고 지루한 영화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본디 고인 물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하는 법이다. 그러나 두 번은 보고 싶지 않다. 왠지 모를 불쾌함을 남기는 영화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헤어질 것을 알면서도 사랑에 빠지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살고자 한다. 문제를 자신과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과 행동은 비합리적이고 난데없어 보인다. 홍수와 미나는 친구의 죽음으로 괴로워한다. 창수는 사랑 때문에 며칠 전 자살을 기도했다. 성화는 그런 창수의 후배지만 그를 곤란한 존재로 여기는 듯하다. 경수는 능력도 없으면서 의욕만 앞서, 함께 글을 쓸 사람을 구한다. 지영은 그런 경수의 생각을 꿰뚫어보고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몸을 섞는 것은 마다하지 않는다. 진호와 아람은 누나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애를 즐긴다. 순영은 얼마전 투신한 최 교수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자 그의 애인이다. 재명은 그런 순영을 의심하고, 다그치고, 비난하고, 최 교수를 고귀한 인물이라며 들먹인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아람은 그들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태도에 환멸감을 느낀다. 그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여 이성적인 결과값을 내놓으며 사람들을 비웃는다. 그러나 긴 관찰을 통해 '감정(사랑)'을 내심 부러워하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영화 속에서 사람들은 죽음과 사랑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떠보고 판단하는 모습을 아람의 시선으로 보여준다. 아람은 사람들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서 나름의 추리를 통해 그들을 비웃고 평가한다. 그러나 끝내 아람마저 누군가에게는 관찰대상일 뿐이다. 나는 관찰자에서 관찰대상으로의 전환이 내가 <풀잎들>을 보며 어딘가 찝찝함을 느꼈던 이유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내 스크린을 들여다보고 있는 관찰자였지만, 동시에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잎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관객은 그들을 거울삼아 들여다보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불쾌한 까닭은 나를 제 3자의 시선으로 관찰하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한 평가가 힘들다. 온전히 대상을 이해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 나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꾸밈없이 자신에 관해 말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누구나 숨기고 싶은 면과 좀 더 드러내고 싶은 면이 있기 때문이다. <풀잎들>은 내가 숨기고 싶었던 모습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숙한 이면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영화나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티비 프로그램같은 매체를 통해 매일 같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또 버리는 일을 반복한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은 신과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아름은 마치 자신의 관점과 판단이 실제인 것처럼 관객들을 영화 속으로 끌어들이지만, 그들과 다를 것 없이 카페에 들어앉아 관찰 당하기도 하는 하나의 사람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어떤 평가와 관점의 기준을 만들어가지만 어떤 기준으로도 누군가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화 제작 당시 홍상수 감독의 불륜설로 떠들썩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그런 자극적인 뉴스 하나만으로 자신과 자신의 영화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싶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래되고 명백한 기준들이 변함없이 존재한다. 영화가 시사하는 바는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홍상수 감독을 좋아하기 힘들 것 같다. 아래는 시퀀스 별로 영화 줄거리를 요약하고 나름대로 기승전결을 구분해 본 것이다.

## /기 (1)

### 제 1시퀀스

잔잔한 클래식 곡이 흘러나온다. 홍수와 미나가 카페 안에 앉아 있다. 두 사람은 어쩐지 날이 서 있다. 시덥지 않은 안부 인사를 주고받던 도중, 미나가 폭탄처럼 죽은 승희 이야기를 꺼낸다. 홍수에게 죽음의 책임을 묻는 미나. 결국 홍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카메라가 카페 한쪽 구석을 비춘다. 노트북을 앞에 두고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아름이 있다. 아름이 적고 있는 듯한 글이 내레이션으로 흘러나온다. 그렇게 아름은 두 사람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를 관객들에게 공개한다. 카메라가 홍수를 비춘다. 그는 카페 밖에 쭈그리고 앉고 고무대야 속 풀잎들을 바라본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다시 당당해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오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내레이션이 끝나고 홍수는 골목 사이로 걸어가 버린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름.

>>> '사람을 죽인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다시 당당해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오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는 아름의 질문을 통해 영화의 중심 주제인 죽음, 사랑, 삶이 제시되고, 영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승 (2, 3, 4, 5, 6)

**제 2시퀀스**

"괜찮으세요?" 성화의 목소리가 아름의 주위를 돌린다. 카메라가 창수와 성화를 비춘다. 사랑때문에 자살을 하려 했다는 창수. 당장 살 곳이 필요해보인다. 성화의 집에 관심을 보이는 창수, 그러나 성화는 난처해하며 끝내 거절한다. 웅장한 금관악기 소리와 창수의 초라한 상황이 대조적이다.

숙연해진 분위기. 카메라가 아름 쪽으로 넘어온다. '이 사람도 배우였구나, 비참하다. 산다는 게 참 비참하다.' 아름의 내레이션이 시작된다. 카메라가 창수와 성화를 번갈아 클로즈업한다. '왜 사랑은 찾지 못하셨나요?' 내레이션이 끝나고 장면이 전환된다.

**제 3시퀀스**

카페 밖 야외 테이블. 경수가 아름을 지켜본다. 등 뒤로 홍수가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간다. 곧 지영이 경수 앞에 앉는다. 근황을 묻는 지영의 말에 본색을 드러내는 경수. 그는 지영과 함께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 그 마음을 먼저 눈치 챈 지영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경수, 알겠다고는 했지만 아쉬운 눈치다. 밥 약속이 있지만 다시 올 수 있다는 지영의 말에 기다리겠다고 답한다.

노트북을 골똘히 들여다보는 아름. 누군가가 아름에게 다가온다. 아름의 자리에 합석한 경수는 아름에게 호기심을 보인다. 방어적으로 대답하는 아름. 같이 생활하며 글을 쓰고 싶다는 말을 꺼내지만 또다시 거절당한다. 동생이 찾아와 카페를 떠나는 아름.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지나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제 4시퀀스**

동생 커플과 점심을 먹는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아름이 훈수를 두기 시작한다.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냐, 애가 진짜 누군지 모르는데 결혼하고 싶냐, 난처한 질문을 계속한다.

그 시각 같은 식당에서 재명과 순영이 낯술을 마신다. 술에 취한 재명이 얼마 전 투신한 최 교수의 이야기를 꺼낸다. 재명은 순영이 그를 죽인 거라며 다그친다. 순영은 사랑했을 뿐이라고 흐느낀다. "사람을 죽여 놓고는 뭘 사랑이야." "우리는 사랑한 것뿐이에요."

카메라가 같은 공간에 있던 아름을 비춘다. 어떤 코멘트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아름의 눈빛이

쓸쓸하다.

### 제 5시퀀스

화면이 전환된다. 어느 건물 2층에 지영이 있다. 창밖을 궁금한 듯 내다보다 터벅터벅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간다. 하지만 어디론가 가는 대신, 잠시 고민한 뒤 다시 계단을 오른다. 계단 꼭대기에 선 지영의 표정이 어둡다. 결심한 듯 다시 계단을 내려가는 지영. 그러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쉬운 듯 계단을 오른다.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지영은 어쩐지 신나 보인다.

### 제 6시퀀스

카메라가 다시 아름과 진호커플을 비춘다. 먼저 가게를 나선 진호와 연주를 아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멈춰 세운다. 여자 친구 때문에 누나는 안중에도 없는 진호를 비난하는 아름. 결국 아름은 가버리고 진호는 누나를 따라가는 대신 여자 친구에게로 향한다. 진호와 연주는 각자 아름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하며 술집으로 향한다.

>>> 계속 이어져오던 아름의 관찰이 중단되고 아름과 진호의 갈등이 고조된다.

## /전 (7, 8)

### 제 7시퀀스

카메라가 골목을 혼자 걷는 아름. 고무 대야 속 풀잎들을 바라보는 창수를 순차적으로 비춘다. 한숨지으며 담배를 피는 창수에게 지영이 술과 안주가 든 봉지를 들고 다가온다.

곧이어 경수, 창수, 지영, 성화가 카페 안에서 술을 마신다. 경쾌한 클래식이 흐르는 가운데 창수가 경수 집에서 머물기로 한다. 경수와 지영이 빠져나가고 아름의 내레이션.

>>>아름이 '감정'에 대한 동경을 털어놓는다.

### 제 8시퀀스

아름이 내레이션. 카페의 한 편에서는 미나와 홍수가 한결 차분해진 모습으로 대화를 나눈다. 몇 시간 전과는 다르게 솔직한 이야기가 오간다. 여전히 불안하고 확신이 없어 보이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을 터놓는다. 다시 아름의 독백. 미나와 홍수의 갑작스러운 사랑이 불쾌한 듯 빈정거린다. 환멸이 섞인 어조. 경수와 지영이 돌아온다. 경수가 아름에게 다시금 관심을 보인다.

합석을 권유하지만 선을 긋는 아름. 결국 담배를 핀다는 핑계로 빠져나온다. 경수는 그런 아름을 비범하다고 포장해준다.

>>> 미나와 홍수관찰자로 존재하던 아름또한 누군가에게 관찰 대상이었음이 드러난다.

## /결 (9)

### 제 9시퀀스

담배를 피는데 마침 홍수도 담배를 물고 나온다. 아름의 글에 관심을 보이는 홍수에게 아름은 집에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대답한다. 남녀의 웃음소리에 돌아보자 한복을 입은 동생커플이 사진을 찍고 있다. 그 모습을 본 아름, 다시 카페로 들어간다. 잠시 뒤 경수가 담배를 물고 나온다. 그의 등 뒤로 아름이 테이블에 합류하는 모습이 보인다. 진호와 연주의 즐거운 웃음소리. 영화가 끝난다.

>>>아름이 관찰자의 위치를 포기하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간다.

## 이성빈 비평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해본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 부러움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롭거나 하는 단편적인 우열의 비교를 통해 나오는 부러움은 아니다. 아마, 본성적으로 감정투성이이며 필연적으로 실존의 의미에 직면하게 되는 복합적인 삶의 경험에 대한 부러움에 더 가까울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겉으로는 행복한 감정만을 추구하는 듯 보이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일상의 수많은 상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가능한 한 많이 체험하길 원하는 것 같다. 감정 체험의 양은 인간사회 내에서 '의미있는' 삶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일종의 지표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감정은 사회 내에서 한 사람의 성숙도를 대변하며 일종의 성취물로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을 '감정 허영'이라고 말하고 싶다.

홍상수 감독의 <풀잎들>은 어느 카페 안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름의 시선으로 관찰하는 형식의 영화이다. 영화 내에서 아름의 성격은 주위 사람들에게 '노처녀 히스테리' 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아름이 사랑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녀가 느낄 수 있는 감정 체험이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것이다. 그녀가 자신의 남동생과 남동생의 여자친구에게 결혼에 날카로운 말들을 던진 것들을 남동생은 누나의 '노처녀 히스테리' 때문에 사람들과 잘 되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라는 말들로 해석한다. 사실 그녀가 감정을 느껴보기 위해 할 수 있었던 방도는 그저 카페 구석에 앉아 남들의 경험을 몰래 엿듣는 것 뿐이었다. 그 경험들이 마냥 행복한 경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은 감정 체험 자체를 부러워하며 자신 또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죽음에 대한 책임의 감정,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감정, 더이상 갈 곳이 없어 방황하며 고뇌하는 모든 감정들은 아름의 말대로 '너무 쉽고 너무 힘있고 너무 고귀하고 너무 싸구려' 이다. 아름은 이런 감정들이 그림다고 말한다. 결국 마지막 장면은 아름이 자신이 엿듣고 있던 테이블에 합석하여 실감나는 감정의 경험을 공유하게 됨을 암시한다.

영화 속에서 또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름'이라는 캐릭터의 이중성이다. 남동생에게 솔직해지자고 한 그녀는 실제로 솔직한 모습을 보였는가? 그녀는 카페에서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으며, 자신의 노트북에 남들 이야기에 대한 해석들을 남기고 다른 이들에게 절대로 그것을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그녀가 요구하는 솔직은 경솔하고 무책임한 솔직함이 아닌가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 내밀한 곳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꺼내려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대한 아름의 관찰은 떳떳하지 못한 은밀한 행동이기에 관음증 증세처럼 보인다. 관음증, 인간의 이기성이 가장 음침한 곳에 있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엿들으며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감정 그 자체는 자신의 일상세계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감정은 감정 자체만으로 남아있으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경험에 대한 책임의 의무감로부터도 안전한 것이다. 감정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경험에 대한 인간의 책임감은 그것을 받아줄 만큼 크지 않다. 관음증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스스로의 경험과는 동떨어져있는 쾌락 혹은 무모했던 시도에 대한 댓가일 것이다. 아람이라는 인물은 그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아람은 극의 마지막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술자리에 들어가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는 관음증의 이기성으로부터의 극복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객들에게도 삶의 현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듯 싶다.

인상깊었던 것은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클래식음악과 흑백 화면의 조화였다. 무책임함과 추한 변명이 오가는 와중에서도 단정함과 고상함을 유지하려는 인물의 심리묘사에 적절한 연출이었다고 생각된다. 영화의 기승전결은 그다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굳이 나누자면 아람의 관찰자적인 태도로부터 참여자적인 태도로 변해가는 모습 자체가 영화의 전개과정이라고 생각된다.



## 김혜주 비평

1. 어느 가을 날, 카페에서 영화는 시작된다. 골목 안 구석진 곳에 있어서 찾기 어려운 카페, 그곳에서는 여러 커플들이 대화를 나눈다.

카페는 편안한 공간이다. 영화는 카페 안에서 내내 노래를 틀어놓는다.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기에 곤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늘어놓게 된다. 음악이 나오는 곳은 주로 카페이지만, 카페 외에 음악이 나오는 두 장면이 있다.

첫 번째로 재명이 순영이 죽인 것이라고 탓하는 순간 나오는 음악은 '오, 수잔나'  
두 번째로 아름이 진호에게 화내고 카페로 돌아가면서 들렸던 노래 '우리 둘 사이에서'

2. 영화와는 별개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떠올랐던 점은, '이 카페 망하진 않을까?'였다. 영화속 처음 시간은 낮이었는데 밤이 되어가 영화가 끝나는 동안 카페에 등장하는 인물이 겨우 일곱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술을 몰래 마시기도 하고, 기어코 한 병 더 사서 허락도 받고. 참 카페주인 입장으로는 음료 한 잔 시키고 죽치고 있는 이 손님들이 진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 좀 지루했다. 그리고 사실 등장한 인물들에게 이입하기 힘든 점도 있었다. 아름의 표현대로라면 그들은 '죽은 사람을 팔아서 염치도 챙기고 행복도 갖는 커플', '어린 여자에게 얽혀사려는 남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급히 결혼을 생각한 커플', '처음 보면서 열흘간 함께 보내자고 자기에게 대신한 남자'. 그 말고도 너 때문에 동료 교수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커플.

나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처음이고, 어떤 스타일인지 알지 못한다. 혹시나 어떤 영화를 만드는지 알 수 있을까해서 인물검색을 했을 때 알게 된 사실은 그가 불륜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알고나서 보게 된 이 영화는 자신의 불륜에 대한 변명, 주변의 시선, 또 자책감도 깃들여 있는 영화라고 말하고 싶다.

4. 이 영화는 2018년 개봉작이지만 흑백이다. 흑백으로 연출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죽음, 과거 등을 표현하는 장치이다.

5. 아름은 카페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을 판단한다.

텔레비전에 본 거와 다르게 되게 성깔있게 보이는 배우. 사연이 있겠지. 누군 없을까. 누가 그 속을 알겠는가. 그들의 관계를 누가 알겠는가. 죽었다는 여자만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지. 친구는 그 의미를 찾고 싶어서 저 배우를 죽치고 싶은 거고, 남자는 두려운 거겠지. 자기를 인정하면 뭔가 두려운게 나올까봐.

풀잎들 中 아름 아름은 스스로 본인이 남의 속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동시에 그 속을 혼자 추측하고 단정짓는다. 추측하는 것과 반대로 동생으로 보이는 진호 커플에게 '알지도 못하고' 사귀고 있다며 만남 내내 지적한다.

6. 그러나 아름 또한 결국 영화에서는 관찰당하는 대상이다. 그 누구도 그들의 시점으로 카메라가 잡히지 않았고, 거리를 두고 촬영되었다. 결국 우리는 현실의 '아름'인 셈이다. 아름도 결국 그 커플들 사이에 끼어 대화하면서 영화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아름도 그들과 같은 사람임을 어필한다.

## 손병권 비평

### 1. 홍상수 영화는 하나 보면 다 본 거라고, 어디선가 그런 말을 봤었다.

이 말은 영화들이 거진 비슷한 전개로, 매년 똑같은 말을 하면서 다를 거 없이 맹송맹송하게 끝나는 맥빠지는 매너리즘을 갖고 있다는 말로 보이지만, 난 사실 이 말만큼 홍상수 영화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게 없다고 본다. 그가 다루는 건 일상이다. 일상은 언뜻 보기에 모두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내밀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건 일상을 지켜보는 관찰자의 시선이고, 그의 영화에서는 카메라다.

그의 작품은 대개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어떤 사람의 일상, 또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말을 카메라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서로 간의 눈싸움이 맥없이 풀려버리고, 카메라도 그 사람들 보는 걸 그만 멈추면서 영화가 끝난다.

나는 여기서 카메라가 보는 걸 멈춘다는, 이 단순한 영화적 기술 하나 덕분에 그의 영화를 좋아하게 되었다. 시선이 판단 내릴 땐, 종결이 분명하게 작용하고, 애매모호한 언사들이 간결하고 명료해진다. 대부분의 영화들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영화에선 카메라가 단순히 바라보기만 할 뿐, 어떤 판단을 내리려 하지 않고, 그대로 애매하게 끝을 낸다. 말하자면 카메라가 멈춘다.

### 2.

앞서 말한 것에 이어 <풀잎들>을 볼 때, 크게 관찰자와 대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김민희가 연기한 역은 극 중에서 관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녀가 글로 적어내리는 사람들의 일상이나 상황은 관찰자가 바라보는 대상이다.

관찰자는 파괴된 일상을 가장 먼저 목격한다. 죽은 사람에 대해 잊지 못하는 (그러나 잊어야만 하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그들이 삶과 죽음이라는 무거운 관념이 가볍고 세속적으로 그려지는 상황 속에서 찢찢매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명색이 연극계 대선배라는 사람은 거주할 집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여자 후배 앞에서 속절없이 비굴하게 군다. 그들의 말은 날 것에 비릿하다. 관찰자는 이들을 조소를 섞어 판단 내리고, 비릿한 말들을 '인간이란 게 원래 그렇지' 따위의 연민 섞인 허무주의적 표어로 이끌어낸다. 내레이션은 이 표어를 읊조린다.

여기서 관찰자의 시선은, 판단을 내리는 시선이다. 모든 것을 명료하게 바꾸되,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담아내지는 않는다. 관찰자의 판단은 공허한 말이기보단, 어딘가 왜곡되어 있는 말이다.

관찰자의 판단은 김민희가 극에 참여하는 때부터, 아니 극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점점 희미해진다. 김민희는 관찰자라는, 얼마간의 거리가 필요한 역할에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가고, 그녀가 대상으로 여겼던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 한 남자로부터 10 일간 같이 있자는, 이상한 부탁을 받게 되고, 동생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서, 그녀 또한 일상에 있는 하나의 사람이자, 극 중 배우로 바뀐다.

그녀는 자신과 그 사람들(일상의 사람들) 간의 거리 두기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지만, 결국 그들에게 동화되고, 그녀가 은근히 경멸 조로 바라보던 '비릿한'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기에까지 이른다. 그녀의 관찰자라는 역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에 실패당한다. 그녀는 일상과 거리가 먼, '비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비범함을 유지해왔던 관찰자로서의 시선을 거두고, 내레이션으로서의 임무를 중지한다. 영화의 말미에서 관찰자와 대상의 거리는 좁혀서 하나에 이르고, 카메라는 정확히 이 부분에서 가동되기를 멈춘다.

### 3.

그녀는 왜 관찰자가 되기를 실패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나는 임의적으로 관객의 시선에서 영화를 바라보고자 한다.

초반부, 파괴된 일상을 복구하려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비애를 담아내는 카메라의 시선은 김민희의 내레이션과 동치 된다. 카메라는 김민희의 말 한 것처럼, 필요한 만큼만 그들에게 공감하고, 자의적 해석을 섞어낸다. 관찰자가 바라보는 대상들의 분노, 슬픔, 이러한 감정들은 내레이션의 말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관찰자는 그들의 말에서 비릿한 모습만을 꼬집어낸다. 관찰자는 이러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일상의 모습을 오로지 순수한 말로, 그러나 날카롭고 공격적인 말로 바꾸어낸다.

관찰자가 일상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잡다한 이해관계의 그물에서 얼마간 벗어나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그녀의 말은 신랄하지만, 비인간적이다.

그러나 그녀 자신이 그녀가 대상으로 여겼던 일상의 이해관계로 초대받은 때부터, 그녀의 신랄한 말은 단순히 허무하고 무의미한 '노처녀의 히스테리'로, 그들에게 여겨진다. 언제까지나 그녀는 극 중에 있는 하나의 인물이기예,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카메라의 시선은, 이때부터 내레이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관찰자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내레이션은 영화 속에서 카메라의 시선과, 카메라의 대상 사이의 연속선에서 활보하는, 이중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그녀의 갈등은 영화의 내적 서사에서 벗어나있다. 그녀는 일상의 비릿하고 짝사랑한 쓴맛의 한 가운데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일상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비범한' 사람으로서 순수함을 유지할 것인지,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고민하는 메타적 인물이다

비루하고 오래된 격언이지만,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이 이 영화에서, 정확히 말하자면 앞서 말한 그녀의 상황에서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매일같이 카페 한 칸에 앉아 희극을 써낼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일을 그만두고 비극에 들어갈 것인지, 그녀는 고민한다.

그녀의 고민은 후반부에 가서 내레이션의 독백에서 어김없이 나타난다. "저게 정말일까? 정말이면, 정말 좋겠다. 결국은 사람은 감정이고, 감정은 너무 쉽고, 너무 힘 있고, 너무 귀하고, 너무 싸구려고, 너무 그림다. 그렇다, 지금은." 내레이션의 말속에서 자취를 감추던 감정들이, 오히려 후반부의 독백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 관찰자에게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순수한, 어쩔 수 없이 '비범한' 사람이다. 그녀는 관찰자이기 이전에 하나의 사람이자

인물이지만, 감정 하나 없이 순수하기만 하다면 그녀는 하나의 인간일 수 없다. 그녀의 말처럼 그녀가 그리워하는 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다.

영화의 결말부에 가서 그녀는 순수한 사람이기를 그만두고, 일상의 내밀한 가벼운 역겨움을 발로 디터내는, 하나의 '평범한' 사람으로 되려 한다.

#### 4.

앞서 내가 '임의적으로 관객의 시선에서' 영화를 바라보겠다고 한 것은, 얼마간 이들을 분석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해명이다. 나는 영화가 관객의 시선에서 침묵을 깨고 무언가 의미 있는 판단을 해내려는, 관찰자이자 평가하는 사람의 시선을 거두고 일상이자 삶의 현장으로 적극 들어가라는 무언의 종용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조금 더 전체적으로 조망해보자.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관찰자'라는 역할은, 얼마간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 자체를 은유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의 양상이 그려진다. 영화 속에서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김민희는 '관찰자'라는 역할을 중지하고 극 중 일상에 참여한다. 관객의 입장이기에 당연히 영화 속 상황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객들은 영화가 끝남과 동시에 '관찰자'라는 역할이 중지된다. 그렇다면?

#### 5.

잠깐 빗겨나가서, 다른 얘기를 해보려 한다.

아방가르드라는 예술 사조가 보통 '어떤 관습적인 것에 대항하여' 이루어졌다는 예술사적 사실을 감안할 때, 1950년대 미국에서 태동한 아방가르드 연극의 지향점은 다름 아닌 관객에 대한 대항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의 연극은 관객주의에 대하여 반기를 든 연극이었다.

기존에 있었던 사실주의 연극에서 관객의 입장은 수동적이고, 종속적이었다. 제 4의 벽 너머로 일상과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고, 관객은 이를 '관찰자'로서 지켜보아야만 했다. 관객에게 무대 위 상황은 그 상황이 아무리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환상이자 '연극'이었다. 미국 50년대 아방가르드 연극은 바로 이 관습적인 관객의 역할 그 자체에 대항하려고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극이 '성공적으로' 관객의 책임과 선택을 요구하기를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그들의 연극의 형식적 특징이 불러일으킨 효과는 직접적으로 관객에게 가닿았다. (그 형식적 특징이 어떤지는 서술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효과는 그들의 연극 자체가 관객의 존재를 반복적으로 환기시켰고, 관객을 극적 상황에 참여시켰으며, 연극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관객이 되게끔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객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공연 상황 자체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건, 관객주의라는 단어로 대체되는 일반 관객들의 자세, 연극이나 예술 일반을 대하는 관객들의 자세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연극은 폭력적인 양상을 띄었다. 그들의 연극은 자유로운 선택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운 관객은 허용하지 않았다. 연극 내에서 관객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묘한 죄책감을 느끼고, 관객보다 연극 자체가 우위에 서 있게 되며, 관객들은 오히려 어색함, 미안함 등의 타자를 향한 감정을 느끼면서 얼마간 선택을 '강요받는다'.

4 지 선다의 객관식 문제를 주고, '당신에게 4 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으니, 당신은 능동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정말 문제를 푸는 이에게 진정으로 적극적인 선택을 할 자유를 주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 애당초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란 없는 것일까? 미국 50 년대의 아방가르드 연극은 관객주의의 우위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는 연극 자체가 관객에게 강요하는, 또 다른 우위를 낳았다. 폭력적 방식을 통해서만 관객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연극 극단의 입장은, 오히려 선택지를 강요함으로써 관객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50 년대에 주로 이루어졌던 아방가르드 연극이 강한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었다고 평가받는 건, 이와 연관이 깊을 것이다.

## 6.

사족이 길었던 건, 나는 이 영화가, 또는 홍상수의 전반적인 영화가 자전적이면서도 관객주의에 대항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이 영화는 미국 50 년대의 아방가르드 연극이 수행한 '관객주의에 대한 대항'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그의 영화는 오히려 여지를 남겨주고, 애매모호하게 남긴다. 은유적으로 관객에게 삶의 현장으로 적극 들어가라고 종용하는 영화 막바지의 주장은 오히려 말이 아니라, 침묵이다. 영화에서 침묵은, 카메라가 멈출 때 이루어진다.

<풀잎들>에서는 선택지가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다. 내가 앞서 관찰자와 대상이라는 양상을 이 영화에서 이끌어낸 것도, 결국 내 해석이고, 자의적이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해석은 앞서 말했던, 도입부의 내레이션과 비슷하며,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구축됨과 동시에 무너지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순 속에서 영화적 도식은 만들어짐과 동시에 해체되고, 구축됨과 동시에 탈구축되어, 단 하나의 은유적 상징만 남는다. 날 것의 목소리들을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참여하라는, 평범한 삶을 아우르는 아주 완곡하지만 씩씩한 비극적 메세지.

## 7.

그렇기에 <풀잎들>에서는 일반적인 기승전결의 구조로 나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시퀀스들의 연속으로 진행된다. 파괴된 일상이 반복되다가, 회복되기까지의 천천히, 인과적이진 않지만 유기적인 상황들의 반복. 그 사이사이에 묘하게 두드러지는 미세한 차이들.

만약 기승전결이라는, 플롯의 긴장감으로 영화를 나눌 때, <풀잎들>은 첫 도입부부터 갈등 상황을 연출하여, 전을 보여주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점진적으로 결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은 명확하지만, 결은 아주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다. 홍상수 영화에서 일반적인 서스펜스를 볼 수 없는, 따라서 쉽게 '재미'를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영화는 구체화된 서사라기 보다 하나의 유기적이지만 불연속적인 이야기에 가깝다.

내가 <풀잎들>보다 홍상수의 다른 영화들을 더 좋아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말하자면 이는 <풀잎들>의 단점일 것인데, <풀잎들>은 (내가 좋아하는 홍상수의 영화 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보다 덜 자전적이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다분히 청년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아닌 소소한 '서사'로 보여진다. 이 영화가 <풀잎들>이라는 제목을 갖는 것도, 이를 은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홍상수 영화의 매력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할 게 없지만 한 사람, 즉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특별한 그 순간을 포착하는 데에 있고, 그는 이를 포착하는 방법으로 반복과 차이를 섞어서 사용한다. 그러나 <풀잎들>에서는 반복과 차이를 바탕으로, 자전적이라고 여길 수 밖에 없는 표현적 형식에 이르렀지만, 그 메시지에 있어서는 다분히 보편적이다. 말하자면, 그 만의 특별한 순간이 없었고, 따라서 이 영화는 아마추어 연극 장면들의 모음집같이 여겨졌다. 그의 은유적인 말은, 표현적으로는 특별하지만, 함의하는 바는 특별할 게 없다. 이게 50년대 아방가르드 연극의 폭력적 수법과 아예 같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선 50년대의 방식과 얼마간 비슷한 방식으로 자칭 '자전적'인 주장이 펼쳐진다. <풀잎들>에서는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객관식이 주관식으로 되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여겨진다.

## 8.

그러나 더 깊은 단점을 짚어내는 건 이 글에선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단점들에 대한 지적은 어찌 보면 단순히 내면적 평가의 투과광일 뿐이며, 관객주의를 극한으로 밀어붙인 결과일 수도 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주안점이 된 건, 관찰자와 대상이라는 도식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 도식에서 말해지지 않은, 카메라가 작동하기를 중지한 이후, 관객이 일상에 가닿는 그 순간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짐 자무시의 <커피와 담배>가 생각났다. 둘 다 흑백이고, 카페에서 대화하는 장면들이 단편집처럼 모여있으며, 유기적이긴 하지만 불연속적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 <커피와 담배>는 보여지는 대화 속에서 끈끈함이나 열정 같은 게 사라지고, 스타일만이 남아 은근한 공허함 내지 세련된 우울감만을 돋보이게 한다. 그러나 <풀잎들>은 마치 제목처럼, 날 것인 감정의 대립 속에서 짓이겨지고 밟히는 일상의 격렬함 속에서 치이고 받히는 와중에서, 어이 없으면서 어김 없이, 한번만 더 속아보자는 양 그물 같은 관계망 속으로 돌아가보자는 간곡한 제안을 관객에게 선사한다.

## 9.

개인적인 말이지만, 나에게 좋은 '영화'는 아니었다. 그러나 홍상수의 영화는 언제나 그렇듯이, 좋은 '체험'이었고, 이번도 마찬가지다.

영화가 추체험 그 이상, 즉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을까? 홍상수의 영화를 보다보면 영화를 보는 것도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험처럼 느껴진다. 어쩌면 그가 영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려는 것이, 자전적인 고백 그 이상, 영화를 하나의 경험으로 만들어보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홍상수 영화는 하나 보면 다 본 거라고, 어디선가 그런 말을 봤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 사는 삶도, 하루만 보면 대충 그 사람의 1달 정도는 다 본게 아닐까?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이, 그 나이 또래의 모습만 보더라도, 아니면 지역적으로 대충 묶어서 보더라도 특정 개인의 일상은 한눈에 다 보이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 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다른 건 몰라도 홍상수는 이에 대해서 절대로 부인할 것이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하기에,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이 느껴진다.



## 데미안 서젤, 『라라랜드』 비평

이서영, 「다섯 번 보고 다섯 번 울었다.」-----	50
김혜주, 「옛 꿈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사랑.」-----	53
손병권 -----	55

## 「다섯 번 보고 다섯 번 울었다.」, 이서영 비평

미아와 세바스찬은 라라랜드(꿈의 나라)를 사는 동시에 라라랜드(LA)에서 사는 존재다. 이상에 비해 현실은 늘 초라하고 하찮다. 미아는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것을 꿈꾸지만 현실은 오디션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카페 알바생이다. 세바스찬은 뮤지션으로서 순수 재즈를 하고 싶어 하지만 징글벨 따위의 상업적 곡을 연주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짝 막힌 도로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차들처럼, 두 사람은 꿈을 향해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늘 대기 상태에 머문다. 이 영화가 사랑스러운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예술가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 영화가 슝스슝한 여운을 남기는 까닭이기도 하다.

영화는 음악으로 시작해서 음악으로 끝난다. 10곡 가량의 노래가 127분 안에 살뜰하게 짹짹 들어차있다. 덕분에 관객들은 스크린 앞에서 공연을 보러 온 것과도 같은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공연 같다는 느낌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뮤지컬은 노래와 스토리의 조화가 중요한 장르다. 무게 중심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영화의 균형은 쉽게 깨지고 만다. 뮤지컬 형식의 영화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중간 중간 무리하게 곡을 끼워 넣는 것이다. 갑자기 주인공들이 노래를 부른다면 공들여 쌓아올린 분위기는 산만해지고 관객의 몰입은 깨져버린다.

<라라랜드>는 노래를 위한 노래를 일절 포함하지 않았을 뿐더러 노래 또한 이야기의 연장선임을 잊지 않은 뮤지컬 영화의 훌륭한 본보기다. 영화의 인트로를 여는 <Another Day Of Sun>는 영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암시한다.

짝 막힌 LA의 도로 한복판. 사람들은 각자의 라디오를 들으며 각자의 일상에 집중하고 있다. 곧이어 그들은 꿈에 대해 노래한다. 처음 노래를 주도하는 여자는 마치 미아의 대변인 같다. 어느 여름날을 회상하는 여자의 노랫말은 미아의 현재 상황과 일치한다. 미아 역시 배우가 되기 위해 고향을 떠나 LA로 와 있기 때문이다. 비록 빈털터리지만 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가사 마저도 꿈에 부푼 미아의 마음처럼 느껴진다.

2절을 부르는 남자는 영화가 아닌 리듬과 멜로디에 매료된 사람이다. 다들 아니라고 하는 음악이지만 지갑에 동전 한푼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굳은 의지는 세바스찬을 떠올리게 한다. 비록 지금은 아무도 아니지만 언젠가는 성공하리라는 희망 속에서,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한다. 다소 허황된 꿈처럼 보이지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기에', 사람들은 개의치 않아한다. '환상의 나라'라는 의미와 'LA'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 '라라랜드'의 오프닝 곡으로 이보다 좋은 곡이 있을까? 노래가 끝나고 그들 중 한 사람일 뿐인 미아와 세바스찬을 조명하는 연출도 훌륭하다. <라라랜드>의 주인공은 저 먼 영화 속에 박제된 캐릭터가 아닌 실재하는 그 누구도 될 수 있다는 감독의 의도가 엿보인다.

각각의 곡들이 삽입된 타이밍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유도동기(leitmotiv)'란 바그너가 이론화한 개념으로 특정인물, 사물, 감정 혹은 관념과 연관된 테마와 동기를 말한다. 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악상은, 전체 작품을 그물망처럼 연결시킴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상상하고 회상하게

만든다. 베르디의 오페라 <오텔로>의 키스테마 선율이 대표적인 예다. 1막의 오텔로와 데스데모나가 부르는 사랑의 이중창은 불안정하게 치닫는 4막에서 반복된다. 키스테마 선율은 흑인인 오텔로가 부인의 사랑을 의심하는 장면과 과거 사랑했던 순간을 오버랩하여 현재 상황의 비극성을 부각한다. <라라랜드>에서는 <Mia&sebastian's theme>가 '유도동기'의 역할을 한다. <Mia&sebastian's theme>는 극 중에서 세 번 등장한다. 첫 번째는 레스토랑에서의 공식적인 첫 만남. 두 번째는 미아가 남자친구와의 저녁자리를 박차고 나와 세바스찬이 기다리는 영화관으로 달려가는 장면, 마지막 세 번째는 '셉스'에 온 미아를 위해 세바스찬이 연주를 하는 순간이다. <오텔로>의 키스테마 선율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였다면, <라라랜드>의 미아와 세바스찬의 테마 선율은 마냥 로맨스만을 상징하지 않는다. 테마가 흘러나오던 처음의 두 장면을 떠올려보자.

오디션은 망쳤지, 파티는 끔찍했지, 심지어 차까지 견인되었다. 한껏 좌절한 미아는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간다. 그 때 희미한 피아노 선율이 그녀의 무거운 마음과 발걸음을 잡는다. 레스토랑 안에서 한 남자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 단조의 음울한 곡조였지만 파티의 그 어떤 화려한 음악보다도 진실하고 호소력 있는 멜로디였다. 미아는 그날 처음으로 위로받는 기분을 느낀다. 또다시 그 곡조를 들은 건 어느 레스토랑, 남자친구의 가족과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 선악이 있다는 것을 잊고 세바스찬과 영화를 보기로 한 그녀는 세바스찬 생각에 좀처럼 집중하지 못한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와 가족들이 영화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자 순간 미아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다. 자신의 꿈을 무시 받는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그때 또다시 흘러나오는 테마 곡조에 미아는 자리를 박차고 달려 나간다. 세바스찬이 기다리는 영화관을 향해서.

싫더라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바스찬은 끝까지 캐롤을 연주해야 했고 미아는 부유한 남자친구의 곁에 남아있어야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현실적인 것에 저항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 세바스찬이 캐롤을 참지 못하고 연주했던 곡조답게, <Mia&sebastian's theme>는 지독한 현실에 맞서는 이상을 대변한다. 그러나 '셉스'에서 세바스찬이 다시 그 곡을 연주했을 때, 많은 것들이 변해있다. 항상 두 사람의 테마는 이상적인 선택으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둘은 서로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는 대신, 미소를 주고받고 헤어진다. 말 그대로 두 사람을 '묶어준' 멜로디가 두 사람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음을 확실시한다. 두 사람은 현실 속에서 냉철하고 어른스러운 선택을 한다. 선율 너머, 과거의 추억만이 안타까움을 강조할 뿐이다.

그래서 슬펐다. 너무 슬펐다. 이상적인 영화였다면 파노라마 속 장면들이 결말이었겠지만 <라라랜드>는 '현실적인' 결말로 끝난다. 그 상황에서 꿈과 이상, 미아와 세바스찬의 만남을 대표하는 테마가 흐르니 어찌 마음이 떨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왜 미아와 세바스찬은 헤어진 걸까? 마지막 장면에서의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둘의 사랑이 식지 않았음에도 두 사람은 함께 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

<라라랜드>의 두 주인공 만큼 자주 등장하는 소품인 그들의 자동차는 이런 결말을 암시하는 듯하다. 작중 세바스찬의 자동차는 1982년식 뷰익 리비에라이고 미아의 자동차는 2세대 토요타 프리우스다. 서로 다른 두 자동차는 과거의 환상을 살아가는 세바스찬과 할리우드를 동경하는(한때 할리우드 스타들 사이에서 프리우스가 유행이었다) 미아의 정체성을 시각화하는 장치다. 또한 자동차는 탑승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이동수단이기도 하다. 정체된 도로 위 자동차에서 만났던 첫 등장이 새삼 색다르게 느껴진다. 생각해보면 미아가 냉정한 현실에 좌절할 때 차가 견인되어있기도, 포기하고 집에 돌아간 미아에게 꿈을 상기시켜준 것은 세바스찬의 경적소리가 아니던가? 두 사람이 처음 싸운 것도 사랑 때문이 아닌 꿈 때문이었다. 세바스찬은 바쁜 와중에도 미아를 보기위해 시간을 내어 깜짝 파티를 준비한다. 그런 세바스찬에게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미아의 표정은 사랑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즐거운 분위기는 세바스찬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굳어간다. 자신의 꿈 대신 돈과 명예를 선택하는 세바스찬의 모습에 미아는 혼란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미아에게 세바스찬은 이걸 바란 것이 아니었냐며 화를 낸다.

이런 모습을 보며 나는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는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응원했기에, 상대방의 꿈을 위해 이별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이다. 영화 속 '가을' 파트의 마지막 장면에서 세바스찬은 미아에게 이런 말을 한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기가 캐스팅되면 모든 걸 쏟아 부어야 해. 전력을 다해야지. 자기 꿈이잖아."

그럼 자기는? 하고 되묻는 미아에게 "나는 여기 남아서 내가 계획한 걸 해야지."라고 담담하게 대답한다. 미아는 수긍한다. 그들에게 꿈은 남은 인생 전체를 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그들은 그 주제를 마무리 짓는다. 영화 속에서는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것은 꿈을 이루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꿈과 사랑은 양립할 수 없다. 적어도 데이미언 셔젤은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미아와 세바스찬은 도로 위에서 멈춰있는 동안만 지속될 수 있는 관계인 것이다. <라라랜드>는 묘하게 현실과 꿈의 경계를 오가는 영화다. 영화 전반이 고전 영화를 오마주하고 있지만 결말은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다.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던 영화다.

## 「옛 꿈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사랑.」, 김혜주 비평

### 1. 시간의 흐름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리고 5년 뒤. 다시 겨울

(기) 겨울: 둘의 첫 만남 번번히 오디션에 떨어지는 미아, 사기당한 세바스찬 돌아가던 중 우연히 들린 피아노 연주를 듣고 호감을 품는다.

그러나 다른 곡을 연주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세바스찬은 다가오는 미아를 밀치고 나선다.

봄: 둘의 사랑 여러 번 마주치면서 서로 이끌린다. 원래 연인인 그렉의 가족과 식사하다 연극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듣고 불편함을 느낀다. 미아는 자신의 꿈을 함께 얘기한 세바스찬을 선택하게 되고, 사귀게 된다.

#### (승) 여름: 세바스찬, 현실과의 타협

세바스찬과 함께하며 미아도 재즈를 좋아하게 된다. 데이트 중 키이스를 만나게 되고 생각이 맞지 않아(대중의 기호를 따르느냐, 이전의 전통을 고집하느냐) 꺼렸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묻는 미아와 부모님의 전화를 들은 밴드에서 일하기로 결심한다. 자신의 음악적 방향과 맞지 않은 밴드이기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참고 밴드에서 키보디스트로 일한다. 밴드 메신저스의 공연날에서 미아는 그가 원하던 음악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또 밴드는 대중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다.

#### 가을: 미아, 현실과의 타협 / 다시 꿈을 쫓는 발걸음

음반으로 인기를 끌게 된 밴드는 투어를 다니며 셉은 바빠졌다. 틈이 나 둘은 만나 식사를 하게 된다. 미아는 그의 꿈에 대해 언급하게 되고 세바스찬과 다투게 된다.

셉은 시간을 착각했던 잡지 촬영날이 미아의 첫 1인 연극날이기에 고민하다 촬영을 하러 간다. 촬영 중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미아는 연극을 무사히 마쳤으나 오지 않은 세바스찬, 적은 관객, 연극에 대한 비난을 듣고 큰 상처를 입는다. 셉은 촬영이 끝나고 미아에게 가 뒤늦게 사과하지만 미아는 꿈을 접고 본가로 돌아간다

**(전)**

헤어진 이후 셉을 통해 미아에 대한 캐스팅이 들어온다. 셉은 기억을 더듬어 한 번도 간 적 없는 그녀의 집을 찾는다.

그리고 미아가 오디션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돌린다.

미아는 오디션에서 파리에 살았던 자신의 이모의 얘기를 한다. 오디션에서 방해없이 온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한 미아.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의 꿈을 위해 헤어지기로 한다.

**(결) 5년 뒤 겨울: 이별 / 꿈의 성취**

미아는 유명한 배우가 되고, 셉은 원하던 재즈 클럽을 연다. 그러나 미아는 이미 결혼한 이후이다. 셉이 연 재즈클럽에서 둘은 마주치게 되고, 마지막 눈인사를 한다.

## 2. 오프닝과 THE END, 현실과 꿈의 경계

오프닝과 엔딩은 이 영화가 비현실적인 공간임을 상기시킨다. 라라랜드의 의미가 비현실적인 세계인 것처럼 이 영화도 현실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마지막 The end 자막도 이 영화가 끝났음을 명시하며 현실과 경계를 긋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화에서 미아도 배우라는 꿈을 접으려고 한다. 비현실적이고 닿을 수 없는 영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셉도 미아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 3. 마지막의 환상

세바스찬의 상상. 내가 만약 첫 만남에서 키스를 했다면, 키이스랑 아는 척도 안했다면, 연극을 축하해 줬더라면, 그때 오디션이 되었을 때, 같이 파리에 갔더라면. 세바스찬은 미아와 함께하는 상상을 이어나간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차를 이끌고 클럽에 간 건 자신이었을텐데. 처음 만났을 때 연주한 곡을 연주하며 셉은 상상에 잠긴다. 연주가 끝난 뒤, 둘은 마지막 눈인사를 하며 셉은 마음을 다 잡는다.

결정적인 순간에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준 세바스찬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만약 평범하게 세바스찬과 만나고 끝났으면 이런 달콤쌉쓸한 기분 없이 상쾌하게 영화를 마칠 수 있었을텐데 그렇다면 이 영화는 흔한 영화로 여겨질 것 같다.

## 손병권 비평

### 손병권

#### 1.

알튀세르는 <자본론>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기 위해, 현상의 발생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 한쪽은 '탄생', 다른 한쪽은 '돌발'.

"탄생은 ... 어떤 발생학적 문제 설정 속에서 어떤 것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전에 무엇이 있었고, 어떤 원인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태어나게 됐다는 선형적인 방식으로 추적하는 것이지요. 반면 돌발이란 ... 선행하는 원인 없이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돌발한 것, 그 원인 없는 결과를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어떤 계기로 우연히 마주쳐 결합했고, 그리하여 이 결과물이 갑자기 등장했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는 '돌발'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은 목적론적 논리에 따라서 그것을 역추적하는데, 이는 탄생의 논리를 돌발의 사건에 오용한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것이 우연한 마주침을 통해 역사 속에서 돌발하게 되면, 목적론적 논리에 따라서, 탄생의 논리에 따라서, 이 돌발의 결과를 과거로 투영해 회고적인 방식으로 기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결과를 원인의 자리에다 가져다 놓는 것이지요."

이는 <자본론>에 대한 얘기이자 역사를 받아들이는 관점에 대한 얘기이지만, 알튀세르의 사상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를 어느 정도는 다른 관점, 말하자면 사소하고 내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였다.

앞서 말한 부분들은 『처음 읽는 프랑스 현대철학』이라는 책을 참고, 발췌했다.

#### 2.

<라라랜드>는 외형적으로 아크 플롯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등장인물들의 내적 갈등 또한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니 플롯의 면모 또한 볼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라라랜드>는 멀티 플롯이다.

그러나 겉보기로 나타나는, <라라랜드>에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 서사를 지탱하지 않는다. 미아와 세바스찬의 외적 갈등으로만 영화를 분석할 때, 대략 1시간 20분쯤에 영화는 끝나야 하고, 이야기는 전형적으로 여겨지며, 두 사람의 환상을 다루는 마지막 5분은 아무런 이유를 가지지 못한다. 이 영화는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만약 사랑에 대해서만 굳이 이야기한다면, 겨울에 처음 만나고, 봄에 사랑이 싹트고, 여름에 사랑이 심화되다가, 가을에 서로 반목하며, 5년 뒤 겨울에 아예 끝나버린 사랑 이야기의 결말부에 덤으로

잠깐잠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줄 뿐이다. 아크 플롯에서의 <라라랜드> 분석은 이게 끝이다.

이동진 평론가의 말을 빌리자면, <라라랜드>의 메인 플롯은 사랑이며, 서브 플롯은 '두 사람 모두 꿈이 있다'이다. 또 덧붙여 말하길, <라라랜드>는 이 두 플롯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영화가 다르게 보인다.

얼마간 이동진 평론가의 말에 반하여 이야기를 하자면, 나에게 있어서 이 영화의 메인 플롯은 두 사람이 꿈을 좇는다는 바로 그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한 번 본 영화는 다시 보지 않으려 하는 이상한 아집이 있는 나는 웬만하면 두세 번 영화를 보는 일이 없지만, <라라랜드>만큼은 3 번 정도 본 것 같다. 한 번은 혼자, 한 번은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영화를 볼 때마다 난 이 영화가 꿈에 대한 얘기, 넓게 봐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나로서는 이 영화가 꿈을 좇는 불나방의 비망록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 형식적으로 말하자면 이 영화의 플롯이 아크 플롯이 아니라 미니 플롯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외형적으로는 영화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점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다.

### 3.

따라서 나는 미니 플롯에서 이 영화를, 즉 꿈을 좇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영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두 주인공, 미아와 세바스찬은 명확한 꿈을 가진 상태에서 서로 만난다. 미아는 배우가 되고 싶어 하고, 세바스찬은 재즈 클럽을 열고자 한다. 둘의 목표는 후반부에 가서 이루어지지만, 정작 둘의 마지막 모습은 잃어버린 꿈이자 둘의 일상을 되찾고자 하는 모습이다.

처음 도입부, 고속도로에서 펼쳐지는 뮤지컬 씬 부터 미아가 클럽에서 해고당하는 세바스찬을 만나는 부분까지 영화는 그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며, 그들이 '라라랜드'에 오게 된 목적을 관객들이 알게끔 한다. 각자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들의 열정은 환상적인 연출로 그려진다.

그들이 서로에게 이끌렸던 건 꿈을 향한 열정에 기인한다. 미아와 세바스찬이 파티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때부터 미아가 일하는 카페에서 재회해 라이트하우스 카페에서 헤어지게 되는 순간까지, 그들은 서로의 모습에서 각자의 초상을 보게 되고, 그 초상에 이끌려 사랑하게 된다. 미아는 세바스찬을, 세바스찬은 미아를, 자신의 열망이 구체화돼서 현실에서 현현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들은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앞서 그들이 서로의 동일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그들의 관계 속에서 미아와 세바스찬은 서로의 꿈을 돕고 같이 미래를 도모한다. <이유 없는 반항>을 같이 보다가, 영화 필름이 나가고, 둘이 같이 영화 속 장소인 천문대로 가는 순간부터, 그들은 같은 미래를, 말하자면 꿈을 향해 달려간다. 은하수 속에서 춤을 추고 키스를 하는 장면은, 그러한 꿈이 현실이 될 것임을 굳게 믿는 두 사람이 나아갈, 나아가야만 하는 방향을 선명하게 그려낸다. 여름이 되어, 언젠가 세바스찬이 운영하게 될 클럽 이름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는 장면까지 이는 지속된다.



미아가 엄마와 전화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부터, 그들은 내면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미아가 엄마에게 '그이는 언젠가 클럽을 만들 것이며, 저축하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세바스찬의 표정이 잠깐 굳어진다. 이는 그가 꿈을 이루기 위해 현실과 타협할 것임을, 키이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메신저스'에서 키보디스트로 활동할 것임을 암시한다. 세바스찬이 진짜 재즈를 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했음을 공연장에서 보게 된 미아는 가을이 지나고 그와 반목하며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잖아! 사람들이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이끌리는 건, 바로 그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하기 때문이야!"

얼마간 미아의 자기고백이었던 이 말은 곧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게 된다. 서로의 모습에서 각자의 초상을, 순수한 열정을 보았던 그 둘은 이제 현실과 꿈이 대립한다는 것을 서로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세바스찬은 자신이 맞는 길로 가는 것인지 미아를 통해 고민하게 되고, 미아는 변해버린 세바스찬의 모습을 매개하여 배우라는 길이 자신의 길이 맞는지에 대해 회의하게 된다. 기대감에 가득 차 일인극을 준비하던 미아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없고,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미아의 모습만 남게 된다. 세바스찬은 까먹었던 촬영 일정을 소화해야 했기에 미아의 공연에 참여하지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미아는 무대 뒤에서 관객들의 악평을 듣게 된다. 서로의 열정에서 꿈을 보았던 그 둘은, 이제 현실에 의해 무너지고 변해버린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꿈이 희미해졌음을 보게 된다. 미아가 고향으로 떠날 때 서로에 대한 반목은 절정을 맞이한다.

동거하던 집에 혼자 남아 있던 세바스찬이 유명한 캐스팅 디렉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미아의 일인극으로부터 감명을 받았다고 캐스팅 오디션을 제의하는 씬에서 다시 새로운 전개가 나타난다. 다가갈수록 희미해지는 꿈의 속박으로부터 미아가 넋더리가 났을 때, 세바스찬은 그녀를 다시 찾아가서 다시 한 번만 도전해보라고 설득 내지 강요한다. 미아는 첫 보기에는 거절하려는 눈치였지만, 세바스찬의 권유에 의해, 또는 희미해진 꿈을 다시금 잡아보려고 고쳐먹은 다짐에 의해 오디션장으로 가게 된다.

그녀는 오디션장으로, 그녀가 여태 수많은 실패를 겪어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간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해보라는 말에 미아는 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망대 근처 테라스로 나와서 세바스찬과 이야기한다. 그들이 꿈을 향해 가는 건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두 평행선 위를 나란히 달리지 않는다. 서로 같은 곳을 향해, 서로의 열정을 응원하며 가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다.

5년 후 겨울이 되었을 때, 세바스찬은 자신만의 재즈 클럽을 열었고, 미아는 대배우가 되어 있었다. 각자의 길을 철저히 걸었던 그들은, 서로 우연히 만났을 때, 그들이 정말 바랬던 것, 말하자면 두 사람이 나아가지 못했지만, 나아갔어야만 했을 방향을 선명하게 그려낸다. 영화는 이 부분에서 꿈에 대한 서로의 내면적인 갈등과 사랑에 대한 외면적인 갈등이 마치 섞이듯 교차되지 않던 나선의 마지막 부분, 진정한 결말, 풀려져야만 하는 환상을 보여준다. 그들이 원했던 꿈은 마지막 5분의 짧은 절정에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현실로 돌아간다.

4.

<라라랜드>는 축약해서 말하자면,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겪는 절정이 4 번 들어있다. 처음 도입부에 미아가 파티에서, 세바스찬이 피아노 앞에서 자신들의 꿈을 갈망하는 장면, 둘이 만나서 은하수 속에서 춤을 추고 키스를 하는 장면, 세바스찬이 미아에게 강요 내지 권유한 오디션에서 미아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5분. 이 장면들은 모두 환상적인 연출로 그려져 있다.

내가 일부러 아크 플롯보다 미니 플롯에 강조점을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외면적으로 볼 때 이 영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고민하며 현실에 적응하는, 사랑에 실패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랑 이야기를 감싸는 건 그들에게 있는 내면적인 고민, 뮤지컬적으로 표현된 4 번의 굴곡이며, 이 영화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이 현실과 환상의 타협 없는 갈등을 풀어내는 영화의 표현적인 부분에 있다.

영화는 일정하게 꿈이 현실을 잊게끔 하고 꿈에 더 가까워지게 하는 순간마다, 꿈의 환상성을 강조하려는 듯 과장되고 아름다운 영화적 표현을 사용한다. 기승전결이 다소간 일정하게 처리되는 사랑의 플롯에 영화는 그 주위를 걷도는 듯 이 환상성을 가미하지만, 결국 결말부에 가서 이 환상성은 다시 사랑의 플롯을 완성도 있게끔 끝맺게 한다. 내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다. 마지막 5 분이 없었더라면 이 영화는 특별할 수 없었다고 내가 생각하게 된 건, 첫 부분에서 메인 플롯이었던 사랑 이야기가 마지막 5 분에 의해 뒤집히고, 그전까지 서브플롯으로 자리했던 꿈에 대한 이야기, 환상성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 플롯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굳이 이동진 평론가의 이야기를 뒤집어, 메인 플롯을 꿈에 대한 이야기로 두었던 건, 정말히 따져보았을 때 영화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있는 말이다. 이는 당연한데, 마지막 5분 때문에 영화의 메인 플롯이 뒤집어졌다고 한들, 영화 전반이 의도된 것 마냥 뒤집어져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영화의 내용이 마지막 5 분에서 뒤집어진 것처럼 보였다. 내가 보기엔 <라라랜드>라는 영화는 환상이 어떻게 삶을 지배하는지, 비논리적이고 전혀 개연적이지 않은 분절된 사건들의 집합이 어떻게 '삶'이라는 집합에 속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라라랜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단순히 예술가들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상일 것이다.

'라라랜드'라는 이름은 단순히 정말 할리우드만을 지칭하는 것일까? 그렇기에 그들의 꿈은 정말로 예술가들의 이야기이기에 일상적인 삶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열정을 좇는 불나방들에 대한 '평전'이고, 정말로 평전을 읽는 것처럼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에 거리를 두어서 봐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보려고 하는 의도처럼, 삶의 비현실적인 이면들을 상징하는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환상성, 영화가 환상성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다. 영화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5.

우리가 과거를 회고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과거를 다룰까?

미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미아는 어릴 때 이모와 같이 영화를 같이 보고 영화 속 내용을 따라 했던 기억 때문에 여배우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꿈을 가지고 할리우드로 오게 된다. 여러 번 실패를 겪고 좌절하게 될 즈음 미아는 자신의 일인극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는 캐스팅 디렉터의 눈에 들어 오디션을 보게 되고, 결국 미아는 그 일을 계기로 대배우로 성장하게 된다.

회고되는 과거는 다음과 같이, 매우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고 있으며, 모든 사건이 인과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언어를 넘어서, 내가 구사하는 말들을 넘어서 그 이면에서, 그녀의 과거는 정말로 논리적이고 인과적이었을까? 오로지 미래만을 앞두고 있는 그녀에게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던 과거의 그녀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인과적으로 여겨졌을까?

나는 앞서 말했던 알튀세르의 말을 다시 끌어오려고 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것이 우연한 마주침을 통해 역사 속에서 돌발하게 되면, 목적론적 논리에 따라서, 탄생의 논리에 따라서, 이 돌발의 결과를 과거로 투영해 회고적인 방식으로 기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결과를 원인의 자리에다 가져다 놓는 것이지요."

만약 정말로 인과적인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따라서 인과라는 모델을 내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면, 나는 내 주위의 정보들을 통해 미래를 구상하고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반적인 논리에서는 이 모델이 정확한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인과법칙으로 이끌어낸 미래가 틀렸다 한들, 정보를 조합하고 수집하는 능력이 부재했다고 자신을 탓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삶은 이미 정해져있다. 그러나 정말, 정말 그럴까?

사건이 종말부로 갈 때, 또는 해결의 여지로 나아갈 때, 예컨대 미아와 세바스찬의 갈등이 심화되어 미아가 고향으로 내려갈 때, 이런 때 영화에서 환상성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은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라라랜드>가 여타 뮤지컬 영화들과 차이를 보이는 건, 이러한 사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극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건들은 해결될 때 전혀 기쁘거나 슬프다든지 격한 감정을 남기지 않고, 묘한 찝찝함을 남기는데, 환상성에 대한 대비가 여기서 강조된다. 미아와 세바스찬의 '현실'은 이미지 서사의 논리로 만들어져있으며, 이는 우리가 탄생의 논리, 목적론적 논리와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라라랜드>에서 돋보이는 것은, 사건이 우연적인 것에 의해 돌발하는 부분들, 말하자면 새로운 전개나 내적인 상황이 새롭게 돌출되는 부분에서, 오로지 그 부분들은 환상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어떤 우연에 의해서, 아니면 알 수 없는 내면적인 동기에 의해서, 말하자면 미아가 이모에 대해 말하거나 세바스찬이 갑자기 자신만의 '진짜 재즈'를 말하는 부분, 또는 배경음악이 시종일관 즉흥연주였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회적 성공 이후에 우연히 만난 세바스찬과 미아가 눈을 마주했었던 장면. 이들은 서사의 논리에 갇혀 있지만 그 순간순간

짧은 장면마다 새로움이 여기저기서 돌발하여 나타났던 부분들이며, 그 모든 부분들에 음악이 들어 있었고, 춤과 연주가 들어있었다. 말하자면, 환상에 대한 은유가 들어 있었다.

## 6.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환상에 대한 은유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

픽사의 스토리보드 아티스트 엠마 코츠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조언에 대해서 말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언급한 적이 있다. "캐릭터를 사건에 휘말리게 하는 우연은 좋지만, 사건에서 구해주는 우연은 사기다."

환상이라는 토대 위에 설립되는 이야기, 서사 예술에서의 이야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삶의 논리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개연성이라고 부른다.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는 예술은 관객들에게 일말의 설득력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건 정확성과 정밀함이지, 어떤 즉흥적인 착상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따위,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스토리를 구성하는 건, 말하자면 너무 개연적이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현실에 있어서 정말로 대부분의 삶이 개연적인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릴 수 없다. 예술이 현실에 대한 환유이자 내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만화경과도 같은 것일 때, 예술은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징후, 그 흔적을 쫓아가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술이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기 이전에 내적인 완성도를 추구하고 정서의 고조를 관객들에게 이끌어 가야만 한다면, 그러한 예술은 삶의 양상을 정밀하게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어떤 강렬한 환상을 보는 사람에게 선물해 줄 것이다.

<라라랜드>는 기본적으로 완성도 있는 영화이며, 플롯은 촘촘하게 짜여 있고, 화면 속에서 강렬한 환상을 바라보게 되는 관객들은 서서히 감정의 고조를 겪는다. 그러나, 그러한 환상의 이면에선, 영화 내에서 의도적으로 환상이 삶의 우연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에 초점이 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영화적 은유는 정서의 고조 너머로 도약하게 된다. 말하자면, 영화가 예술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징후를 쫓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실제로 영화 속의 미아와 세바스찬이 하려고 하는 목표가 그러한 예술이지만, <라라랜드>라는 영화는 '강렬한 환상'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다. 개개인의 삶 속에서 미시적 돌발의 모습을 완벽히 환상화하는 영화는, 탄생의 논리에 철저히 따르고 있으며, 결국 현실을 잊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로 잊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탄생의 논리에 따라 과거를 재구성하고, 어떤 인과의 논리나 목적론적 사고방식을 통해 인생을 하나의 행로로 정하고 오로지 완벽하게 설정된 세계관으로 인지하게 되는, 삶의 가벼움에 대항해 무거운 이성을 더해가는 우리 모두의 경향에 속에서 정말로 잊힌 것이란 무엇일까? 만약 개개인의 삶이 탄생의 논리에 따라 재구성된다면, 개인 존재의 가벼움은 논리에 따라 철저히 짓눌리게 되고, 따라서 삶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의 삶이 오로지 우연으로만 가득 찬, 비논리적이고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이라면, 오로지 돌발할 뿐, 탄생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라면, 그러한 세계는 참을 수 없이 가볍고 불안하겠지만, 언제나 새롭지 않을까?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삶이 다채로움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지 않을까?

7.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이 돌출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연'이 옹호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할 수 없다. 우연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우연을 다루는 모든 수단은 오로지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이어나갈 뿐이다. 따라서, 이 '말할 수 없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현실의 보이지 않는 징후를 따라가는 예술의 궤적은 그 근본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불안정한 것일 수밖에 없다.

<라라랜드>는 하나의 거대한 대답과,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내가 앞서 이 영화 속에는 아크 플롯과 미니 플롯, 두 가지의 플롯이 혼재해있다고 말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면, 사랑을 주제로 흘러가는 아크 플롯이 결국 현실이라는 커다란 사실을 안받침하고 있으며, 꿈과 열정을 주제로 다루는 미니 플롯이 아크 플롯의 인과적 법칙 속에서 우연으로만 지탱되는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 묘사하고, 서술하며, 질문한다. 다중적인 구조를 띄고 있는 이 영화는 마치 하나의 삶처럼 관객들에게 다가온다.

8.

하인리히 헤르츠는 자신의 물리 이론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동일한 대상들에 대한 다양한 모델들이 가능하며. 이런 모델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다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유 법칙을 암암리에 위배하는 모델은 일절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즉각 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우리의 모든 모델들이 논리적으로 허용 가능할 것을 요청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들은 허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공허한 관계들을 한 번에 모두 피할 수는 없다. 그것들은 모델들 안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모델은 그야말로 모델이기 때문이다. 모델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 낸 것들이고, 따라서 마음이 가진 모델 만들기 양식의 특성들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의 물리 이론, 즉 모델이 정립되기 위한 기초 중 하나로 논리적임을 요구하는 그는 동시에, 그러한 모델 또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역설적으로 서술한다. 그는 논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에 불과하며,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더 정확한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리학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다분히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역사를 내밀하게 들여다볼 때, 헤르츠의 말은 오로지 엄밀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의 학술적인 자세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물리학의 이론들이 첨예하게 부딪혔던 그 현장을 바로 볼 때, 결국 그곳에서의 싸움은 '더 설득력이 있는' 모델들의 싸움이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에게 기대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삶을 완성케 하는 완벽한 법칙의 발견? 아니면 인생 그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게끔 하는, 더 정밀하고 엄격한 시선? 그러나 만약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확정 지을 수 없는 우연 너머의 의미를 알게 하는 인간 이성의 완벽하고 위대한 승리를 과학을 통해 목도할 수 있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현대까지도 유효하다고

여겨지는 헤르츠의 이론은 오히려 역설적이지 않은가? 더하여 물리 이론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모델들의 싸움은 '너무 정밀한' 나머지 핵심을 놓치게 된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데미언 셔젤의 가장 최근 작인 <퍼스트 맨>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된다. 역사의 떠들썩한 거대 이벤트의 걱정과 과학의 발전에 대한 낙관주의적 전망 속에서 한 개인의 내면적인 모습만을 정확하게 짚어내려고 시도하는 <퍼스트 맨>은, <라라랜드>에서 보이는 우연에 의한 환상을 옹호하는, 넓게 보자면 예술의 의미 자체를 옹호하는 그의 시선을 동일하게 보여준다. 삶의 진정한 모습을 다룰 때, 그는 그것이 오직 '간접적인 의사소통'만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하는 듯하다.

키르케고르는 '주관적인 진리'만이 삶의 본 모습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간접적인 의사소통'뿐이라고 말한다. "가장 열정적인 내향성의 전유 과정 속에서 굳게 지속되는 '객관적인 불확실성'". 평생에 걸쳐 열정이 없는 사회를 비판하는 것을 스스로의 임무로 삼았던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의 용어로 말하자면, '주관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열정 속으로의 삶의 전향이자, '객관적인 불확실성'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이 '객관적인 불확실성'은 데미언 셔젤의 <라라랜드>에서 '우연'이자, '환상'으로 표현된다.

## 9.

데미언 셔젤이 <라라랜드>에서 강조점을 찍는 것은, 내면적인 환상이자 우연에 의해 찾아오는 가벼운 순간의 감정들, 찰나의 정념들이다. <라라랜드>에서 나타나는 60년대 할리우드 영화 미장센에 대한 향수는 이를 적극 어필한다. <셸부르의 우산>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영화의 미장센이나, 미아가 <베이비 길들이기>, <카사블랑카>와 같은 영화들을 언급하는 장면, 그리고 <이유 없는 반항>을 미아와 세바스찬이 같이 보고, 그 영화에 나오는 곳을 찾아간다는 이야기 등. 영화는 전체적으로 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또는 여태 영화들이 가져왔던 환상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보여주려고 하며, 동시에 그러한 환상을 서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에, 말하자면 우연에 의한 부분에 정교하게 배치한다.

현실의 징후를 쫓는 예술은 하나의 길이자 안내자로서 제 역할을 할 것이지만, 예술만이 가질 수 있는 환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라랜드>는 이 양립할 수 없는 관계를 엮어내려고 하며, 쉽게 창조해낼 수 없는 외줄타기를, 환상과 현실의 전환을 통해 해내려고 했다. 현실이 비극적 형식을 따라가는 건 그것이 얼마간 무겁게 짓눌리고 있는 사실에 의한, 인과라는 논리에 의한 압박감이 지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면, 우연은, 다시 말해 환상은, 그러한 논리에서 벗어나 가벼움으로 상승하려고 한다.

셀 수 없이 많은 우연으로 가득 들어차있는 삶을 하나의 정형화된 구조로 직조해내는 건 다른 아닌 우리 자신이고, 바로 우리의 사고 작용, 우리가 '논리적으로 허용 가능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에 의해 삶의 비극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실의 이야기이며, 가벼운 우연들을 긍정하고 무거움을 떨쳐버리는 것이 가능한 환상의 세계, '라라랜드'에서는 그것들이 모두 실현된다.

'라라랜드'는 로스앤젤레스의 별명이자,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마지막 5 분, 두 사람이 꿈꿔왔던 환상을 그려내는 장면은 말 그대로, '라라랜드',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이다. 오로지 가벼운 우연으로만 완성되어 있는, 모든 압박과 비극으로부터 벗어난 곳. 영화라는 예술이 언제나 바라보는 있는 곳이 바로 이러한 곳이라고 <라라랜드>는 역설하고자 한다. 그러나 모든 시간 예술이 그러하듯, 언제나 끝이 있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던 라라랜드는 현실, 로스 앤젤레스라는 뜻으로 추락한다. 그러나 피아노 앞에 우두커니 서있는 모습으로 클로즈 아웃되는 세바스찬의 모습은, 언제든지 피아노를 치겠다는 결심을 한 듯해 보인다.

<라라랜드>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기에 잃어버릴 수도 없는 '우연'이라는 것을, 현실에 구속되어 있기에 잊으려고 하지만, 예술가의 삶을 살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잊지 않으려고 하는, 예술에 가닿는 열정을 지닌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논리 바깥에 있는 우연이자, '주관적인 진리', 자신 실존의 의미로만 채워질 수 있는 생동하는 침묵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 영화는 역설하고 있다. 그렇기에, <라라랜드>는 단순히 예술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이면에 '라라랜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로 여겨진다.

#### 10.

사변이지만, 이 영화에 대한 말들을 정리하면서, <라라랜드>가 <멀홀랜드 드라이브>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라라랜드>는 주장하려는 바와 달리, 개연의 논리, 이야기의 논리를 적극 따르고 있기에, 아예 환상으로 빠지려는 양상을 띄지 않는다. 말하자면, 영화가 은유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다분히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멀홀랜드 드라이브>는 <라라랜드>가 주장하는 바를 끝까지 밀고 나간 영화이다. 현실에서 선별된 꿈이 곧 영화라는, 다분히 급진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멀홀랜드 드라이브>는, 오히려 환상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갔기에 볼 수 있는 가벼운 '환상'들의 이질적인 부조리함을 꿰뚫고 있다. 따지고 보면 현실 이면에 존재하는 '라라랜드'가 꼭 놀이동산처럼 아름다울 순 없을 것이다. <멀홀랜드 드라이브>는 이러한 생각을 극에 달하도록 밀어붙인 결과물이며, 어떻게 보면 <라라랜드>와 비슷하지만, 결과물은 정 반대이다.

#### 11.

"언젠가 세상은 영화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원래 들뢰즈가 한 말인데, 정성일 평론가가 가져다 쓰면서 유명해졌다. 들뢰즈는 (정확한 맥락은 알 수 없지만) 이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고 들었다. 반면 정성일 평론가는 이 말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고 한다.

<라라랜드>를 보면서, 이런 영화가 세상이 되면 더 바랄게 없겠다고 생각했다.

## 마틴 스킨세지, 『사일런스』 감상평

이성빈 ----- 65



## 마틴 스클세지, 『사일런스』

철학과 이성빈

### 1. 첫번째 침묵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소설 <최후의 유혹>은 예수라는 인물을 지극히 인간적으로 묘사한 책이다. 여기서 인간적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말하는 신적인 것과 반대되는 말로서, 쉽게 욕망에 휩쓸리고 의지가 나약하여 누군가에게 혹은 절대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본성을 암시한다. 소설 속의 예수는 스스로가 신의 아들임을 의심한다. 그는 로마에 맞서 저항하는 유대인 독립군을 처형시키는 십자가를 만드는 목수이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는 민족을 배신한 '배교자'로 보이는 것이다.

예수는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비난에 '침묵'한다. 그가 침묵하는 이유는 신이 침묵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머릿속에서는 신에 대한 고뇌가 지칠줄 모른다. '독수리의 발톱이 머리를 꺾 움켜잡는 듯한 통증'이 지속된다. 민족의 신뢰를 저버린 자신의 믿음을 신이 받아주는가? 더 나아가 신은 가장 고귀한 영웅으로 추앙받는 독립군이 아닌, 가장 천한 지위를 지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 그의 끝없는 외침은 그가 십자가에 못박히고 최후의 유혹을 받고 그것을 뿌리칠 때까지 계속된다. 결국 그는 모든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고 나아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며 죽는다. 그러나 사실, 신은 단 한 순간도 그에게 물리적 현현이나 응답 따위를 주지 않았다. 신은 언제나 침묵하였다.

### 2. 두번째 침묵

영화 <사일런스>에서 기리시탄들은 매번 탄압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들에게 기도는 신을 향해 소원을 비는 행위이다. 이 땅에서 비록 고통받을지라도 죽음 뒤에는 행복한 내세에 가서 살 수 있기를. 선교사들은 갈등한다. 기독교는 일반 신자들이 생각하는 단순히 소원비는 하급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교리적 가르침은 신자들에게 쉽게 가르쳐줄 수 없다. 신자들이 좌절할 것 같아서, 그들이 신앙을 버릴 것 같아서, 선교사들은 교리적으로 침묵한다. 대신 그들은 신자들의 믿음에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기로 한다.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이 여태껏 이룩해온 선교의 업적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 3. 세번째 침묵

유별난 인물이 등장한다. 키치지로 라는 자는 동포 기리시탄들을 배반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킨 '배교자'이다. 로드리게스 신부 또한 키치지로의 배신때문에 기리시탄을 탄압하는데 앞장서는 이노우에 세력에게 잡히고 만다. 허탈함과 배신감을 느끼는 로드리게스에게 키치지로가 다가와 이렇게 묻는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실까요?’

로드리게스는 대답할 수가 없다.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그의 마음 속에서 들끓는다. 당장이라도 욕이 터져나올 것 같은 입을 겨우 틀어막는데 모든 힘을 쏟아부어 용서라는 단어가 입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는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마치 나의 자존심을 내팽개치면서 감행해야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내 마음을 모두 비우는 것이 ‘사랑’에 가깝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되지 않는다.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 4. 네번째 침묵

배교한 페레이라를 찾아 나선 로드리게스 신부는 결국 그 자신도 스승과 같은 길을 걷게 된다. 예수의 그림을 밟고, 기독교가 틀렸다는 서적을 집필하는 그는 겉보기에 완전히 ‘배교자’이다. ‘배교자’가 된 신부는 그 이후부터 자신의 신앙에 대해 결코 다른 이들 앞에서 고백하지 않는다. 길거리를 지나가면 주위의 일본인들로부터 슬한 조롱을 받는다. 신부는 이기적인 선교에 대한 죄책감, 나약한 인간의 의지와 타협한 뒤 늘어놓는 자기변명을 경험한 후, 그동안 목숨을 걸며 싸워온 자신의 투쟁에 대한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이제 그는 스스로를 선교한다. 어느 누구도 응답해주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스스로에게 신앙의 의미를 되묻는다. 죽는 순간까지 그 물음은 계속될 것이다. 결코 십자가를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이 끌림의 원초적인 힘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나 그 힘은 여전히 침묵한다.

## 시나리오 창작활동 보고

이서영, 「다섯 번 보고 다섯 번 울었다.」-----	68
김혜주, 「옛 꿈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사랑.」-----	76
손병권 -----	84

## 『도로 위에서』

이서영

인도(가난의 길)를 걷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히치하이킹과 닮아 있다.....행운에 대한 믿음과 우연에 기댄 생활. 비난하는 습관 등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다.

<부의 추월차선> 중

#1

쪽 뺨은 도로다. 산과 밭들 사이로 난 도로다. 길 양 옆으로는 전봇대와 나무들이 고르게 심겨져 있다. 그 행렬은 마치 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지평선 너머까지 이어진다. 도로 위를 작은 차 한 대가 달리고 있다. 그 뒷좌석에는 어린 소년이, 운전석에는 그의 엄마가 타고 있다. 여름 방학의 막바지. 할머니·할아버지 댁에서 소년을 데리고 돌아가는 길이다. 흥겨운 음악. 차창 밖으로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들이 스쳐지나간다. 희미하게 소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음악소리 때문에 소년은 듣지 못하고 있다. 갑자기 음악이 끊긴다. 창밖을 보고 있던 소년이 놀라서 고개를 돌린다. 엄마가 라디오를 끈 것이다.

[여자] 대관아! 방금 소나무 봤니?

[소년] 어디? (뒤편의 유리로 바깥을 내다본다)

[여자] 지나갔지 벌써. 번개에 맞았나봐. 큰 가지 하나가 부러진 채로 매달려있더라. 그러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위험한데.

[소년] 그러게.

[여자] 면사무소에 전화라도 해야 하나? 119?

[소년] 에이 119는 오바다.

[여자] 그래, 누가 어련히 신고하겠지. (잠시 침묵) 어? 저것 좀 봐봐. 누가 헬멧을 길 한복판에 버려뒀네.

[소년] 헬멧 어디?(몸과 목을 최대한 내밀어 앞쪽을 본다. 그러나 뒷좌석에 앉아있는데다 키가 작아 도로가 잘 보이지 않는다.)

[여자] (고갯짓을 하며) 저기, 막 지나갔다. 누군진 몰라도 웃기는 사람이네.

[소년] 아 또 못 봤어.

또다시 침묵. 두 사람의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빠르게 주제가 바뀐다.

[여자] 어떡해 불쌍해라

[소년] 왜?

[여자] 고양이가 죽어있네.

[소년] 뭐? 어디?

[여자] 지나갔지.....불쌍해서 어떡하니.

소년은 아직 어리기에 불쌍하다는 마음보다 본적 없는 죽음이 궁금하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소년의 시야는 그가 다가올 것들과 다가온 것들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소년은 할 수 없이 궁금함과 아쉬움, 약간의 짜증을 안고 등받이에 몸을 기대다. 괜스레 옆에 놓여있던 헤드셋을 들고 만지작거린다. 여자는 스스로 어색한 한편 오랜만에 만나는 소년이 어색할까봐 걱정된다. 운전엔 집중을 못한다. 불편하게 몸을 들썩인다. 룸미러로 말없는 소년을 흘깃 쳐다본다.

[여자] .....그거 아빠가 준거니?

[소년] 응.

[여자] 대관이는 좋겠네.....

소년은 대답대신 옆으로 지나가는 풍경으로 시선을 돌린다. 다시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흐른다. 어쩔 수 없는 건지도 모른다. 한 사람은 운전대만을, 한 사람은 그의 뒷모습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 공간으로 인해 두 사람은 단절된다. 물리적 거리는 가깝기에 그 거리감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카메라, 차 밖으로 빠져나와 창 밖에서 소년의 모습을 비춘다. 이어서 달리는 차 전체를 비춘다.

(카메라를 빼면서 줌인하는 기법으로 공간의 단절과 거리감, 왜곡을 표현/영화 현기증참조)

## #2

소년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확확 바뀌고 변화하는 세상을 내다보고 있다. 차가 움직이는 건지 세상이 움직이는 건지 가늠할 수가 없다. 소년은 양 손 엄지와 검지로 네모난 구멍을 만들어 눈을 가져다 댄다. 가까이 있을수록 빠르게 지나가며 멀리 있을수록 흐름이 미미하다. 작은 손 구멍은 그 흐름을 하나씩 분해한다. 가드레일을 보았다가 전봇대를 보았다가 논·밭·집을 보았다가 산을 보았다가 하늘을 본다. 다시 가드레일을 보았다가 전봇대를, 논·밭·집을, 산을, 하늘을 본다. 다시 가드레일, 전봇대, 논·밭·집, 하늘. 가전논밭집하늘. 다시, 다시. 다시! 갑자기 사람 손이 스치듯 지나간다. 소년은 놀라서 뒤를 돌아본다.

[소년] 엄마!!!

## #3

[남자] (친한 척을 한다. 초면이지만 외모평가도 잊지 않는다.)아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히치하이킹이 어렵기로 소문난 나라라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거든요. 그나저나 동안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예쁜 사람들이 마음씨도 곱다더니.

[여자] (무미건조하게, 남자의 활기찬 목소리 톤과 정반대다. 크게 관심 없다는 태도) 뭐, 네. 어디로 가신다고요?

[남자] (사뭇 비장하게)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같다는 사실이 중요하지요! 핫 핫 핫 (가식적인 웃음)

[여자] (헛소리는 무시한다는 가치관을 몸소 보여주듯, 관심과 감정을 절제하며)시내에서 내려

드릴게요.

[남자] (씩씩하고 활기찬 목소리로)넵.

한편 뒷좌석에서 소년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의자 앞쪽에 걸터앉다시피 한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남자를 관찰한다. 남자, 룸미러로 그런 소년을 흘끗 바라본다.

[남자] (한껏 품 잡은 목소리로 거들먹거리며) 꼬마야 이름이 뭐니?

[소년] 현대관이요.

[남자] 현대?(킬킬 웃는다) 네가 들고 있는 건 전혀 현대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턱을 까딱여 헤드셋을 가리키며 말한다.)

소년. 무릎 위의 헤드셋을 잠시 내려다보고 다시 남자를 본다.

[남자] 요즘 누가 헤드셋을 쓰니? 그것도 유선 헤드셋을. (여자를 돌아보며) 제가 삼성 개발자였거든요. 에어팟 따라잡는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소니 헤드셋이라니요.(빙긋 웃으며 어깨를 빼죽인다.) 어쨌든 저 나이면 유행을 좇기 마련인데 신기하네요. (다시 [소년]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네가 사달라고 한 거니?

[소년] 아빠가 쓰시던 건데 저 썼어요.

[남자] 그래? 이왕이면 새걸 사주시지 그랬다니. 국산으로 말이야. 삼성이 괜히 국내 탑 대기업이 아니란다.

소년은 대답하지 않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여자] (화제를 돌린다)삼성에서 일하세요?

[남자] (빙긋웃으며) 다 지난 일이지만요.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네임드 있는 공대생도 아니었고 이과도 아니었습니다. 문과! 그것도 철학과였어요. 프로그래밍에 조금 관심이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쟁쟁한 실력자들을 제치고 절 뽑더라고요.

[여자] 공대생도 아닌데 개발진으로 들어가셨다고요?

[소년] (관심을 보이며)대단한 거예요?

[남자]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그럼! 난 행운아란다. 저 뿐만이 아니라 개발진의 절반이 심리학과, 철학과, 물리학과. 이런 학과였어요. 왜 줄 아세요? 요즘 인공지능 산업이 한창이잖아요? 기업 내부에는 이미 도입 되어 있거든요. 그걸 다루고 개발하려면 공대생들보다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인재, 인문학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가 필요했던 거죠. 덕분에 돈 좀 벌었지요.

[여자] 굉장하네요.

[남자]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맨날 밤새지, 갈구지. 아니, 직원회의 때 일회용 팬티를 비치하자는 안건이 나오는 게 정상인가요? 공대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장

1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코웃음이 나옵니다.

[소년] 회사에 팬티가 왜 필요해요?

[남자] (귀찮지만 나서서 대답해준다는 듯 거만하게) 꼬마야. 집에 가서 속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다는 뜻이야.

소년, 왠지 불쾌해져 얼굴을 찌푸린다. 등받이에 털썩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몸을 기댄다. 팔장을 끼고 기분이 좋지 않음을 온 몸으로 표현한다. 한편 어른들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

[여자] 힘들어서 그만 두신건가요?

[남자] 그렇다기보다는 선임 운이 없었다고 봐야죠. 개 같아서 사업을 차렸답니다. 아, 무슨 사업인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망했거든요. (여전히 유쾌한 목소리다)

[여자] (진심으로)그래도 노력하면 기회가 오겠죠.

[남자]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밖으로 쫓겨난 신세니까요. 당장 차도 없고요. 앓 조심하세요!

여자의 차 앞으로 다른 차가 끼어들어온다.

[남자] 사이드미러 좀 잘 보셔야지요.

[여자] 고마워요 저도 봤어요. 그나저나 그런 말씀하시는 것 치고는 아직 젊어보이시는데요?

[남자] 서른 둘입니다. 삼성에 들어갔을 때는 스물일곱이었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세상이 원래 요지경이니까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력만으로는 부족한 법입니다.

[여자] 실력은 몰라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더라구요. 삼성 경력도 있으시고, 사업도 해보셨으니 충분히 일어서실 수 있을 거예요.

[남자] 글썩요. 이 단조로운 도로처럼,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자의 차가 양 쪽이 논인 작은 길로 접어든다. 길 끝에서 차가 나오는 바람에 잠시 대화가 중단된다.

[남자] 저 차를 먼저 보내야겠는데요? 후진해보시겠어요?

[여자] 죄송하지만 이쪽은 후진해도 댈 데가 없어요. 잠시 기다려보세요, 저분이 비켜주실거예요.

[남자] 에이 여기 충분히 대고도 남습니다.

여자, 차를 약간 움직여보지만 마땅히 댈 만한 곳이 없어 보인다. 고민하는 사이 상대 차가 여자의 차 쪽으로 바짝 붙는다. 여자는 할 수 없이 후진을 한다. 10미터 정도 후진한 뒤에야 한대의 차가 지나갈 공간이 간신히 만들어졌다. 차를 보내고 난 뒤 남자는 의기양양해진다.

[남자] 거 봐요, 제 말 듣기를 잘했지요?

[여자] 그 차가 비키도록 했다면 더 수월했을 거예요.

[남자] 하하 그런 것 같나요? 어쨌거나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덕분에 이런 저런일 많이 겪었지요. 여기서 이리로 나가는 게 맞나요?

[여자] 굴다리 밑으로 가면 큰길이에요

[남자] 제가 이 근방을 잘 아는데 앞으로 직진하는 편이 더 빨랐을 겁니다.

여자, 대답대신 익숙한 길로 진입한다. 굴다리를 지나 차는 다시 큰 길에 합류하는 지점에 멈췄다. 차들이 계속해서 지나간다.

[남자] 아, (아깝다는 듯)지금 들어가시지.

[여자] 아 이 차만 보내고 가려구요.

[남자] (답답하다는 듯) 그냥 좀 가지지.

[여자] 제가 알아서 갈게요.

[남자] 여기 주변이 익숙하지가 않으신가?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셨어요?

[여자] 그건 아닌데 애기 아빠네 부모님 댁에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지금 남편이 거기서 지내고 있거든요

[남자] 그러시구나. 그럼 부인께서는...?

[여자] 수원에 저희 집이 있어요. 애기 방학이 끝나가서 데리고 올라가던 참이에요.

[남자] 아. 그게, 무슨 일 하시는 지 물어본 겁니다.

[여자] (당황한다)

[남자] 아, 곤란한 이야기였다면 죄송합니다.

[여자] 아뇨. 시청에서 일해요.

[남자] 공무원이시구나?

[여자] 음 그건 아니고... (말을 얼버무린다)

남자, 알만 하다는 듯이 차 안을 훑어본다. 소년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고 덩달아 차 안을 둘러본다. 흠이 묻은 채 방치된 바닥, 오래되어 낡은 시트, 좌석등받이나 가림막에 너저분하게 꽃혀있는 명함들, 대출 관련 명함이 대다수다.

[여자] (날카롭게)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에 바닥에 있던 명함을 바라보던 소년, 고개를 번쩍 든다. 남자의 어깨 너머로 다시방(조수석 앞쪽에 달린 서랍, 영어로 글로브박스라고 한다.)이 열려있는 것이 보인다. 남자, 여자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들고 있던 물건을 천천히 내려놓고 양 손을 들어 올린다.

[여자] 지금 뭐하시냐고 물었어요.

[남자] (어깨를 으쓱하며) 그저 궁금했을 뿐입니다.

[여자] 아까 전부터 도가 지나치시네요.



**[남자]**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릴건 없나 살펴본 겁니다. (사람 좋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간다) 제가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해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방면에 지식이 축적되어서 그런지 잠시만 대화를 해봐도 상대방을 파악하는 솜씨가 좀 있지요. 부인의 경우는 운전 솜씨와 운전지식 수준을 보니 면허를 딴 지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네요. 한 1~2년? 그런데 차는 1~2년 된 차가 아니에요. 중고차를 사셨군요? 급히 구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때 차를 사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었나요? 참, 속도 좀 죽이세요. 그러다 정말 사고가 나겠어요.

여자는 말없이 운전한다. 엔진 바퀴수가 올라간다. 차가 10키로는 더 빠르게 도로를 내달린다. 덜컹! 차가 흔들리며 안전 방지턱을 요란하게 넘는다. 아슬아슬하게 걸터앉아 있던 소년은 튀어 오르듯 앞으로 쏠리며 앞좌석 등받이에 이마를 가볍게 박는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남자도 앞으로 쏠렸다가 방아 찰듯 제자리로 돌아온다.

**[소년]** 아야...

**[남자]** (버럭 소리를 지르려다 자신이 얻어 타는 처지임을 기억해낸다. 짐짓 점잖지만 기분 나쁘다는 투로) 아니 방지턱에서는 속도를 죽여야죠!

**[여자]** (쳐다보지도 않은 채 딱딱한 목소리로) 어머, 죄송해서 어찌죠. 택시라도 불러 드릴까요?

**[남자]** (황급하게 손사래를 치며) 아뇨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긴다) 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자]** 어깨를 으쓱할 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는다.

**[남자]** .....잠깐. 이 소리 들리세요?

조그맣게 쇠쇠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여자]** (잠시 귀를 기울인다)...창문이 조금 열려 있나? 대관아, 창문 열었니?

**[소년]** (이마를 문지르며 통명스럽게)아까 에어컨 틀었다고 열지 말라면서.

**[남자]** 아니, 아니! 말했잖아요. 이거 백퍼 펑크난거예요. 아까 방지턱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한숨을 쉬며) 차 좀 세워서 살펴봐야겠는데요? (전방을 살핀다) 아, 저기가 좋겠네요. **[여자]** (어이없다는 듯이) 이봐요. 무슨 소리에요. 저기요? 저기다 세우면 안돼요! 도로 선이 노란 색(도로 선이 노란색일 경우 차를 댈 수 없다)인데 지금!

소년, 도로를 보려고 앞쪽을 기웃거린다. 그러나 소년의 위치에서는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 와중에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남자]** 상황이 급한데다가 오는 차도 없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면 책임지실 겁니까?

**[여자]** 아니, 불법이라니까요? 주정차 금지라고요 여긴. 설령 펑크가 맞다 해도 15분만 더 가면 시내니까 괜찮아요. 대관아, 위험하니까 똑바로 앉아라.

**[남자]** 미치겠네 진짜. 저기요 저기! 저쪽에 세우면 된다고!

[여자] 아니, 진정하세요. 누가 보면 정말 큰일 난 줄 알겠어요!

[남자] 어쩐지 운이 좋다 했더니 운이 아니라 약재잖아! 무슨 일 생기면 다 그쪽 때문인 줄 아세요! 아까 탈 때 보니 타이어도 스노우타이어더만! 한여름에 스노우타이어라니 불안하긴 했지만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여자] 뭐라고요?

[남자] 아니 이 여자가 진짜? 이 차 스노우타이어인 거 몰랐어요? 뭐 이런 차주인이 다 있어! 카센터가면 당장 타이어부터 스포츠 타이어로 바꾸세요. 아시겠어요? (분을 삭히지 못하고 씩씩거리다.) 이런, 스포츠 타이어가 뭔지는 아시는 거 맞죠? 뜨거운 노면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여름용 타이어!

차가 덜컹거린다.

[남자] 으악!! 나 죽네 나죽어!! 운전 좀 똑바로 하시라구요! 좀 가장자리로 붙어서 가세요. 불안하니까. 그... 거, 속도 제발 줄여요!

[여자] (침착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인다) 이봐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건 저예요.

[남자] 네! 저도 똑똑히 압니다! 그게 얼마나 부당한지도요! 엉뚱한 사람 손에 들려있는 것 같아 화가 나네요! 당신 같은 사람이 면허를 따고 자차를 보유할 수 있다니, 개 같은 세상!

[여자] 제 말의 요지는 얻어 타는 주제에 무례하다는 뜻이에요. 계속 이래라저래라 군다면 정비소가 아니라 경찰서에 먼저 가는 수가 있어요!

[남자] 제가 무례하다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구는 건 다 당신 때문이라고요!

[여자] 지금 이 상황이 다 제 탓이라는 거예요?

[남자] 본인이 더 잘 아시겠죠!

[여자] (고개를 핵 돌려 남자를 쳐다본다) 틀렸어요! 나쁜 상황은 나쁜 선택에서 오는 거예요. 왜 선임이 그쪽을 그렇게 갈겼는지 알겠네요! 사업이 왜 망했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실력이 없었던 거겠죠. 제 말이 틀렸나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안 보이니까 가만히 좀 있어요!

차란 사고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의 심정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법이다. 여자가 평정을 잃자, 차체는 보란 듯이 중앙선을 넘는다.

[남자] 아이 씨, 앞 좀 보면서 운전하세요! 여기 애도 타고 있잖아! 당신 애 아니야?

[여자] 그러는 그쪽은 택시 부를 돈도 없는 거지잖아! 이건 내 차고! 당장 내려요.

[남자] 하, 내가 없으면 운이 없지,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요? 예의가 없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정말 예의가 없었다면... (룸미러로 소년을 훑듯 바라본다)가족사를 더 캐물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차는 으르렁거리며 거의 멈출 듯이 속력을 낮춘다. 그와 동시에 여자가 소리친다.

**[여자]** 내 차에서 당장 내리라니까? 아니, 아니다. 당신 같은 사람 데려가라고 경찰서가 있는 거지. 절대 못 멈추니 그리 아세요!

다시 속력을 올린 차 안에서 고성어 오고 간다. 싸움이 격해질수록 차 안은 점점 넓어지고 길쭉해지고 희미해지더니 소년이 앉아있는 의자를 남겨둔 채 어떤 집의 거실로 전환된다. 카메라는 소년의 뒷모습을 비춘다. 소년은 가만히 앉아 아빠와 엄마가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카메라, 소년의 손을 줌 인한다. 소년의 손에는 낡은 헤드셋이 들려있다. 천천히 카메라, 줌 아웃한다.

다시 차 안이다. 카메라, 소년을 시작으로 원을 그리며 차 안의 상황을 보여준다. 여전히 여자와 남자가 싸우고 있다. 차를 한바퀴 돈 카메라가 다시 소년을 비춘다. 소년은 작게 한숨을 내쉬는다. 안전벨트를 풀고 뒷좌석에 길게 드러눕는다. 다리를 곧 채, 천장을 바라보며 편하게 눕는다. 헤드셋을 쓴다. 흥겨운 음악. 소년은 만족스럽게 눈을 감고 음악 속으로 빠져든다. 쪽 뺨은 도로 위에서 차 한 대가 달리고 있다.

## 『25일의 회전목마』

김혜주

### #S1. 프롤로그(화면)

할일:

24일

(커다란 글씨로) 상복공원가기(꽃다발!)

25일

1. 알바 면접보기
2. 친구 만나기
3. 방 청소하기

페이드 아웃으로 서서히 사라진다.

### #S2. 준우의 자취방 - 아침

아이유의 팔레트 같은 음악이 흐른다(초침 소리). 그리고 같이 들리는 매미 소리.

원룸으로 보이는 자취방에는 휴대용 탁자가 펼쳐져 있고 탁자 위, 그 주변으로 어지럽게 책, 수건, 컵들이 쌓여있다.

그 중 클로즈업 되는 책장 위 가족사진이 있는 탁상 액자.

반대편에 살짝 마른 감이 있지만 여전히 생기 있는 꽃다발.

창문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준우(21). 그리고 줌아웃하며 생기는 타이틀.

핸드폰 알람이 울린다. 8월 25일 9:00 A.M.

잠시 잠을 깨는 듯 뒤척이더니 알람을 꺼버리고 다시 자세를 잡는 준우.

그렇게 누워있는가 하더니 벌떡 일어난다.

준우 (얕은 자세로 마른 세수를 하며)아씨, 눈부셔. 커튼을 하나 살 걸.

짜증어린 눈으로 창문을 바라보는 준우. 관자놀이를 꺾꺾 누르며 아침 준비를 위해 일어난다.

**#S3. 화장실**

세수하는 컷.

**#S4. 부엌**

후라이팬 위에 계란을 톡, 깬다. 약한 불로 반숙을 만드는 준우.

CUT TO-

밥위에 반숙을 올리고, 간장과 참기름을 뿌리는 준우. 꽤 빠른 속도로 먹어치운다.  
다 먹고 앉아서 멍때리는 준우. 전화가 온다.

준우 어, 상원아.

상원 뭐하는 중이야?

준우 아니. 그냥 있었어.

상원 오늘 카페에서 5시에 만나기로 한 거 맞지?

준우 (고개를 끄덕이고)어어, 오후 5시.

상원 으응, 그때 봐

준우 (말을 길게 늘이며)어어.

**#S5. 화장실**

양치하는 컷.

**#S6. 준우의 자취방**

머리를 탈탈 털며 나오는 준우. 옷도 어느새 갈아입었다. 깔끔한 티셔츠에 슬랙스.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니 면접까지는 시간이 남았다. 침대에 털썩 앉더니 마음 놓고 핸드폰을 하는 준우. 서서히 잠전.

잠깐 잠든 준우. 시간을 보더니 가슴을 쓸어내리며 밖으로 나서려고 하다, 돌아와 마스크를 끼고 나간다.

**#S7. 알바 일터**

알바 면접을 보는 준우. 마주앉아 얘기를 하다 인사를 하고 밖을 나선다.

덤덤한 표정으로 나오는 준우.

**#S8. 카페 안**

카페 안에 앉아있는 준우. 카페 안 스피커를 통해 음악이 나오고 있고 상원이 준우를 향해 걸어온다.

상원 (반갑게)오랜만이다~

준우 (반가운 기색으로)그러게. 이게 얼마만이지?

상원 종강할 때 봤으니까 한 달만? 야, 시간표는 짚어?

준우 대충 짜긴 했는데, 뭐 성공하는게 문제지.

상원 (웃으며)그건 그래. 너 전공은 뭐 듣는데? 겹치는 건 없나?

준우 나 4개 정도인데. 잠깐만.(휴대폰을 키며) 한 번 볼게.

상원 (핸드폰을 꺼내며) 내 것도!

시간표를 서로 보는 둘.

준우 오, 월 공강? 괜찮네. 이렇게만 되면 진짜 꿀빨겠다.

상원 (너스레를 떨며)되면, 되면~ 그나저나 요즘 뭐하고 지냈어?

준우 (머뭇거리다가)그냥, 뭐 그렇지. 평소랑 똑같아.

카페 안에서 얘기를 나누는 둘이 건물 밖 창 너머로 보인다. 꽤 어두워진 하늘을 향해 시선이 이동되며 서서히 암전.

**#S9. 준우의 자취방 - 아침**

핸드폰 알람이 울린다. 8월 26일 9:00 A.M.

겨우 일어난 준우는 비몽사몽 핸드폰을 바라본다. 8월 25일 9:00 A.M.

픽 누워버린 준우는 다시 자세를 잡는가 싶다가 벌떡 일어난다.

준우 (앉은 자세로 마른 세수를 하며)아씨, 눈부셔. 커튼을 하나 살 걸.

짜증어린 눈으로 창문을 바라보는 준우. 관자놀이를 꺾꺾 누르며 아침 준비를 위해 일어선다.

**#S10. 화장실**

세수하는 컷.

**#S11. 부엌**

후라이팬 위에 계란을 톡, 깬다. 약한 불로 반숙을 만드는 준우.

CUT TO-

밥위에 반숙을 올리고, 간장과 참기름을 뿌리는 준우. 꽤 빠른 속도로 먹어치운다.  
다 먹고 앉아서 멍때리는 준우. 전화가 온다.

준우 어, 상원아.

상원 뭐하는 중이야?

준우 아니. 그냥 있었어.

상원 오늘 카페에서 5시에 만나기로 한 거 맞지?

준우 (고개를 끄덕이고)어어, 오후 5시.

상원 으응, 그때 봐

준우 (말을 길게 늘이며)어어.

**#S12. 화장실**

양치하는 컷.

**#S13. 준우의 자취방**

머리를 탈탈 털며 나오는 준우. 옷도 어느새 갈아입었다. 깔끔한 티셔츠에 슬랙스.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니 면접까지는 시간이 남았다. 침대에 털썩 앉더니 마음 놓고 핸드폰을 하는 준우. 서서히 잠전.

잠깐 잠든 준우. 시간을 보더니 가슴을 쓸어내리며 밖으로 나서려고 하다, 돌아와 마스크를 끼고 나간다.

**#S14. 알바 일터**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과 마주앉아 얘기를 하다 인사를 하고 밖을 나선다.

덤덤한 표정으로 나오는 준우.

**#S15. 카페 안**

카페 안에 앉아있는 준우. 카페 안 스피커를 통해 음악이 나오고 있고 상원이 준우를 향해 걸어온다.

상원 (반갑게)오랜만이다~

준우 (반가운 기색으로)그러게. 이게 얼마만이지?

상원 마지막이 기말칠 때였나? 그나저나 요즘 뭐하고 지냈어?

준우 (머뭇거리다가 말꼬리를 올린다)그냥, 뭐 그렇지...? 응?

준우는 어디선가 이 상황이 익숙하다. 두근거리는 효과음. 준우는 굳은 채로 겨우 고개만 돌리며 눈치를 살핀다. 왜 그러냐는 듯 바라보는 상원. 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연다. 갑작스럽게 정적과 함께 암전된다.

**#S16. 준우의 자취방 - 아침**

핸드폰 알람이 울린다. 8월 26일 9:00 A.M.

겨우 일어난 준우는 비몽사몽 핸드폰을 바라본다. 8월 25일 9:00 A.M.

픽 누워버린 준우는 다시 자세를 잡는가 싶다가 벌떡 일어난다.

준우 (앉은 자세로 마른 세수를 하며)아씨, 눈부셔. 커튼을 하나 살 걸.

짜증어린 눈으로 창문을 바라보는 준우. 관자놀이를 꺾꺾 누르며 아침 준비를 위해 일어선다.

**#S17. 화장실**

세수하는 것.

**#S18. 부엌**

후라이팬 위에 계란을 톡, 깬다. 약한 불로 반숙을 만드는 준우.

CUT T0-

밥위에 반숙을 올리고, 간장과 참기름을 뿌리는 준우. 꽤 빠른 속도로 먹어치운다.

다 먹고 앉아서 멍때리는 준우. 전화가 온다.

준우 어, 상원아.

상원 뭐하는 중이야?

준우 아니. 그냥 있었어.



2020학년도 송실대학교 철학과 초성제

상원 오늘 카페에서 5시에 만나기로 한 거 맞지?

준우 (고개를 끄덕이고)어어, 오후 5시.

상원 으응, 그때 봐

준우 (말을 길게 늘이며)어어.

### #S19. 화장실

양치하는 컷.

### #S20. 준우의 자취방

머리를 탈탈 털며 나오는 준우. 옷도 어느새 갈아입었다. 마스크를 쓰고 밖을 나서는 준우.

### #S21. 알바 일터

문으로 들어서는 준우. 사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놀란다. 나셔서 준우를 보러가는 사장.

사장 (당황스러운 표정으로)아니 학생, 우리 알바 이미 뽑았어.

준우 네?

기묘한 음악이 흐른다. 또 다시 암전.

### #S22. 준우의 자취방 - 아침

핸드폰 알람이 울린다. 8월 27일 9:00 A.M.

겨우 일어난 준우는 비몽사몽 핸드폰을 바라본다. 8월 25일 9:00 A.M.

픽 누워버린 준우는 다시 자세를 잡는가 싶다가 별떡 일어난다.

준우 (앉은 자세로 마른 세수를 하며)아씨, 눈부셔. 커튼을 하나 살 걸.

짜증어린 눈으로 창문을 바라보는 준우. 관자놀이를 꺾꺾 누르며 아침 준비를 위해 일어선다.

### #S23. 화장실

세수하는 컷.

### #S24. 부엌

후라이팬 위에 계란을 톡, 깬다. 약한 불로 반숙을 만드는 준우.

CUT TO-

밥위에 반숙을 올리고, 간장과 참기름을 뿌리는 준우. 꽤 빠른 속도로 먹어치운다.

다 먹고 앉아서 멍때리는 준우. 전화가 온다. 전화를 받으려다 준우는 책상 위 쌓여있던 책을

2020학년도 송실대학교 철학과 초성제

떨어뜨린다. 열린 중간에 있던 앨범. 앨범을 바라보는 준우. 그리고 다시 전화를 받기 위해 누군지 확인한다. 발신인 상원.

상원 어, 여보세요?

준우 응.

상원 지금 뭐하는 중이야?

준우 어?

또 다시 암전. 조명이 꺼지는 효과음.

이전에 들렸던 기묘한 음악이 다음 날이 지나도 계속해 들린다. 기묘한 음악은 서서히 커진다.

(인터스텔라의 first step)

### #S22. 준우의 자취방 - 아침

핸드폰 알람이 울린다. 8월 28일 9:00 A.M.

겨우 일어난 준우는 비몽사몽 핸드폰을 바라본다. 8월 25일 9:00 A.M.

픽 누워버린 준우는 다시 자세를 잡는가 싶다가 벌떡 일어난다.

준우 (앉은 자세로 마른 세수를 하며)아씨, 눈부셔.

마른 세수를 하다 굳은 준우. 다시 암전.

### #S23. 준우의 자취방 - 아침

핸드폰 알람이 울린다. 8월 29일 9:00 A.M.

잠시 잠을 깨는 듯 뒤척이더니 알람을 끄는 준우.

다시 암전.

### #S24. 준우의 자취방 - 아침

핸드폰 알람이 울린다. 8월 30일 9:00 A.M.

다시 암전.

점점 암전되는 속도가 빨라진다.

계속해서 빨라지다 검은 화면. 이명과 같은 삐 소리.

그리고 점점 커지는 쿵쿵대는 효과음.

### #S25. 준우의 자취방 - 오후

2020학년도 송실대학교 철학과 초성제

쿵쿵대는 소리와 함께 눈을 뜬 준우.

상원 (걱정되는 목소리로)준우야! 안에 있어?

소리가 들리는 곳을 멍하니 바라보는 준우. 이미 시들어진 꽃다발을 바라보는 모습.  
일어나 문고리를 돌린다.

상원 (갑자기 열린 문에 놀라며)지금 일어난 거야?

준우 어, 어.

상원 (안심하는 투로)난 또, 개강했는데 강의에 출석을 안 하길래.... 연락도 안 받고.

준우 (당황하면서)어, 어.

상원 (침묵하다)무슨 일 있었어?

준우 (머뭇거리다 말을 고르며)어... 나도 몰랐는데, 요즘 조금 힘들었나봐.

상원 (살짝 웃으며)그게 무슨 소리야.

준우 (같이 웃는다)잠깐 들어올래? 세워두긴 그렇고, 나도 풀이...(머리를 매만진다)

같이 들어오는 상원과 준우. 상원은 살짝 둘러보더니 탁자쪽에 앉는다.

준우 (조금 민망한 기색으로)집이 좀 더러워.

상원 (손을 내저으며 웃는다)내가 갑자기 왔는데 뭘. 일단 씻어.

준우가 옷가지를 들다 멈춘다. 가족사진을 바라보는 준우. 소중한 듯 매만지다 꽃다발을 슬쩍 본다. 그리곤 다시 들어가는 준우의 모습. 그제야 더 둘러보는 상원은 열려있는 앨범을 발견한다.

상원 (혼잣말로)가족앨범인가?

넘겨보려던 그때, 준우가 뺨뾰 다시 나온다.

준우 (조금 큰 소리로)상원아, 근데 오늘 몇 일이야?

상원 (놀라서 앨범을 닫으며)오늘? 9월 3일.

준우 (살짝 병진 상태로)그렇구나.

준우는 핸드폰을 본다. 화면에 9월 3일이 보인다. 준우는 괜히 날짜가 적힌 화면을 손가락으로 매만진다. 다시 8월 25일이 보인다. 화면은 준우만을 비춘다. 잘못 본 듯 눈을 비비는 준우. 다시 음악이 흐른다.

## 시놉시스

### 손병권

어느 비오는 날, 은희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남편이 제주도로 급하게 출장을 갔다는 메모와 함께 사라져 있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손목에 있던 시계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발견한다. 시계에는 30시간이 남아 있다. 은희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든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하지만, 남편은 헛소리로 치부하고 전화를 끊는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걸 보는 은희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

은희는 지하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걸려고 해보지만, 평소에 밖엘 자주 나가지 않았던 탓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보험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보험사는 오늘 날씨 때문에 침수된 차량이 많아서 못 도와드릴 것 같다는 얘기를 듣는다. 집에 돌아온 은희는 비가 엄청나게 오는 창밖을 보고, 마침 뉴스에서 배와 비행기를 포함한 장거리 교통편이 내일 모레까지 전부 마비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 은희는 집에 홀로 남아, 언니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건다. 언니는 남편을 생각해서 정신을 좀 차리라고 하는데, 은희는 이걸 이상하게 받아들인다. 새로운 남편을 만들면 된다고.

은희는 학창 시절에 자신을 좋아했었던 사람을 생각해내고, 그에게 연락을 건다. 경황 없이 전화 했음에도 그는 은희가 자신을 그녀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에 응한다. 은희는 그 사람이 오기까지, 어색하지만 진심을 다해, 말하자면 살기 위해 준비한다.

약속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은 오지 않는다. 은희는 망연자실한다. 그때, 뉴스에서 내일 아침 교통편 마비가 풀릴 것이고 오늘 자정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하는 걸 듣는다. 은희는 딜레마에 빠진다. 지금 준비하면 다시 남편을 보러 갈 수 있다.

은희는 비행기를 타려고 나가려는 중에, 아파트의 첫 문 앞에서 그가 서있는 걸 본다. 은희는 천천히 문을 연다. 그 사람이 비에 온통 젖어있다. 은희는 그 사람을 돌려보내려고 하고, 그 사람은 은희의 그런 태도에 역정을 내고, 핏김에 결혼 생활에 대한 공격을 한다. 은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진다. 현관문이 닫힌다.

은희는 꿈을 꾸다. 은희는 바닷가에 있다. 그녀는 남편을 찾으러 다니지만, 남편이 보이지 않는다. 뭔가 그녀를 바닷속으로 이끈다. 그녀는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 불편하긴 커녕 오히려 그녀는 바다 안에서 편안해한다. 물에서 남편이 그녀를 부르지만, 그녀는 바다 속으로 천천히 들어간다. 은희는 식탁에서 잠을 깬다. 밖에는 비가 더 오고 있고, 뉴스에선 다시 교통편이 마비되었다고 전한다. 전화가 7통이 와있었는데, 언니가 걱정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문 열어달라는 얘기였다.

은희는 언니랑 실없는 얘기를 한다. 은희는 괜히 기분이 풀리면서, 시계 소리를 잊게 된다. 은희는 언니에게 죽기 전엔 뭘 하고 싶냐면서, 자기는 바다로 가고 싶다고 말한다. 언니는 '그럼 가면 되잖아?' 라고 말한다. 은희는 뭔가 홀린듯, 집을 나가, 아파트 문 앞으로 간다. 문을 나가면서, 은희의 시계가 멈춘다.

## 배경 이야기 및 의도

손병권

### 타인 의존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

여자의 가상 수명시계는 자신의 손목 위에 디지털화 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작중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2일 남았다

왜 수명시계가 있나? - 여자의 상상이니까

왜 수명시계가 흘러가나? - 여자가 남자랑 같이 안 있으니까

왜 하필 수명인가? - 여자는 아프다. 따라서 자신의 병약함으로부터 생긴 피해망상일 가능성이 높다

어디가 아픈가? - 모른다. 병원에 가려고 하질 않는다. 추정 상 알코올의존증 때문에 생긴 심신미약

왜 알코올의존증을 겪었는가? - 유산했다. 그 이후로... 작중 시작 시점까지 아이가 없다

왜 아이가 없는가? - 그날 이후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

언제부터 수명시계가 생겼는가? -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차 뒤 트렁크에 짐을 싣다가 쓰러졌다. 그걸 발견한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식이 돌아오고 난 후부터 수명시계가 생겼다. 이때부터 자신의 팔에 생긴 시계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간호사나 의사에게 물어봐도 그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무슨 시계요?' 등의 반응을 할 뿐이었다. 의문은 더 커졌지만, 별일 아니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 사라지겠거니 바라기만 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병원 침상에 혼자 잠에 깨어서 누워있었는데 (그 경험 당시 독실을 사용했다) 의사가 들어오더니 (여자 자신은 의사가 들어온 것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다. 그냥 움직일 수가 없었다 - 작가의 입장에서선 가위에 눌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신의 손목을 들어 올리곤, 들고 온 진단서에다가 뭔가를 적고 병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가서, 남자(남편)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더니 남자가 병실 밖에서 곡을 했다. 여자는 자신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기에 극렬한 무력감을 느꼈다 - 이 때의 충격은 그녀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 되어버린다.

그 경험 이후로 여자는 자신의 손목에 달린 시계가 자신의 수명시계라고 느끼고 여자는 의사가 자신에게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저 방치하고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녀가 겪었던 그 경험은 정말 있었던 일인가? - 아니다. 남편은 매일 그녀를 찾아오지만, 출근하기 전 이른 아침과 늦은 밤에만 그녀를 찾아오고 밤 12시가 되면 집으로 간다. 그도 내일 아침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집에서 잠을 자야만 한다.

그녀가 6인실을 사용했을 때 그는 이를 정도 그녀 옆에서 같이 밤을 새며 있어줬지만, 이러한 생활이 그의 회사업무에 큰 무리가 갔기에 그녀에게 동의를 구해서 그녀를 독실로 옮겨달라고 부탁하고 (돈이 꽤 들었다) 남자는 그렇게 하여 매일 밤 집으로 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새벽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인데, 남자가 그때 있었을 리가 없다.

왜 그녀는 의사가 자신을 방치하고 있다고 판단했는가? - 그녀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보호자(남편)하고만 이야기 했으니까.

그러나 이는 얼마간 그녀의 행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인데 의사는 그녀가 가상의 손목시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하는 것과 (알코올 의존증으로부터 비롯된) 높은 간 수치로 인해 그녀가 알코올 금단 섬망(환각)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는 얼마간 사실이다) 그래서 그녀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 그녀는 의사가 자신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를 인정하면 자신이 곧 죽을 걸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나 오로지 그녀의 입장에서 의사가 자신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은 무시하기 힘들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그녀는 자신의 (가상)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부정한다. 그래서 그녀는 의사가 자신을 살릴 수 있음에도 치료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는 그녀가 후에 병원을 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 - 의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에 기인하여 여자는 의사와 병원 자체를 불신하여, 병원을 나가려고 한다.

그녀는 병원을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 병원에 있는 지 5일 째 되던날 저녁 그녀는 그녀를 진료하려고 온 의사를 보고, 경멸에 휩싸여 병원에서 나가기 위해 난동을 부린다. 당연히 의사와 간호사는 그녀를 말리려고 한다. 회사에 있었던 남편은 병원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긴급히 온다. 남자에게 여자는 '이 사람들이 날 치료하지 않아, 죽이려고 해'라는 말을 한다.

의사는 그녀를 퇴원시켜서는 안된다고 항변하지만,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던간에 여자가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집에 가려고 한다. 의사와 간호사가 말리지만 소용이 없다. 이 때 그녀는 자신의 손목시계가 멈춘 것을 확인하고, '이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만 나는 살 수가 있구나' 하고 판단내린다.

(그러나 실상은 거꾸로다. 병원에서 탈출했기에, 그녀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수명시계가 멈춘 것이다)

그 이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 - 남자는 그 일을 지옥같은 일로 생각하며, 여자에 대해 자신이 지켜야만 한다는 강박증을 갖는다. 여자는 그 일을 백마 탄 왕자님이 구출해준 것으로 환상화시켜, 이를 통해 자신의 아픔을 가리려고 하고 따라서 그 사람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의존증이 생긴다 (유산 트라우마로 인해 원래 있었던 의존증이 강화되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두게 된다.

남자는 여자를 환자처럼 대한다. 여자는 남자를 (이상적인) 의사처럼 대한다.

(이러한 배경이 서사 상 중요하게 작동하는가? 등장은 하는가? - 여자가 언니와 2일째 밤이 되어서 서로 얘기를 할 때 년지시 드러낼 것이다. 서로간의 얘기와 회상 장면을 통해 그러나 이것이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며, 그렇기에 꼭 등장할 필요는 없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주일 뒤, 이야기가 시작된다.

여자의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여자가 생존을 희망한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표면적/외면적 갈등이 좌절되면서, 여자 자신의 내면적/무의식적인, 존립에 대한 희망이 발견된다

## <2020년 초성제 최우수 논문>

### 「자유의지 담론에 기반한 칸트의 자유론 분석」

20140465 박 세 웅

#### 목 차

1. 머리말	87
2. 칸트의 자유의지	88
2.1. 초월적 자유	88
2.2. 의지의 자유	91
3. 자유의지 담론	93
3.1. 양립불가능론에서 자유론	94
3.2. 양립가능론	95
3.3. 추가적 논쟁	96
4. 자유의지 담론에서의 칸트	97
5. 맺음말	100



## 1. 머리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아마도 그는 철학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가 중 하나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선형적 종합판단의 가능성을 규명하여 근대철학의 개념들을 종합·발전시켰고, 전통 형이상학을 비판하여 그 주제들을 앎의 대상으로부터 도덕적 요청의 대상으로 마땅히 옮겨 놓았다. 그의 철학에 대한 이러한 평판은 너무나 잘 알려진 것이어서, 더이상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이를 매개로 칸트의 철학을 분석 및 재평가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free will)'이다. 그러면 왜 하필 자유의지인가? 자유 혹은 자유의지는 칸트에게 있어서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는가?

첫째, 칸트의 철학은 사상사적으로 유럽 계몽주의 시대에 속한다. 따라서 칸트의 철학은 도그마에 대한 비판과 보편적 이성의 발견이라고 하는 계몽사상의 맥락과 크게 맞닿아 있다. 이와 같은 계몽사상은 "칸트에게서는 모든 독단적 철학에 대한 비판과 이성의 궁극적 근거의 발견으로 귀착된다. 이런 비판과 발견의 원리는 이율배반과 자기입법(Selbstgesetzgebung)으로서의 자유에 있다."<sup>1</sup> 이처럼 칸트에게 있어서 자유의 이념은 그의 철학이 성립할 수 있었던 당시의 시대정신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철학을 재구성해보는 것은, 계몽사상의 완결판이라 알려진 그것의 진면목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핀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자유의지는 칸트가 자신의 도덕 철학을 전개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예컨대 그는 『실천이성비판』에서 인간의 의지를 자유로운 의지로 규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다고 함은, 칸트 본인이 스스로 밝힌 바, 인간의 의식 자체가 본질적으로 자유롭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한다. 칸트는 이러한 사실을 『순수이성비판』에서 최종적으로 정당화하는데, 이는 특히 '제3이율배반'<sup>2</sup>을 논리적으로 극복하려는 시도 속에서 자세히 나타난다. 이처럼 칸트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개념이 가지는 의미를 중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것을 파악하는 일에 깊이 천착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자신의 저서에서 해명한 자유 혹은 자유의지가 과연 철학적 담론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어떤 의의와 한계를 지니는지 논해보는 것도, 그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재음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sup>1</sup> 오프리트 회페, 이상현 역, 『임마누엘 칸트』, 문예출판사, 2014, p. 12.

<sup>2</sup> 네 가지 "순수 이성의 이율배반"들 중 세 번째 것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다.

있겠다.

이에 본 논문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거치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칸트가 인간 의식의 "초월적 자유"를 근거로 하여 인간 "의지의 자유"를 긍정했다는 사실과, 그 개념들이 등장하게 된 각각의 경위들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러한 칸트의 자유의지론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될 철학적 담론에 대해 예비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글의 후반부에서도 밝히겠지만, 본 논문에서 논의되는 자유의지 담론의 내용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 다음 4장에서는, 3장에서 마련된 자유의지 담론을 틀로써 칸트의 자유의지론을 집중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규정지를 것인지에 대해 논하겠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칸트 철학이 가지는 의의와 그 한계점에 관한 재평가를 서술하며 글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

또한 전체 맥락을 소개하는 것과는 별개로, 다음의 사족을 덧붙이고 싶다. 본 논문을 작성하는 데에 참고한 양질의 문헌들은 필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에는 분명 오해나 오류 등 조악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발견이 된다면, 이는 모두 필자의 부족함 때문이다.

## 2. 칸트의 자유의지

### 2.1. 초월적 자유

『순수이성비판』에 등장하는 '초월적 변증학'의 내용에 따르면, 이성(이성)은 지성의 개념들을 보편화하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보편화 작용은 지성의 개념들을 그것들보다 더욱 보편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시켜 바라보려고 하는, 이성의 자연스러운 특성이다. 이때 이성은 그러한 보편화 작용의 연쇄를 거쳐, 더이상 경험에서 그 대상을 찾아볼 수 없는 최종의 원리를 만들어 내는데, 칸트는 이를 "무제약자(Unbedingtes)" 혹은 "초월적 이념"이라 칭한다.

그런데 이러한 초월적 이념들은 칸트 이전의 형이상학에서 오로지 이성의 사용에 의존하여 다루지던 사변적인 문제들이었다. 여기에는 예컨대 '세계'나 '영혼', '신'에 관한 주제가 속해 있었다.<sup>3</sup> 칸트의 비판에 따르면 그것들은 "인식을 위해 구성적 기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경험을 가능하게 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들은 규제적

---

<sup>3</sup> 각 주제들에 기존의 형이상학들이 대응한다. "이성적 우주론"은 '세계'에 관하여, "이성적 심리학(영혼론)"은 '영혼'에 관하여, "초월적 신학"은 '신'에 관하여 다루었다.

의미를 갖는다."<sup>4</sup> 다시 말해 전체가 아닌 특수만을 경험하는 인간의 인식 체계에 있어서, 이성(이성)은 특수들을 다시 전체로 통일하고 그 의미를 한정한다. 그러나 전체 자체가 형이상학의 탐구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 이성의 부산물이긴 하지만,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월적 이념들은 칸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상(Schein)"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증거가 불가능한 것들이다.

초월적 이념들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칸트는 그것이 이성의 자기모순 사태를 빚는다고 지적한다. 즉 동일한 이성을 근거로 하는 두 가지 상반된 명제(정립과 반정립)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현상을 총 네 가지의 이율배반(Antinomie)들로 정리한다.<sup>5</sup> 이때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단연코 '자유'와 관련한 제3이율배반인데, "자유 인과성 여부는 윤리학의 사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유가 없다면 인간의 책임과 의무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sup>6</sup> 즉 제3이율배반에서 자유의 이념이 "구출"되어야만 도덕의 정초가 가능했던 것이다.

칸트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독특하게도 존재의 영역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함으로써 해결하려 했다. 이에 따르면 제3이율배반의 정립과 반정립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들은 "예지계"<sup>7</sup>와 "현상계"(감성계<sup>8</sup> 내지 경험계)에 있어서 각자가 타당한 점이 있다. 그런데 칸트가 여기서 예지계와 현상계를 구분하게 된 데에는 제1이율배반에서 그가 수행한, 시공간에 관한 통찰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이 제1이율배반은 '세계는 유한하다'는 정립과 '세계는 무한하다'는 반정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1) 만약 정립을 따르자면 세계는 시공간으로 구성되고, 시공간이라는 것은 무한한 소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세계는 유한한 시공간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세계의

---

<sup>4</sup> 오토프리트 회페, 위의 책, p. 164.

<sup>5</sup> 각각의 이율배반들에 있어서 나타나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제1이율배반: 세계는 유한한가, 아니면 무한한가? 제2이율배반: 세계 내의 사물들을 구성하는 단순한 부분들은 실존하는가, 아니면 합성된 실체만이 존재하는가? 제3이율배반: 자유는 존재하는가, 아니면 자연필연성만이 존재하는가? 제4이율배반: 단적으로 필연적인 존재자는 실존하는가?

<sup>6</sup> 박종식, 「칸트의 제3이율배반과 선험적 자유」, 『철학연구』 제106집, 대한철학회, 2008, p. 109.

<sup>7</sup> 곧, "물자체(Ding an sich)"의 영역을 말한다.

<sup>8</sup> "칸트에게서 감성계란 단지 우리의 감성의 대상일 뿐인 세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지성에 의해 사유됨으로써 우리에게 '인식되는' 세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감성계는 경험계라고도 말해지며, 지성의 사유의 대상으로서 현상계라고도 불린다. 즉 그것은 감성에 의해 주어진 내용에 지성이 본래 지니고 있는 형식적 원리로서의 '범주(Kategorie)'를 적용함으로써 구성된 '이론적 인식'의 세계이다." 사카베 메구미 외 7인, 이신철 역, 『칸트사전』, 도서출판b, 2009, p. 280.

한계는 존재해야만 한다. (2)한편 반정립을 따르자면 논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즉 세계가 유한한 시공간으로 구성된다면, 그 유한한 시공간은 무언가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그것들이 놓여 있을 "빈 시간"과 "빈 공간"은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세계의 한계는 존재하지 않아야만 한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 이에 대한 칸트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시공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성의 선험적 형식일 뿐이다. 시간이라는 형식은 감성이 수용한 내용들을 선행과 후행의 순서대로 배열하고, 공간이라는 형식은 그것들을 다시금 상하좌우의 틀로써 배치한다. 바로 '초월적 감성학'의 내용이다. 그러면 이러한 시공간으로 구성된 제1이율배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세계는 "인간의 직관형식에 의해 시공간적으로 전개된"<sup>9</sup> 하나의 현상이다. 따라서 제1이율배반의 정립과 반정립은 세계를 현상으로서 경험하는 인간의 의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모두 거짓이다.

그런데 세계라는 존재의 가능 조건이 이처럼 인간의 경험에서 찾아진다면, 그러한 인간의 경험은 또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칸트는 인간이 자연필연성에 얽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세계를 자유롭게 조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것은 칸트가 제시하는 제3이율배반의 내용이다. 이 제3이율배반은 '자유는 존재한다'는 정립과 '자연필연성만이 존재한다'는 반정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1)만약 정립을 따르자면 논리는 다음과 같다. 자연필연성만이 존재한다면 어떠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는 과정이 무한대로 퇴행하게 된다. 그러나 전체 인과성의 계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인과성에서부터 벗어나 있으면서도 그것의 시작을 가능케하는 '자유'가 있어야만 한다. (2)한편 반정립을 따르자면 논리는 다음과 같다. 무언가가 자연필연성의 인과성에서부터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원인도 없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자유'는 존재할 수 없고 자연필연성만이 존재한다.

이때 위에서 언급했듯이, 칸트는 이 문제를 자유가 존재하는 영역과 자연필연성이 존재하는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해결한다. 즉 정립은 예지계의 영역에서 타당한 주장이고, 반정립은 현상계의 영역에서 타당한 주장이다. 비록 현상계는 자연필연성의 원리만으로 작동하지만, 자유는 현상계 자체가 존재하기 위한 가능 조건이다. 그런데 제1이율배반의 내용과 관련하여, 여기서의 현상계란 인간이 시공간의 형식에 따라

---

<sup>9</sup> 한자경, 『칸트 철학에의 초대』, 서광사, 2006, p. 90.

경험하는 바로 그 '세계'를 말한다. 따라서 자유라는 것은 곧 인간이 세계를 하나의 현상으로 경험하기 위한 가능 조건, 다시 말해 인간 의식 자체의 "초월적 자유"를 의미하게 된다.

## 2.2. 의지의 자유

칸트는 인간을 행위에 대한 실천적 판단에 있어서 양면성을 지니는 존재인 것으로 파악한다. 『실천이성비판』의 내용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필연성에 의한 욕망과 감정에 얽매어 있음과 동시에, 그 자신의 이성으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원리로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때 인간의 이성이 발휘하는 힘은 다른 아닌 "의욕 하는 능력(das Vermögen zu wollen)"<sup>10</sup>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실천 이성"이라 한다. 인간의 실천 이성은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도덕 법칙을 자율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인간에게는 "도덕 법칙을 자기 행위의 준칙으로 받아들이는 능력"<sup>11</sup>이 있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의무의 형식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적인 욕망을 따르는 어떠한 가언적인 조건도 포함하지 않는 행위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타인의 인격을 목적으로서 대해야 한다'는 법칙은 무(無)조건적이다. 이와 같은 법칙을 따른다는 말은 곧 이 행위를 선택한 이유에 있어서 일체의 사적인 경향성을 배제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하다. 이것이 칸트가 설명하는 인간 '의지'의 특징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법칙 아래 구속하여 그 원리를 따르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의지는 타율이 아닌 "자율(Autonomie)"이다. 타율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 이성적 존재자로서 인간이 아닌 다른 자연적 존재자, 즉 짐승들이 가지는 의지나 어울리는 속성이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분명 인간에게도 동물적인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어떻게 인간은 정언 명령으로서의 도덕 법칙을 지향할 수 있는가?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짐승으로부터 인간을 차별화하는가? 칸트는 이 모든 문제들과 관련하여, 『실천이성비판』의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적는다.

이 능력[역주: 곧, 순수 실천이성 능력]과 더불어 초월적 자유도 바야흐로 확립된다. 다른 아닌, 사변 이성이 인과 결합의 계열에서 무조건[제약]자를 생각하고자 할 때 불가피하게 빠지는 이율배반에 대항하여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인과성 개념의 사용에서 필요로 했던

<sup>10</sup> 오프리트 회페, 앞의 책, p. 210.

<sup>11</sup> 백종현, 『칸트와 헤겔의 철학』, 아카넷, 2017, p. 253.

바로 그 절대적 의미에서의 초월적 자유가 말이다.<sup>12</sup>

"의지의 자유"가 가능한 것은 앞서 논의한 제3이율배반으로부터 추출된 '자유', 즉 인간 이성의 초월적 자유 때문이다. 인간은 현상계에 속하는 동시에 예지계에 속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경험하나,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인식한다. 그런데 이는 인식론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의미에서도 동일하다. 인간은 현상계에 속한 존재로서 자연필연적인 충동 및 본능, 감정들에 의해 흔들리곤 한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지계에 속한 존재로서, 그것들을 전부 끊어내 버리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의무로서 지향할 수 있다. 칸트는 그러한 인간의 의지를, 자연적 인과법칙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경험세계의 한 사건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다음의 문구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의지의 규정 근거로서 법칙의 순전한 형식이라는 표상은 자연에서 인과 법칙에 따르는 사건들의 모든 규정 근거들과는 구별된다. (...) 그러한 독립성은 그러나 가장 엄밀한, 다시 말해 초월적 의미에서 자유라 일컫는다. 그러므로 준칙의 순전한 법칙 수립적 형식이 오로지 법칙으로 쓰일 수 있는 의지는 자유 의지이다.<sup>13</sup>

인간의 의지는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법칙 아래 구속하는 자율성을 가진다. 여기서 '스스로'라고 함은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때의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 그것은 현상계에 속하는 '나', 즉 경험적인 자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인 자아로서의 '나'는 타율의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차라리 예지계에 속하는 자아이다. 자율적인 인간 의지가 '나'로부터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때의 '나'는 예지계에 속하는, 순수 이성으로서의 '나'이다. 이러한 자아는 현상계로부터 독립하여, 현상 자체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초월적으로 자유롭다. 또한 그 자아의 의지는 한낱 동물에 불과한 '나의' 도덕적 행위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자유롭다. 이처럼 칸트에게 있어서 "의지의 자유"는 "초월적 자유"에 근거하고 있다.

칸트에게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도덕적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도덕적임을 보아 우리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로, 또이 인격성을 갖추고 있으며 마땅히 목적 자체로 대해야 할 존재로 이해한다. 이에 더불어, 칸트가 말하는 인간의

<sup>12</sup>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실천이성비판』, 아카넷, 2019, pp. 111-112.

<sup>13</sup> 임마누엘 칸트, 위의 책, p. 148.

자유의지는 곧 인간이 택하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 원천이 된다. 이러한 자유의지에는 인간 외부의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들도 그 자발적인 인과성에 있어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 결국 칸트가 말하는 자유의지는, 자연 내에 존재하는 물리화학적 인과성 그리고 심지어는 경험적인 심리 인과성으로부터도 벗어난 상태인 채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후에 수행할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3. 자유의지 담론

이상으로 살펴 본 칸트의 자유의지론을 분석하기에 앞서, 어떠한 틀로써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비교적 공통점과 쟁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근대철학의 자유의지 담론을 분석의 틀로 가져오려 한다. 다만 이 내용은 각 이론들을 대표하는 철학자와 그들의 주장들에 대해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 이론들이 기반하고 있는 핵심적인 논리에 대해 다루는 것에 국한된다. 더욱이 여기서 사용되는 '자유'의 의미는 정치적인 자유(liberty)도, 종교적인 자유의지도 아니다. 이는 인과성(causality)의 문제와 관련해서만 발생하는, 순전히 논리적인 의제이다. 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자유의지에 관한 논의는 선(善, good)이 무엇인지에 관한 탐구와 더불어 특히 도덕적인 행위나 책임과 관련된 담론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sup>14</sup> 때문에 철학사에 있어서 자유의지에 대한 옹호와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이 논쟁들은 하나의 대화의 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자유의지와 관련한 기존의 담론은 결정론(determinism)과 자유론(libertarianism)의 진영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자유의지의 존재 유무 자체와 관련한 논쟁이었다. 그런데 근대 시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이러한 주제는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만약 자유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정론적인 세계관과 과연 공존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양립가능론(compatibilism)이라 한다. 이 입장에 있어서 결정론과 자유론의 주장은 상충하지 않고 서로 조화될 수 있다. 양립가능론은 자연과학의 획기적인 발전과 성과 위에서도 인간의 자유가 성립 가능함을 보이려 했던, 많은 근대 철학자들이<sup>15</sup> 선택한 이론이다. 물론 현대에 와서도 적잖은 철학자들이 이와 유사한 이유로 양립가능론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결정론이나 자유론

<sup>14</sup> 안건훈, 『자유 의지와 결정론』, 집문당, 2006, p. 30.

<sup>15</sup> 예컨대 홉스(T. Hobbes)와 로크(J. Locke), 흄(D. Hume) 등이 있다.

각자만을 주장하는 이론을 통틀어서 양립불가능론(incompatibilism)이라 한다. 이 입장에 있어서 결정론과 자유론의 주장은 서로 모순되어 공존할 수 없다. 물론 양자의 주장은 양립가능론 내에서도 전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립가능론과 대립 구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논의에 있어서는 양립불가능론에 해당하는 자유론과 양립가능론을 살펴 보고자 한다.

### 3.1. 양립불가능론에서 자유론

기본적으로 자유론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고,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미래들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 즉 나에게 가능한 모든 미래 사건들로 통하는 경로들은 결국 모두 나에게로 최종 소급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가능한 모든 미래들과 행위들, 그리고 그 선택의 출발점은 바로 '나'이다. 나의 행위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미래 사건들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이 선택-결과의 연속을 역행하다 보면 결국 나의 '자유지'라고 하는 최초의 출발점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자유론에서 말하는 자유지는 우리의 행위와 그로 인한 미래 사건들이 발생하기 위한,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기초적 원인이다.

이에 따라 자유론은 "인간의 행위는 결정되지도 우연도 아니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양자 택일적인 행위 과정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한 행위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주장한다."<sup>16</sup> 이는 행위자로부터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주장이다. 그런데 만약 결정론의 주장대로, 이러한 인과성이 사실 물리화학적 자연법칙이나 과거의 특정 사건, 혹은 신과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하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내부의 기초적 원인성'이라는 기반은 흔들리게 될 것이며, 더이상 자유론은 자유지를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자유론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자유지 개념과 결정론이 왜 확실하게 상충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어야만 했다. 이렇게 자유론은 양립불가능론을 필요하게 된다.

자유론이 양립불가능론과 관계하는 주된 이유는, 결정론에서 인간 행위의 기초 원인을 우리 내부가 아닌 외부의 통제불가능한 무언가로부터 찾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론의 주장에 대해 자유론은 양립불가능론을 옹호하는 중요한 논증 하나를 제시하여 자신의 이론을 보강한다. 이 논증<sup>17</sup>은 현대 분석철학자 피터 반 인와겐(Peter Van Inwagen)이

---

<sup>16</sup> 안건훈, 위의 책, p. 130.

<sup>17</sup> "If determinism is true, then our acts are the consequences of the laws of nature and events in the remote past. But it is not up to us what went on before we were born, and neither is it up to us what the laws of nature are. Therefore, the consequences of these things (including our present acts) are not up to us." P. Van Inwagen, *An Essay on Free Will*, Clarendon Press



그의 저서 *An Essay on Free Will*에서 정식화한 것으로, 이를 과격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자연 법칙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sup>18</sup> (2)결정론에 따르면, 자연 법칙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한다. (3)그러면 우리의 행위 또한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어야 한다. (4)따라서 결정론에 의거한 자유의지는 있을 수 없으며, 양자는 상충해야만 한다. 이때 이 논증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전제하고 있다. 즉 “인간이 사건 X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없고, 사건 X가 사건 Y를 결정한다면, 인간은 사건 Y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9</sup> 여기서 이 논증을 “결과 논증(Consequence Argument)”이라 하고, 이에 사용된 원칙은 “무기력의 이동 원칙(Transfer of Powerlessness Principle)”이라 한다.

### 3.2. 양립가능론

양립가능론에 따르면, 우리는 굳이 결정론을 부정하지 않고서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양립가능론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바라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과거 사건과 자연 법칙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라면, 우리가 의지하는 바에 따라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양립가능론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 행위와 그로 인한 미래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의지 또한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원인(과거 사건이나 자연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sup>20</sup> 이를테면 양립가능론은 “자유 의지와 화해를 주장하는 결정론”<sup>21</sup>이다.

---

Oxford, 1983, p. 16.

<sup>18</sup> 자연 법칙이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예컨대 우리가 블랙홀이라는 천체 혹은 그와 관련한 현상과 법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때에도, 블랙홀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을 것이다. 또한 물이 100°C에 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을 때에도, 물은 항상 100°C에 끓어 왔다. 이는 명백한 사실로서의 대전제이다.

<sup>19</sup> 우리가 과거 사건이나 자연 법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것들이 결정하는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바가 없어야 한다. 자유론은 이 원칙에 의거한 “결과 논증”으로써 양립불가능론을 지지하고자 한다.

<sup>20</sup> 예를 들어, 우리는 하루의 일과에 있어서 수면 시간을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면 컨트롤이 자유롭게(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수면 자체는 ‘신체에 누적된 물리적 피로와 그로 인한 특정 호르몬의 화학 작용’의 결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sup>21</sup> 안건훈, 앞의 책, p. 171.

양립가능론은 앞서 등장한 "결과 논증"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비판한다. (1)자연 법칙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 (2)결정론에 따르면, 자연 법칙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한다. (3)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 및 수행할 수 있다. (4)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법칙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마저 결정하고 있다. 양립가능론의 이러한 주장은 주로 "무기력의 이동 원칙"에 대한 비판에 집중된 것이다. 사건 X에 대해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없다 하더라도, 인간은 사건 X가 결정하는 사건 Y에 대해서 충분히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 즉 인간이 자연 법칙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인간이 일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로 이어지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자연 법칙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말이다. 따라서 이 논리에 따르면 "무기력의 이동 원칙"은 반박되고, 그에 의거한 "결과 논증"은 부당한 논증이 된다.

한편 이러한 양립가능론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전제한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함은, 우리가 무언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이 해석에 의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예컨대 과거 사건이나 자연 법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바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립가능론에서 자유의지는 '능력'의 문제로 전환된다. 양립가능론에서 우리는 일상적인 행위와 관련해서 바라는 대로 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자유의지를 가진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는 분명 과거 사건이나 자연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 3.3. 추가적 논쟁

자유론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양립가능론의 해석 전제를 비판의 소재로 삼는다. 자유론이 "결과 논증"에서 사용하는 '할 수 있음'의 의미는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함은 우리가 지금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정신적으로 고려해 본다는 말이다. 이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여러 "대안적 가능성들(alternative possibilities)"<sup>22</sup>, 혹은 다르게 행위할(to do otherwise)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유의지가 선택지를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 사건이나 자연 법칙이 개입할 여지는 반드시 없어야만

---

<sup>22</sup> J. M. Fischer 외 3인, *Four Views on Free Will*, Blackwell Publishing, 2007, p. 15.

한다.

따라서 "결과 논증"의 (1)과거 사건과 자연 법칙이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바가 없다고 함은, 그것들이 단순히 우리의 자유의지와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다. 즉 이는 우리가 가지는 능력 유무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저 과거 사건이나 자연 법칙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별개의 인과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과 논증"의 진의를 다음과 같이 파악해볼 수 있다. (1)과거 사건과 자연 법칙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2)결정론이 옳다면 과거 사건과 자연 법칙이 우리 행위를 결정한다. (3)그러면 우리의 행위 또한 우리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 (4)따라서 결정론과 자유의지는 양립불가능하다.

여기서 자유론 측은 자신들이 "결과 논증"에서 사용한 '할 수 있음'의 의미를 양립가능론이 의도적으로 곡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할 수 있음'을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는 능력'으로 해석하는 것은, 애초부터 결정론이 개입 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주장이 양립가능론 측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론 측은 '할 수 있음'의 의미를 '자유의지에 의하여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간주하는데, 여기에는 애초부터 결정론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자유론과 결정론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용어와 의미에 관한 논쟁으로 치달게 된다.

## 4. 자유의지 담론에서의 칸트

해당 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틀로 삼아 칸트의 자유의지론을 분석하려 한다. 이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칸트의 자유의지론이 과연 해당 담론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 논의를 위해 먼저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칸트의 자유의지론은 흔히 양립가능론으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박정하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의 '제3이율배반'에서 자유와 결정론이 최소한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는데, 이런 칸트의 입장을 우리는 '두 세계 양립가능론'이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그러나

---

<sup>23</sup> 박정하, 「칸트 『실천이성비판』, 『철학사상』 별책 제2권 제6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3, p. 78.

이에 대하여 필자는 칸트의 입장을 양립불가능론에 해당하는 자유론으로 규정하려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칸트는 분명 실천적 판단과 관련하여 인간이 양면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양립가능론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경향성에 기반한 준칙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고, 순수 이성에 기반한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타율적일 수도 있고, 자율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칸트가 말하는 '도덕'은 이러한 양자 간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의지의 결단력이 빛을 발하여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도덕성은 분명 자연 세계 내에서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모순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는 의지의 자유 때문이며, 이 자유의지는 순수 이성이 지닌 초월적 자유에 근거한다. 그런데 순수 이성은 개념상 현상계로부터 초월해 있는 것이며, 심지어는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선형적이다. 그러한 초월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아는 자연필연성만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발견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은 분명 자연필연성만이 존재하는 세계에, 경험적인 자아로서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모순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양면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인간 내에서 자유와 결정론이 모순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말과 동일하지 않다. 이는 오히려 인간이 서로 다른 차원의 존재 영역을 가진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이 양면적이라고 하는 칸트의 주장은, 현상계 내의 이성적인 존재로서 인간 존재가 가지는 특징 혹은 모순성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둘째, 칸트의 자유의지가 근거하고 있는 '예지체적 자아(noumenal self)'는 결정론적인 세계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경험적인 자아에 대하여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그러한 자아가 지니고 있는 법칙을 지향하고 그 아래 종속되길 스스로 의지한다는 점에서 자유롭다. 칸트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자유라는 말은 (...) 한 상태를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능력을 뜻한다. 그러므로 자유의 원인성은 자연법칙에 따라서 다시금 그것을 시간상에서 규정한 다른 또 하나의 원인 아래에 종속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는 순수한 초월적 이념으로서, (...) 이 자유의 초월적 이념에 자유의 실천적 개념이 근거해 있고, (...) <sup>24</sup>

여기서 "자유"의 실천적 개념이란 곧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를 말하는데, 칸트에게

---

<sup>24</sup>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순수이성비판』, 아카넷, 2006, pp. 724-725.

있어서 이는 인간 의식의 초월적 자유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그 당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실천적 의미에서 자유란 감성의 충동에 의한 강제로부터 의사의 독립을 말한다. (...) 인간의 의사는 감수적( 感 受 的 ) 의사이기는 하지만, 동물적이지는 않고, 자유롭다. 왜냐하면 감성이 그 활동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는 감성적 충동에 의한 강제로부터 독립하여 자기로부터[스스로] 규정하는 능력이 내재해 있으니 말이다.<sup>25</sup>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여타의 동물들과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 인간은 그들과 다르게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이 자기 외부로부터의 자극에서 벗어나, 이미 자신의 내면에서 자기충족적인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성적 존재가 아닌 동물들은 단순히 자연필연성에 의해,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따라 의지하고 행동한다. 따라서 그들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는 구분된다. 도덕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의지하는 바는 자연 내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경험세계를 초월해 있다. 인간의 도덕성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의식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초월적 자유에 기인한다. 따라서 칸트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인간 존재는 예지체로서의 인간 존재를 말한다. 즉 인간이 도덕적으로 여겨지는 한에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지체적 자아'로서 자유로운 인간 존재와, 결정론적인 세계에서 경험되는 자아로서 인간 존재는, 논리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없다.

셋째, “비록 우리가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자유의지를 요구하지만, 그것은 과학이나 심리학의 용어로서 설명될 수 없다. 자유의지를 해명하기 위해선 우리는 과학적 설명 방식으로는 탐구될 수 없는, 시공간을 벗어난 ‘예지체적 자아’라는 힘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sup>26</sup> 그런데 시공간을 벗어난다는 것은 칸트의 인식론에서 감성의 형식을 벗어난다는 말이다. 즉 예지체적 자아가 바로 물자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물자체로부터 작용하는 힘을 칸트는 자유의지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자유의지는 그 원천상 결정론적인 세계와 조화될 수 없다. 달리 말해 자유의 세계와 결정론의 세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

---

<sup>25</sup> 임마누엘 칸트, 위의 책, p. 725.

<sup>26</sup> “Immanuel Kant said we cannot explain free will in scientific and psychological terms, even though we require it for belief in morality. To account for free will, we have to appeal to the agency of what Kant called a ‘noumenal self’ outside space and time that could not be studied in scientific terms.” J. M. Fischer 외 3인, 위의 책, p. 24.

넷째, 칸트에게 자유의지란 경험적인 자아의 모든 행위를 산출해 내는, 인간에게 속한 궁극적인 원인이다. 또한 자유는 경험적 자아가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위한 선험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면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적 책임의 소지는 매우 명백하게 행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행위자는 과거 사건이나 자연 법칙과 무관한 상태에서, 다양한 선택지 중 특정한 행위 하나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행위자는 우선 자연필연성만으로 작동하는 결정론적 세계에서부터 독립된 상태에 처해 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대안적 가능성들" 중 자신의 행위를 선별해 낸다.

결국 칸트가 말하는 자유의지는 결정론적인 세계 내에서 인간이 가지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면, 인간은 바라는 대로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롭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의지하는 바대로 행하는 것은 인간 이외의 동물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앞서 밝힌 바대로, 칸트에게서 인간의 의지는 다른 동물들의 그것으로부터 차별화된다. 그리고 이 차별화는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모습, 즉 도덕성에 기인한다. 또한 이 도덕성은 도덕 법칙을 자신 행위의 준칙으로 삼는 인간의 특징인데, 이는 순수 정신적인 차원에서 행위를 결정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행위의 인과성은 결정론에서 말해지는 인과성과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칸트의 자유의지론은 자유론이자 양립불가능론이다. 이를 "결과 논증"에 빗대어 말해 보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1)칸트에 따르면 도덕적인 행위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다. (2)그런데 만약 결정론이 옳다면 우리의 행위는 과거 사건이나 자연 법칙에 의한 결과이다. (3)그러면 도덕적인 행위 또한 과거 사건이나 자연 법칙이 결정한 것이 된다. (4)그러므로 칸트의 자유의지와 결정론은 양립할 수 없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선 인간은 의지의 자유를 가진다는 점에서 여타의 동물들과 구별된다. 이때 의지의 자유는 인간 이성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초월적 자유에 근거한다. 따라서 칸트가 주장하는 자유의지는 경험세계를 초월한, 예지체적 자아로서의 인간에게 속한 능력이다. 이러한 칸트의 자유의지론은 독특한 자유론이자, 양립불가능론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자유의지가 바탕으로 삼고 있는 세계관이 논리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두 존재 영역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처럼 칸트가 양립불가능론적 자유론에 속하게 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해진다.

첫째, 칸트의 자유의지론은 현대의 과학주의(Scientism)<sup>27</sup>를 극복할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 과학주의의 입장에 보자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그것은 경험과학적 방법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도 아니거니와, 실험은 오히려 그것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생리학자 벤자민 리벳(Benjamin Libet)은 인간의 뇌파를 측정함으로써 그 존재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킨 바 있다. 리벳의 실험은 다음과 같다. 피실험자는 신체가 완전히 자유로운 조건 하에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즉흥적으로 한 버튼을 누른다. 이때 피실험자가 임의대로 버튼을 누르려 하는 순간, “수천 분의 1초 전에 이미 의사결정과 관련된 뇌영역인 전전두피질이 활동했음”<sup>28</sup>이 관찰된다. 피실험자는 분명 자신이 의식적으로 자유롭게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험 결과 이는 착각이다. 왜냐하면 피실험자의 두뇌가 그 의식보다 순간적으로 앞서서 선택을 미리 결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선택은 두뇌 신경세포의 작용에 의해 결정되어 있으므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실험 결과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옹호하기 위해 양립가능론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해당 피실험자가 가진 자유의지는 ‘버튼을 누르고자 의지하면, 실제로 버튼을 누르는’ 피실험자의 의식적 자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설령 그 의지가 두뇌 신경세포의 활성화에 의해서 생겨난다 할지라도, 피실험자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인간의 선택이 ‘잘 훈련 받은 동물’의 선택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인간이 ‘잘 훈련 받은 동물’이라면, 어떻게 인간이 도덕적일 수 있겠는가? 칸트의 자유의지론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매끄러운 답변을 내 놓는다. 해당 피실험자의 자유의지는 그의 자유로운 이성에 근거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유의지는 관찰되거나 측정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두뇌 신경세포의 작용은 그저 자유의지의 인과성과 무관한, 현상계 내의 자연 법칙일 뿐이다. 그리고 더욱이, “인간 뇌의 물리적 현상 데이터를 근거로 복잡한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응시켜 일반화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sup>29</sup>이다.

<sup>27</sup> "과학을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인식형태로 간주하고 원리적으로는 모든 문제가 과학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태도. 과학지상주의, 과학만능주의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모든 내면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가 자연과학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정밀하게 인식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독단적인 방법론적 자연주의의 주장으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임석진 외 40인, 『철학사전』, 중원문화, 2012, p. 93.

<sup>28</sup> 줄리언 바지니, 서민아 역, 『자유의지: 자유의 가능성 탐구』, 스윙밴드, 2017, p. 47.

<sup>29</sup> 정진우, 「리벳 실험에 대한 칸트적 대응: 인격을 가진 인간」, 『대동철학』 제44집, 대동철학회, 2008, p. 284.

인격과 존엄성을 갖춘 인간의 행위 일반에 대한 원리를 미시 세계의 현상으로 모두 환원시켜 버리는 것은 부당한 설명 방식이다.

둘째, 칸트의 자유의지론은 행위의 귀책성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훌륭한 해답이 되어 줄 수 있다. 칸트는 예지체로서의 인간 의식을 상정하여 결정론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는 물리세계를 초월한 원인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그것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포착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는 현상계에 대하여 본질적인 세계에 존재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선택하든 간에, 그 행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절대적으로 그 누군가에게 직접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은 법적 다툼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그것이 '처벌'과 관련한 상황일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인간의 행위를 그 자신에게 귀책할 필요성을 느끼곤 하는데, 칸트의 이론은 그러한 귀책에 절대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다.

반면 칸트의 자유의지론은 현대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실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 방식이 더욱 보편화되고 권위를 얻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초(超)경험적인 근거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sup>30</sup> 칸트의 말대로, 인간 행위의 “진정한 책임성과 도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론적인 자유의지의 개념은 필요한 것”<sup>31</sup> 인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경험불가능한 무언가로부터 그것을 찾아야 할 마땅한 이유는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것이 설령 우리의 이성이 가지는 초월적인 자유라 할지라도 말이다. 본 논문에서 다룰 수는 없지만, 이는 반드시 더욱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둘째, 칸트는 도덕의 가능성을 위하여 의지의 자유를 설정했다. 그런데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혹은 소극적인 방식으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다. 즉 인간이 너무나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이어야 함'을 기본적인 당위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의 도덕은 개인에게 보편적인 법칙수립자가 되기를 요구한다. 도덕 법칙이 '의무'가 되어, 개인의 준칙이 그 아래 종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 희망은,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개념과, 인간 내면의 법정 역할을 하는 "양심(Gewissen)"이라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예컨대 최근 한국

---

<sup>30</sup> 물론 실험과학의 권위가 그것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가 정도가 곧 진실성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실하지 않은데 과학이 이와 같은 보편적인 권위와 신뢰를 얻기도 힘들지 않느냐는 것이다.

<sup>31</sup> “Even (...) Immanuel Kant, have argued that we need to believe in libertarian free will to make sense of morality and genuine responsibility, (...)” J. M. Fischer 외 3인, 앞의 책, p. 9.



사회를 경악에 빠뜨린 SNS 성 착취 범죄 사건 등을 떠올려 보자. 우리는 그 범죄자들에게 당장의 '이성'이나 '양심'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도 동물의 의지가 아닌 인간의 의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존재할까? 이런 의미에서 칸트는 인간의 역량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낙관주의는 너무나도 동물적인 인간들의 양상에서 '인간성'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라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비롯하는 현실과의 괴리감은 사뭇 지우기가 힘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칸트의 자유론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 종합하자면, 칸트의 철학은 인간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믿음에는 낙관적인 측면과 불가피한 측면이 동시에 있다. 그럼에도 그의 철학이 현재까지 이토록 큰 울림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칸트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인간된 바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항상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

## 참고 문헌

### 1. 단행본

- 백종현, 『칸트와 헤겔의 철학』, 아카넷, 2017.
- 사카베 메구미 외 7인, 『칸트사전』, 이신철 옮김, 도서출판b, 2009.
- 안건훈, 『자유 의지와 결정론』, 집문당, 2006.
- 오프리트 회페, 『임마누엘 칸트』, 이상현 옮김, 문예출판사, 2014.
-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6.
- 임마누엘 칸트, 『실천이성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19.
- 임석진 외 40인, 『철학사전』, 중원문화, 2012.
- 줄리언 바지니, 『자유의지: 자유의 가능성 탐구』, 서민아 옮김, 스윙밴드, 2017.
- 한자경, 『칸트 철학에의 초대』, 서광사, 2006.
- J. M. Fischer 외 3인, *Four Views on Free Will*, Blackwell Publishing, 2007.
- P. Van Inwagen, *An Essay on Free Will*, Clarendon Press Oxford, 1983.

### 2. 학술논문

- 박종식, 「칸트의 제3이율배반과 선행적 자유」, 『철학연구』 제106집, 대한철학회, 2008.
- 정진우, 「리벳 실험에 대한 칸트적 대응: 인격을 가진 인간」, 『대동철학』 제44집, 대동철학회, 2008.
- 박정하, 「칸트 『실천이성비판』」, 『철학사상』 별책 제 2 권 제 6 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3.

## 초성제 학술 공모전 에세이

유명현, 「무지와 악 그리고 철학 -----	106
교수님 소견 -----	110
김세림, 「공자의 덕치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111
교수님 소견 -----	114

## <초성제 학술공모전 에세이>

### 「무지와 악 그리고 철학」

20200209 유명현

흔히 철학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은 '깊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학문', '실용성이 없는 학문'으로 비치는 경우가 있다. 철학을 언뜻 보면, 항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학문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미지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철학과를 오기 전에 나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다. 철학자들의 사상을 배우면서 동시에 이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어떤 철학자들의 사상은 전혀 공감되지 않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철학과에 온 뒤,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철학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철학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이 학문이 어떻게 하면 쉽게 느껴질 수 있는지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철학을 공부하면서 어떠한 문제를 봤을 때, 그것을 나만의 시각이 아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처럼 철학은 한 가지 문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고 또한 다양한 해결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다. 나는 지금까지 철학을 배우면서 들었던 생각 중 1가지에 대해 깊이 서술하고 싶고, 이를 주제로 에세이를 전개해 나가며 철학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싶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라는 것이 있다. 그는 잘못을 의도적으로 저지른 사람이 아예 잘못을 모르고 저지른 사람보다 낫다고 평가한다. 이는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곧 선을 지향하는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무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참된 앎이 시작된다고 말하였다. 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왜 잘못인지 깨달을 수 없다. 그렇기에 선을 행하려면 올바른 앎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무지는 곧 잘못 즉, 악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나는 "무지가 악한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악이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가벼운 의미부터 살인, 폭력과 같은 더 심각한 의미의 악까지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도 악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악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별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각각 사람들은 자신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점으로 악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것이 악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사회가 규정한 법체계는 악을 절대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악에 대해 처벌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 법칙을 정하고,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악은 악이 아닌 것으로 규정짓는다. 이러한 사회 때문에 우리는 종종 악이 절대성을 지닌다고 오해하고, 그 오해가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에 대해 집이 없거나 집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 행위를 악이라고 보고, 투기꾼들을 욕하며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이 많고, 가진 집들이 많은 투기꾼은 이 행동이 뭐가 나쁜지, 그리고 왜 자신들이 처벌받아야 하는지를 모른다. 사회는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사회가 아닌 개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하나로 합치되는 의견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먼저 나는 악은 절대성을 지니기 어렵다는 것을 밝히고 에세이를 전개해 나가겠다.

우리는 어렸을 때 하는 변명으로 “잘 몰라서 그랬어요”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어린이들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쓰레기는 땅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말처럼 도덕에 관해서 배운다. 즉, 이러한 도덕 법칙에 대해서 배우고, 나쁜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나쁜 행동을 왜 하면 안 되는지 배우는 시기가 바로 어릴 때이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사회는 인정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법과 같은 어린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큰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어린 시기를 벗어나 성인이 된 시기에도 무지를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다. 그 사례는 바로 ‘감형’의 형태이다. 우리 사회는 심신 미약의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원래 받아야 하는 처벌에서 감형된 형태로 처벌을 내린다. 결국, 사회는 심신 미약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만드는 무지에 빠진 상태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축소시킨다. 만약, 무지한 것이 악이라면 이와 같은 감형 제도는 과연 옳다고 볼 수 있을까? 아마 무지가 악이라면 감형 제도는 사라지는 것이 맞다. 심신 미약에 대한 감형이 가장 많이 이뤄진 사례는 바로 성범죄일 것이다. 우리가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이고, 감형이 이뤄지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결국 정신적인 질환이나,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매우 미미한 처벌을 받는다. 사회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그 사회 안에서 서로 관계하고 있는 이상, 이 무지로 인한 감형의 모습은 어떤 방법으로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감형의 사례를 보고, 자신도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더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할 것이다. 무지를 이용하면 누구나 사회의 법망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앞세워 변명거리를 얻고, 면죄부를 사려고 한다. 이렇게 무지가 사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무지의 악이 또 다른 악을 낳고, 새로운 악이 나타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이 악들이 무지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새로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만약 술을 마신 상태와 같은 심신 미약이 아닌, 정신적 질환의 상태라면 어떨까? 조울증, 우울증과 같은 상태인 사람들은 자신이 무지해지고 싶어서 그 병에 걸린 것이 아닐 수 있다. 각자 살아온 환경이나 기타 다양한 원인으로 무지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면, 무지는 악으로 곧장 이어지기 어렵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그 상황이 한 개인에게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를 악이라고 봐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발장이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이에 해당한다. 장발장이 살고 있던 사회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시대였다. 사람들은 항상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고, 가게에서 어떤 것이든 훔친다면 바로 처벌을 받는 시대였다. 장발장은 자신의 어린 조카들을 위해 빵 한조각을 훔치고 19년이라는 아주 긴 형벌을 받았다. 장발장의 행동은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장발장이 무지했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그가 빵을 훔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에 벌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무지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그가 살았던 사회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순간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역할을 제공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만약 후자가 맞다면, 무지 자체는 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무지가 아닌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순간의 무지에 빠지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들이 악이라고 규정된다. 이런 그의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는 감형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인 사람들은 사회가 감형의 사유가 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나는 범죄자들의 상황이 어떻든 그들이 악을 저지르면 누군가는 분명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분별적인 감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한 감형은 이뤄져선 안 된다.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는 평생 지속될 것이고, 그들의 피해와 상처를 온전히 존중하지

못한 감형 체계는 그들에게 새로운 상처를 안겨준다. 어떤 의미에서든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범죄들이 사회에 노출되면서, 이것들은 사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악은 내가 행동 했을 때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순간 악이라고 정의된다. 이처럼 감형 또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낳기 때문에 이뤄져선 안 되고, 적어도 성범죄와 관련한 감형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는 교육을 받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고 한다. 루소는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선함과 현명하게 되는 것과 우리의 의무를 실행해 행복해지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무지를 교육으로써 교정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아가려고 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지식으로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배움에도 불구하고 무지의 상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배운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사실 무지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그러하다. 한나 아렌트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보면, 나치당은 그들만 사용하는 상투어(cliche)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이 상투어는 '유대인 학살'을 '최종 해결책'이라고 말했고, '유대인 이주'를 '재정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투어를 사용하면서 홀로코스트에 동참한 사람들은 점점 나치당이 믿고 있는 신념에 동화되었을 것이다. 또한 문화에서도 나타난다. 이슬람권에서 순결이나 정조를 잃은 여성 도는 간통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명예살인은 그 국가에서 당연하게 시행되어 왔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여성들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 문화가 옳은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잘못된 이데올로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사상과 신념이 옳은 것이라고 배워왔고, 평생 옳다고 믿어온 것을 한 번에 깨부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무지에서 벗어나기 힘든 예는, 우리는 무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이종의 무지에 대해 경고했다. 위의 사례와 비슷하게, 우리 인간은 자신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 무지하다. 자신이 다른 것들도 다 정확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보의 홍수라고 불릴 정도로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이다. 예전의 경우에는 정보를 쉽게 접하기 힘들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또한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발전하면서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은 언제나 정보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다량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이 정보들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종의 무지 상태에 빠진다. 사회에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짜뉴스' 일 것이다. 수많은 기사들은 공정성과 정확성을 잃은 채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고, 그것을 읽는 우리는 그 기사의 내용의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맞겠지 하는 생각으로 기사를 보곤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가짜뉴스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무조건 바르다고 착각하게 된다. 특히 정치인과 같은 힘 있는 권력자가 가짜뉴스를 퍼트리도록 선동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더 커다란 문제를 낳는다.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여론을 믿는 사람들의 힘을 얻어 권력을 독점하고 사회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민주주의 사회를 비판했는데, 그 이유는 대중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 의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작된 여론, 가짜뉴스에 선동된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을 갖기 시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즘 나타나

는 무지는 단순히 아예 모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의 무지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이중의 무지처럼 자신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태도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단순하게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가 진정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다. 또한 무조건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무지 그리고 악과 관련한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논의될 수 있는 수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 주제들은 크게 사회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분명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도 포함될 것이다. 내가 살면서 부당하게 느꼈던 것이나, 도덕적인 딜레마가 발생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나는 이 다양한 논의들 속에서 철학은 배제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에세이로 작성한 무지는 악인가에 대한 논의도 철학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일단, 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봐야 하고 무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숙고해봐야 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으로 나타난 사회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더불어 사회 문제들이 개인, 집단,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그 분야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 나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철학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철학들을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같은 것을 찾아내는데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지가 진정한 악인지 생각해보고 자신이 주장하는 의견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봤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현대의 무지에 대한 모습도 탐구해봤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방법도 찾아보았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철학적인 사고를 한 것이다. 철학은 간단히 말하면 인생, 세계 등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며,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철학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주관적일 수 있는 학문이다. 그 이유는 각자 자신이 철학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철학을 난해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철학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질문이 인간이란 무엇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철학이란 무엇인지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 3가지 질문들은 모두 한 번에 쉽게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 외에도 내가 에세이로 쓴 무지란 악인가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에게 제시한다면, 그것도 쉽게 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간은 로봇처럼 획일화된 존재가 아니고, 각자 살아온 삶의 배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철학은 위의 3가지 질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우리 삶과 밀접한 질문에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철학이 실용적이지 않고, 사회와 동떨어져 멀리 관망하는 듯한 자세를 지닌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난해하고 현실적인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철학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철학은 자기 자신의 문제부터 사회의 문제까지 탐구할 수 있게 만들고, 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게 한다. 철학은 우리가 한 문제에 대해 고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친다. 적어도 지금까지 내가 철학과 학생으로서 느낀 철학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철학 이론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철학들이 개인과 사회에 적용되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한층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내가 철학과 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내가 배운 이론에 정체되어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철학이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학문으로 비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아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철학 전공자들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전문적인 지식을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듬어 나가야 한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철학이 모두에게도 좋아할 만한 학문으로 보이길 바란다.

## 교수님의 소견

### 유명현, 「무지와 악 그리고 철학」

악의 상대성을 인식하고 잘 다루었습니다. 다만 정도(degree)의 상대성만을 논의한 것 같아서 다른 차원의 것도 조금 더 생각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악이나 악한 행위(자)가 다르게 규정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예컨대 드라마, 영화, 소설 등에서 어떤 작품에서는 악역이 뚜렷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악역이라고 생각했던 캐릭터의 내면과 배경, 상황에 대한 서술이 드러나면서 서로 다른 여러 인물들이 있을 뿐, 처음 악역이라고 생각했던 캐릭터가 단지 주인공과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맞서는 역할일 뿐, 꼭 악역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현실도 그런 경우 많지 않을까요?

또 법이나 규범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고 더 생각해 봐야 할 해석의 여지가 더 많습니다. "사회가 규정한 법체계는 악을 절대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지만 법을 그렇게 봐야 하는지는 더 이상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누가 보더라도 범죄를 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처벌받지 않는 사례들도 많지요.) 오히려 악을 절대적으로 보는 것은 법 규범이라기 보다 우리의 상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아요.

1 학년 새내기이 뜻뜻한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철학을 실생활에 적용해보겠다는 입장도 바람직해 보이고, 그 입장을 에세이에서 잘 표현했습니다.

동감할 수 있는 주제(무지)를 충분히 수궁할 수 있도록 잘 풀어간 것 같습니다. 논거로 제시한 철학 관련 내용들도 이 글의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공자의 덕치주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20200197 김세림

최근 오 년 동안 ‘숨방망이 처벌’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네이버 국어사전은 ‘숨방망이 처벌’에 대하여 잘못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고 약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가해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의 수준에 비해 가벼운 처사를 내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말이다. 이러한 말은 대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음주로 인한 의사 판단 능력 저하를 빌미로 감형을 받거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나이를 이유로 훈방조치를 받는 상황에 쓰이곤 한다. 근래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의 출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며, 그 처벌 수위에 대해 숨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수면 위로 올라와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민들의 보편적인 법 감정은 응보주의적 관점에 기초한다. 음주를 하여 의사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청소년 역시 아직 성인과 견줄 만한 정상적 사고가 아니며, 반성할 여지가 충분한 어린 나이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은 너무나 처사라는 의견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동감한다. 그러나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 그러한 사실과 별개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응보주의적 관점에는 그와 별개로 공리주의적 관점이 뒤따른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관점은 가벼운 처벌로 인하여 가해자가 사회에 나왔을 경우,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처벌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일례로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말에 안산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이나, 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주변의 CCTV를 증폭하고, 여러 방법 제도를 강화하는 현실적 상황을 들 수 있다. 결국 응보주의적 관점이나, 공리주의적 관점 어느 편에 서서 봐도 국민들은 대개 강력한 처벌로 인한 사회적 안정을 기대한다.

*“정령(政令: 법률)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가지런히 하면 백성이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덕(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 가지런히 하면 부끄러워하고 또한 선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위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공자는 법에 대한 현대의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소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오히려 법률을 통한 강력한 처벌을 주된 도구로 사용하는 통치는 이상적 국가와 괴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써 국가를 통치할 경우, 그 처벌이 행위의 기준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 ‘이것이 도덕적인가?’가 아닌 ‘처벌을 받는 행위인가?’에 관해 묻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처벌을 받지 않는 행위가 도덕적이라는 결론에 귀결되어 잘못된 도덕의식을 낳게 된다. 사람들은 처벌을 면하는 것에만 급급하게 되고, 그것이 설령 부도덕한 행위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안도감에 그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 가령 우리는 사탕을 먹고 싶어 하는 어린 아이에게 마트에서 사탕을 훔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단순히 그 행위는 잘못되었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리고 그 행위를 하면 저기 보이는 무서운 경찰 아저씨에게 잡혀간다는 말을 덧붙인다. 이미 법치국가로 존속하는 사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 소유의 것을 절도하면 안 되는 이유에 그것이 부도덕적이기 때문과 그로 인해 처벌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나란히 들어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자는 법치주의가 아닌 덕치주의, 혹은 인치주의를 강조하였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치주의는 사후적 성격을 띠는 반면, 덕치주의(인치주의)는 사전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법치주의는 그릇된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함으로써 교정한다면, 인치주의는 올바른 행위와 그릇된 행위를 앞으로써 잘못을 행하지 않게 한다. 인용한 구절에서 '덕(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 가지런히 하면 부끄러워하고 또한 선에 이를 것이다.' 부분이 그러한 면을 나타내는 설명이다. 덕을 지닌 지배자가 그 덕으로써 국가를 다스리면 자연스레 백성들은 덕에 대해 알고, 무엇이 덕인지 판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덕을 갖춘 사람은 그릇된 행위를 하는 것에서 오는 부끄러움을 알기에 올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굳이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지 않더라도 덕을 통해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강의를 듣는 내내 공자의 이러한 덕치주의(인치주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생각했었다. 법을 통한 처벌보다 오로지 덕에 기반을 둔 정치는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도 인간이 덕을 통한 다스림을 받을 때 나라가 안정될 만큼 선한 사람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더군다나 현실적인 상황에서 법이 있음에도 발생하는 범죄의 수를 고려하면 법이 없는 사회는 무법자들이 대거 등장할 것 같았다. 사실 범죄를 저지른 대다수의 경우는 자신의 행위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하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 거짓말과 같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사회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법으로써 존속하는 사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고자 법에 대해 인식하고 도덕을 배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각각 바른 생활과 도덕이라는 교과목의 이름으로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를 학습하며, 고등학교 때에는 교칙에 대한 처벌이 존재함으로써 그러한 도덕과 법을 직접 체득하곤 한다. 이렇듯 나는 끊임없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도덕을 배우기에 덕을 안다고 생각했고, 덕을 알면 덕을 행할 것이라는 공자의 주장에 현실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니 또 실현 가능성이 0에 수렴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았다. 상황적 배경은 언제나 그 통치자를 우선시 여겼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 학식이 풍부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한 임금의 경우, 그 통치가 백성들을 향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임금을 부모로 여기고 따르고자 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5 18 민주화 항쟁이나 유대인 학살과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 리더의 덕이 부재하는 지시를 그대로 따른 탓에 수많은 생명이 그 무고한 목숨을 잃었다. 물론 이러한 사례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살피는 것이 수박 겉핥기식의 표면적인 접근에 불과할 수 있으나 분명히 이러한 점이 작용했을 거로 생각한다. 따라서 앞선 사례들을 기반으로 공자의 덕치주의(인치주의)를 검토했을 때, 통치자가 덕으로 다스릴 경우 그로 인해 국가가 안정된다는 주장은 충분히 실현할 수 있어 보였다.

그러나 생각을 거듭한 끝에 현대 사회에서는 공자의 덕치주의 실현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앞서 말한 사례들은 그 주체가 임금과 군 지휘권을 갖는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이라는 막강하고 독점적 권력을 지닌 존재이다. 그와 달리 현대 사회의 경우, 권력이 일원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성격도 과거와 비교해 부족하다. 물론 5 18 민주 항쟁의 경우 대통령이라는 그 주체가 같지만, 민주주의의 진보와 같은 변화된 상황을 근거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노비의 도망, 절도, 당파 싸움으로 인한 유배와 같은 죄목을 지닌 과거와 달리 현대에

는 사기와 절도, 성범죄, 살인 등 그 죄질이 무거워진 것이 사실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성범죄의 경우, 옥구에서 기인한 범죄일뿐더러 3년 이내 재범률이 62%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단순히 덕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만으로는 방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국가는 공동체의 안전과 인륜적 자유를 존재 이유, 즉 국가 이성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법으로 실현할 때 규범 통일체의 성격을 지닌다. 결국 법은 국가의 중대한 특성 중 하나이며, 타자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필연적인 공동체의 삶 속에서 행위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법은 앞서 말한 존재 이유인 안전과 자유를 보장해 주는 하나의 수단 이기에 우리들은 국가에 있어 법이 필연적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안전과 자유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가하는 것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로 첫 단락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응보주의적 관점 혹은 공리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것일 수 있다. 결국 양쪽 모두 행위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주장하기에 이를 다시 말해 보편적 법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덕치주의의 경우 이러한 처벌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에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덕치주의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현대 국가에 있어 덕치주의를 배제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 또한 아니다. 덕이 배제된 법치 국가의 실현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며, 오히려 이는 독재적 권력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덕은 법의 지침으로 작용하여야 하고, 법은 덕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둘은 상호보완적인 태도를 이루어야 한다. 일원적인 동시에 절대적인 권력이 부재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상 행정부의 수반과, 입법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은 덕을 알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국민과 나라를 덕으로 이끌어야 한다. 덕이 기반이 된 운영을 하되, 그러한 덕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거나, 덕의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을 통하여 그를 바로잡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 2항에 따라 민주공화국이다. 국회의원은 우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주는 것일 뿐 우리의 통치자라고 볼 수는 없다. 국민은 본인 스스로 나라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짐으로써 덕을 실현하고, 공자의 비판에 따라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옳은 행위를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공자의 덕치주의가 그 자체로 온전히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강제 규범적 성격을 지니는 실정법이 하나의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는 현대의 국가 속에서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법과 덕이 유기적 관계를 맺어 실현될 때, 공자의 덕치주의가 현대에도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 교수님의 소견-김세림

### 「공자의 덕치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이 글에서는 덕치주의와 함께 법치주의 그리고 후자에 더 가까운 결과를 가질 것으로 해석하는 응보주의, 공리주의 입장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글이지만 각각의 입장에 대해 적절하게 생각한 것이 묻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글이든 다음과 같은 식의 결론은 좀 아쉽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법과 덕이 유기적 관계를 맺어 실현될 때, 공자의 덕치주의가 현대에도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문장이 깔끔하고, 논리 전개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덕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너무 무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자의 덕치주의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본 논문은 고전을 오늘날의 삶에서 조망하는 사고 태도와 연결됩니다. 좋은 자세로 여겨집니다. 평이한 어조로 자신의 주장을 잘 풀어간 것 같습니다.

## 선배들의 전공방향 소개 및 소모임 소개

교직 -----	116
융합전공 -----	119
학군단 -----	121
필라이트 (밴드) -----	122
등산 -----	124
필로그래피 (사진 소모임) -----	126

## 교직 과정

김현성

안녕하세요, 철학과 신입생 여러분. 저는 막 학기 졸업을 앞둔 철학과 김현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마냥 즐거워야할 새내기 시절을 안타깝게도 혼란한 코로나 시국에서 보내게 된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이야기든 얼굴을 마주하면 더욱 재밌게 전할 수 있을 텐데, 서면으로 진행하려니 느낌도 안 살고 아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교직과정에 관한 설명과 제 경험 및 노하우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급하게 학생회장에게 송실대학교 내 교직과정에 관하여 소개를 해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게 되어 부리나케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직 교사도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학부생 입장에서 무언 갈 소개한다는 게 조금은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교직 책자와 인터넷 자료에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 경험과 느낀 점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직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과정'이란 졸업요건을 갖춘 자가 교육부 교직과정 설치 승인을 받은 각 학부 및 학과(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 되어 소정의 과정과 요건을 갖추면 졸업과 동시에 교원자격증을 수여 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본교 교직과정을 통해서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철학과 교직과정을 통해서 '철학'교과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직과정은 '2학년 1학기 혹은 2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직 이수 신청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유세인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 학기 교직과 관련한 공지 사항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책자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철학과에 입학하게 된 동기에는 각자 저 마다의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점을 꼽자면 고등학교 수업 중에 '윤리'과목에 대한 크고 작은 흥미를 다들 느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철학과에 지원한 이유도, 교직과정을 이수하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도 윤리과목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철학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윤리 교사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이 점이 약간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철학과에서 교직을 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교원자격증은 '철학'교과입니다. 따라서 윤리 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철학' 교원자격증은 고등학교 교양 교과에 속해있는 철학, 논리학 과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교양 교과에는 철학·논리학을 제외하고도 진로·보건·교육학·환경·실용경제·미션스쿨의 경우 종교학 등의 여러 과목이 존재하는데, 이 여러 과목 중에서 학교의 재량으로 특정 과목을 선별하여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철학 수업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꼭 가르쳐야 하는 필수 교과가 아닌 교양 교과이고, 개중에서도 파이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철학교사를 따로 선발하기 위한 수요가 매우 적습니다. 국-공립 교사를 선발하는 임용고시에서의 TO는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철학 정교사 임용 TO가 전무하지만, 철학 교과를 가르치는 학교가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통상 사립학교 및 대안학교에 철학 교과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철학 교사가 되는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립학교의 경우 철학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윤리 교과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 교직을 이수하면서 기필코 국-공립학교의 윤리 교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품으셨다면 철학과 4년의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철학적 베이스를 함양하셨고, 철학교직 과정을 통해 교육학 베이스를 함양하셨을 테니 윤리교육대학원을 진학하셔서 '윤리' 교원자격증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철학과 윤리의 학문적 경계가 유의미하지 않으니 적응에 수월하실 겁니다. 또한 본인이 윤리일변도(倫理一邊倒)가 아니고 국-공립 교사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회과나 국어과 등의 다른 과목을 복수전공하여 임용고시를 치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복수전공을 통해 교직과정을 복수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고, 복수전공 과목의 교원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임용을 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테면 경제학과를 복수전공하여 복수교직이수를 진행한다면, '일반사회'교과 교원자격증이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사회교과 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어국문학과를 복수전공 한다면 국어교과의 임용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철학 교직과정의 장점 및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철학 교직과정만의 독특한 특징은 논술교육, 사고력 교육과 같은 조금은 생소하지만 전문적인 분야가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독서의 중요성과 인문적 지식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많아지면서, 논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철학 교직에서는 일례로 교과논리 및 논술 수업에서 학생들의 논술고사 답안을 채점하는 활동, 모범답안을 작성해보는 활동, 논술문제 출제 및 논술 시스템에 대한 수업과 실습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독서토론티도, 논술지도와 같은 분야의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역량은 사교육기관, 교육 관련 기업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교육이 지향해야하는 방향은 어디인가 하는 물음과 맞물려 '사고력 교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철학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확대됩니다. 사고력 교육은 그 특성상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필수로 하고 근래에 들어 배려적 사고까지 요구하는데, 이러한 사고력의 키워드는 철학교육과 궤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교사의 길을 걷지 않더라도, 교직이수는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직 과정에서는 교육학전반에 관한 내용을 학습합니다. 교육학개론·교육철학 및 교육사·교육과정·교육평가·교육방법 및 공학·교육심리·교육사회·교육행정·상담·특수교육학 등등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여러 구체적인 분야를 접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들을 경험해보면서, '교육과정'에 흥미와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면 교육과정평가원에 입사하겠다고 마음먹을 수도 있고, '교육방법'과 '교육공학'에 아이디어가 있다면 에듀테크(edutech) 벤처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와 상담에 관심이 생긴다면 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한 학업을 이어갈 수도 있고, 평가가 흥미롭다면 평가전문가가 되어 정확한 역량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학과 철학으로 인간에 대한 공부다 다져지고, 사람과 시대를 조망하는 역량과 안목·지혜를 기르게 된다면 일반 기업의 'HRD파트'와 같은 직무를 고르는 데에도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은 생을 끝마칠 때 까지도 정답이 없는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봤을 적에 번듯하게 멋진 직업과 모습을 갖는 사람들도 그 나름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진로를 사유하는 내면의 힘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철학과는 통상 공대나 경영대처럼 학과와 직업이 직접적으로 일치되지 않고, 어문학과처럼 특수한 무기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입학 때부터 본인의 진로를 설계해나가야 하는 세계에 던져졌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괴롭겠지만, 건강한 고민들이 치열하게 부딪힐 때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이라고 하는 하나의 길이 철학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를 바라고,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각자가 그리는 진로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 나가는 철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융합 전공

김기문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설계융합전공(DIY융합전공)을 소개를 드리고자 나온 철학 및 아동철학교육융합전공을 하고 있는 김기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친근하고 자세하게 자기설계융합전공을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적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생소할 수 있는 'DIY 자기설계융합전공'(이하 DIY 전공)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DIY 전공은 2017년 개교 120주년을 맞이해 '송실 4.0' 비전을 선포하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융·복합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2017년 1학기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융합전공은 학과 간 결합을 통해 교과목을 지정하거나 신설해 학생들에게 선택하도록 했다면 DIY 전공은 학생이 모든 교과목을 스스로 구성하게 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집니다. 즉, DIY 전공은 하나의 전공에 갇힌 지식이 아닌 학문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융·복합적 지식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에 발맞춰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도적 틀을 깨기 위해 나온 제도입니다. 게다가 교내에서 개설되는 과목뿐만 아니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교류 대학의 교과목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선택 폭을 대폭 넓히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중앙대학교의 유아교육학과에서 많은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여러분은 DIY 전공을 통해 스스로 본인의 희망 진로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이수해보고 싶은 전공 교육과정(관련 교과목 구성 및 이수 트랙 제시)을 설계하여 공모전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평가를 거쳐 그것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DIY 전공 제도는 학생 스스로 교과목을 구성한 커리큘럼이 학교의 승인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융합전공으로 '전공'을 입제하는 것, 다시 말해 송실대학교에서 그 전공을 새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수업'별로 담아서 자신만의 전공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DIY 전공의 장점 중 하나는 학생 본인이 갖추고자 하는 역량을 스스로 설정하고 그에 맞춰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공을 만든 학생뿐만 아니라 송실대 학생이면 누구나 해당 전공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제가 설계한 '아동철학교육융합전공(Teaching philosophy for children)'의 트랙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DIY 전공은 처음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과학철학 △인간 및 사회통섭 △유비쿼터스 의공학 △디자인플래닝 △스포츠 매니지먼트 △IT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융합 전공 등 7개였으나 이후 공모전을 통해 △나노생체시스템 △**아동철학교육** △문화콘텐츠비즈니스 △주거복지도시행정 △네러티브디지털아트 △프레임/사회이슈기획 △메카트로닉스공학 △사회공동체혁신 등 8개 융합전공이 승인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계한 전공의 명칭은 '아동철학교육' 전공입니다. 그에 대한 짹막한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철학과 교직 및 전공교직 그리고 유아교육학을 주축으로 융합전공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이 직관력과 통찰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이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아이들이 철학적 사고를 갖춰 그를 통해 철학적 견해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커리큘럼의 목표입니다.

이러 전반적인 DIY 전공의 장점과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타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도 소속된 대학에 수업이 없다면 들을 수 없지만, DIY 전공은 공유대학플랫폼에 있는 서울 대학들은 학점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 전공의 경우에도 송실대와 인접해 있는 중앙대에서 유아교육학과 수업을 커리큘럼에 포함되었고, 이후 그를 중앙대학교 수업이 전공으로 인정되며 학점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학사로는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없지만 DIY 전공은 내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관심이 있는지를 충분히 알리고 어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장점은 DIY 전공이 지닌 자율성과 효율성입니다. 여러분은 36학점 분량의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그 중 21학점이 본인 전공과 중복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기 진로와 관심사에 걸맞은 수업 위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관심 없는 다른 과목까지 들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특히 듣고 싶은 과목이 3개 이상의 다른 과에 포진돼 있다면 더 유용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심해야할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커리큘럼을 설계할 때 꼼꼼하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커리큘럼을 설정하고 그것이 통과되면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제가 DIY 전공을 설계하며 어려웠던 점은 A+B가 C가 되게하는 것이었습니다. 철학과 유아교육학 수업을 듣는다고 단순히 아동철학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학문이 섞일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수업을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특히, 수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강의명과 커리큘럼만 보고 적합도를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찾아 내용을 들어보는 과정을 거치는 등 '전공 설계 과정' 부분에서 잦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욱이 DIY 전공의 가장 큰 메리트인 타 전공과 타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은 동시에 혼자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때때로 외로운 일하기에 마음에 맞는 친구와 함께 도전을 해본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만의 꿈과 목표가 뚜렷한, 열정적인 후배님들에게 DIY 전공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배우면서 학교를 다니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에 끌려가기 보다는 주도적으로 나의 배움을 선택한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제도인 DIY 전공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학군단

최정훈

안녕하십니까, 송실대학교 136학군단 60기 사관후보생 최정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학생회장 이 아닌 사관후보생으로서, 여러분께 학군단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올해 초에 학군단에서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상황의 연장으로 인해 그러지 못해 이렇게 시간을 내어 1,2학년 학우분들께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군단이란 학생군사교육단을 의미하며, 영어로는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의 약자로 ROTC라고 합니다. 이는 학생인 동시에 군사교육을 받는 과정을 의미하며, 학부 3,4학년 과정을 통해 학기 중에는 군사학 과목을 일반 과목들과 함께 수강하고, 방학 중에는 2번에 걸쳐 군사교육훈련을 받으며 장교 교육을 받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군사교육을 받으며 군의 지원을 받고, 군은 전공 능력을 겸양한 지원자를 모집함으로써 서로의 목적을 충족합니다.

학군단은 3,4학년을 통해 군사학교육을 수강한 뒤, 방학 중 4주씩 2번, 졸업 후 3개월 훈련을 받은 뒤,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임관 후 28개월의 의무 복무 후, 전역하거나 군생활을 이어가곤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출-퇴근 근무로 이뤄집니다.

학군단의 후보생으로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양합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남학우의 경우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단절이 적다는 점입니다. 학군단에 입단할 경우, 대학생활은 방학 중 첫 동계훈련을 제외하곤 끊기지 않으며, 임관 후 군생활 역시 출퇴근이기에 자기개발에 더욱 몰두할 수 있습니다. 군생활은 간부직이기 때문에 7급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보통 전역 후 목돈 마련 및 학비 마련에 힘을 쓰곤 합니다.

또한 사관후보생으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 역시 다양합니다. 사관후보생의 경우 ROTC 장학재단을 통해 매 학기 학군단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단기 복무장교 장려금을 및 매월 교보재비를 지원받습니다. 이 같은 혜택은 바빠지는 3,4학년 생활을 비교적 여유롭게 다닐 수 있는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내 및 국외 전사적지 탐방 지원 및 학군사관 후보생 신분증을 발급해 육군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군단의 지원자격은 1~2학년 남/여학생, 임관일 기준 만20세~27세 이하의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1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수능 성적, 2학년의 경우 직전학기 학점 평점을 확인해 모집합니다. 지원 과정은 3월~4월에 모집요강을 발표한 뒤, 이에 맞춰 지원서를 작성한 뒤,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 3차 체력 인증을 통해 최종 합격에 이릅니다. 자세한 지원 시기 및 모집 요강은 육군학생군사학교를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학군단의 장점은 무엇보다 학교 생활과 동시에 군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 군생활을 직업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전공영역과 연계해 다루면서 사회경험을 쌓고, 자신의 진로를 더욱 면밀하게 탐색할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철학과 소모임 소개-필라이트/등산/필로그라피>

### 필라이트(PHILITE)

김민재



필라이트는 16명으로 구성된 허브(인문대 연합 밴드 동아리) 소속 밴드 소모임입니다. 구성원 내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목표로 합니다. 각자 악기를 배우고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한 악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여럿이 모여서 그리고 악기의 소리를 통해서 소통한다는 점에서 화합을 배우고, 밴드를 통한 즐거움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컬, 일렉기타, 통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키보드가 모여서 정기적으로 합주와 공연을 합니다. 각 합주

나 공연을 위해서 곡 선정을 하게 되는데, 참여인원 모두가 곡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곡을 선정합니다. 주로 곡의 대중성, 난이도, 곡에 포함된 세션, 실현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요, 락, 인디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려고 노력합니다. 곡 선정 이후에는 정기적인 합주 요일을 정하고, 동아리방을 이용하거나 합주실을 대여하여 2시간에서 3시간의 연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필라이트는 총 3가지의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새내기 배움터에서의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필라이트 단독으로 준비한 공연이며, 새내기 배움터라는 자리에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대중성과 관객과의 소통을 위주로 곡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키-mama, sing street - drive it like you stole it, 크라이넛 - 말달리자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올해 중반기에는 영상 촬영으로 진행된 대동제 공연의 오디션을 준비하였습니다. 필라이트 단독이 아닌, 허브라는 이름으로, 허브에 소속된 소모임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민수 - 민수는 혼란스럽다, 쏘애플 - 로마네스크를 준비하였습니다. 규모가 큰 공연이었기에 소수로 진행하였고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아서 아쉬운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허브 콘서트를 준비하였습니다. 허브 콘서트는 허브에 속한 소모임들이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정기 공연입니다. 허브 콘서트에서는 민수 - 민수는 혼란스럽다, 쏘애플 - 로마네스크, 쏘애플 - 시퍼런 봄, 새소년 - 난춘, 백예린 - popo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른 소모임과 같이 준비하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필라이트는 2021년, 내년에는 정기적인 합주, 버스킹, 그리고 허브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합주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곡을 선정하고 합주 요일을 정해서 올해보다 더 정기적인 합주를 진행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합주를 통해서 자신이 맡은 악기에 대한 이해도 상승과 구성원들의 친목을 도모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투명하지만, 상황이 완화된다면 정기적인 합주를 바탕으로 소규모 버스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공연장 대관이나 영상을 통한 허브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개의 공연을 통해 한 해의 결실을 맺고, 성과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즐거움을 얻고, 공연을 통한 성취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 등산

최정훈



-북한산 오봉에서

### 1. 등산

등산 소모임은 철학과 학우들을 중심으로 서울의 여러 산을 함께 오르는 운동&친목 소모임입니다. 등산 소모임은 주로 아침에 서울역에 모여 산에 도착한 뒤, 정상에 오르고 내려와서 함께 식사를 한 뒤 헤어지곤 합니다. 등산 소모임은 코로나 이전에는 전국의 산을 모두 밟아보자는 웅대한 꿈을 안고 활동을 이어갔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현재는 활동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 2. 시작

등산 소모임의 시작은 2019년 1학기 기말고사 기간, 시험에 지친 과방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물리란 과목을 함께 수강 중이었던 박윤수, 최정훈, 이성빈 학우는 함께 스터디를 하던 중, 누군가의 머리에서 산을 오르고 싶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말이 혀를 지나자마자 모두가 찬성했기에 저희는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제안과 동의가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종강을 하고, 그 셋에 더해 이여명, 김민재와 함께 저희의 첫 등산은 관악산 연주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철학과 학우들을 중심으로 20명을 조금 넘는 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3. 활동

등산 소모임은 2019년 6월 관악산 연주대를 시작으로 도봉산, 북한산, 불암산 등을 오르며 여럿 산을 돌았습니다. 함께 의논해서 산을 정하고, 날씨를 정한 뒤 아침에 모여 산을 오르곤 하는데, 전 날에 비가 왔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계획을 바꿔 간단한 회식을 하거나 서울 여행으로 계획을 바꾸곤 합니다.



-관악산 연주대에서

이 소모임의 관리는 오른 고도의 총합을 통해 정해집니다. 등짱이라고 부르는 등산 소모임장이 매 활동 장소를 정하고, 구성원들은 거기에 참여하면서 산을 오릅니다. 향후 활동은 원래 전국의 산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자 합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잠시 활동을 쉬어가고 있습니다.

## 필로그라피(Philography)

이민철

### 1)소개

필로그라피는 philo(사랑하다)+graphy(사진) 사진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소모임 구성원들과 출사지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출사활동을 하는 소모임입니다. 필로그라피의 활동 목표는 문화적 소양 향상과 소모임 구성원 간의 친밀감 형성을 통해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만드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자신의 모습을 찍는다거나 동네 산책 중 우연히 보게 되는 인상적인 풍경이나 예쁜 하늘을 사진을 담고 싶어서 찍을 것입니다. 사진촬영은 전문적일 필요 없이 단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취미가 다르듯이 사진도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담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진에도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어디 놀러가 사진을 찍을 때 괜히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이는데 다같이 놀러가서 사진 찍으니깐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장점도 있네요

### 2)활동

#### \*2019년 하반기

반포공원, 북촌한옥마을, 을지로 출사진행

캐논사진전시회방문, 송실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가을사진공모전에 참가



반포한강공원 출사





북촌한옥마을 출사



을지로 출사



사진전시회 방문

**\*2020년 상반기**

**서촌&북촌한옥마을, 합정 출사진행**



서촌&북촌한옥마을 출사

**3)활동 계획**

다양한 전시회방문 및 출사진행, 사진공모전 참여, 소모임사진전시

## 제30대 학생회 퇴임사 및 제31대 학생회 취임사

언제나 당신과 함께 사시사철 철학과 제30대 학생회

학생회장 최정훈 ----- 130

부학생회장 최정민 ----- 130

당신의 일상을 더 특별하게, Phil Special 제31대 철학과 학생회

학생회장 김혜지 ----- 131

부학생회장 박세은 ----- 132

## <제30대 학생회 퇴임사&제31대 학생회 취임사>

### 언제나 당신과 함께 사시사철 제 30 대 철학과 학생회

#### 학생회장 최정훈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사시사철 제 30 대 철학과 학생회의 학생회장을 맡았던 18 학번 최정훈입니다. 4 년 대학생활 중 3 년을 함께 한 학생회를 마무리하는 한 해였고, 그만큼 기대가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다만 올 한해 기대를 가득 품고 올 신입생 학우분들께 더 좋은 행사를, 학생회를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 아쉬운 건 저 뿐이 아니었을 테지만 저만 아쉬운 듯이 지낸 것 같아, 주변인들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주 가까이서 제 생각을 들어준 부학생회장 정민이가 특히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는 학생회를 시작하며,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머뭇거리던 제가, 지나는 시간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쉬워 있을 때 뭐든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큰 각오는 아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다행히 그만큼 격려해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덕분에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시도하는 것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고, 전보다 더욱 능동적인 제가 된 걸 자주 느낍니다.

올 한 해 학생회는 저의 동기 성근이형과 함께 했던 이름을 갖고 학생회를 꾸려보는데, 올해의 설레는 시작이었고, 마지막 학생회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더욱 열심히 하고싶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끝을 맺기에 아쉬운 한 해였지만, 돌아보며 항상 떠오를 추억들로 마침표가 될 것 같습니다. 3 년 동안 학생회에서 함께 해준 사람들, 이제 모두 제 주변사람들이기에 모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뿌듯했던 한 해였고, 즐거웠던 학생회였습니다.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함께 해준 모두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부학생회장 최정민

안녕하세요, 부학생회장 최정민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특수한 상황에 부딪혀 학생회가 기획했던 많은 행사가 취소, 변경되었습니다. 학우님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행사를 저희 의지가 아닌 외부 원인에 의해 못하게 되었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행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던 철학과 학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를 기다려주셨던 학우분들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변동사항이 많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열심히 일해준 정훈, 수빈, 예원, 성빈, 소진, 세림, 세은, 지운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내년에 열심히 일하게 될 제 31 대 철학과 학생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우분들 건강 늘 조심하시고,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 당신의 일상을 더 특별하게, Phil Special 제31대 철학과 학생회

학생회장 김혜지

안녕하세요.

[당신의 일상을 더 특별하게, Phil Special] 제31대 철학과 학생회 학생회장 김혜지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제31대 철학과 학생회는 총 유권자 수 142명, 총 투표자 수 82명 중 77명이 찬성하여 57.75%의 투표율, 93.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우선 첫 온라인 정기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원해주시고 투표해주신 모든 철학과 학우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과를 대표하는 큰 자리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과도 같은 철학과 학우분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해준 30대 철학과 학생회 사시사철, 투표 독려에 힘써주신 많은 선·후배, 동기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단순히 철학이 궁금하고 좋아서 철학과에 입학했던 2019년, 그 안에서 후회했던 순간들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인문학의 뿌리이자 중심인 [철학]의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3학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제는 학우분들께서 주셨던 많은 관심과 사랑에 다시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Phil Special은 [당신의 일상을 더 특별하게] 라는 의미를 담아 정한 이름입니다. 코로나 19로 캠퍼스 생활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서, 학우분들이 느끼신 무력감과 우울감은 헤아리지 못할 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과에 대학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곁에 있지 않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희 학생회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하루를 선사해드리겠다는 헛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학우분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함 한 방울을 선물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31대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학생회장 박세은**

안녕하세요 당신의 일상을 더 특별하게, Phil Special 제31대 철학과 학생회 부학생회장 박세은입니다.

먼저 2020년도 철학과를 위해서 힘써주신 전대 철학과 학생회 회장님, 부회장님,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생활에 익숙하진 않지만, 올해 학생회 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회장인 혜지 언니를 도와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철학과 학우분들의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 있어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선거에서 당선된 만큼 철학과 학우분들이 안전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힘쓰며,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